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방안

-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

양지훈 · 김민아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방안

-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

양지훈 · 김민아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 양 지 훈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연구위원

공동연구 • 김 민 아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초빙연구원

발간사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과반수가 노인이 되었을 때 자원봉사활동이나 교육 참여를 시작하고, 경제활동 지속을 희망합니다. 이들은 세 활동 중 단 하나의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 개의 활동을 함께 하기를 바라는데, 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조모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년기 사회활동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은 교육생끼리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것은 향후 자원봉사활동이나 경제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그러나 구조화된 집단 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모임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임의 내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모임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형성되지 못하거나 단기 모임 후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임 초창기에 서로간의 친밀감 형성과 구조화된 모임 형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조모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공적인 자조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연구의 책임을 맡아 진행한 양지훈 박사와 자조모임에 관한 문헌 검토 및 메타분석 연구를 함께 하여 준 김민아 초빙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구 과정을 함께 해 준 현장 실무자 및 교육 참여자분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 자문위원님 및 평가위원님, 그리고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준 인천시 노인정책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자조모임에서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자용 및 참여자용 매뉴얼을 개발하여 자조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센터는 예비노인세대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센터장 원 미 정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관점에서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가 강조되고 있음(WHO, 2002).
- 인천시 베이비부머는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활동, 교육활동,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임(양지훈·권미애, 2018).
- 세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는 복합적이므로, 이를 연속선상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욕구 순에 따라 교육활동→자원봉사 및 시민단체활동→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사례로 ‘제2경력개발교육’ 수료자 자조모임이 있는데, 이 중 지속되고 있는 모임은 소수임.
- 따라서 자조모임 집단의 지속요인과 방해요인을 발견하고, 교육활동에서 자원봉사활동 및 경제활동으로의 발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자조모임 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자조모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실시되고 있는 자조모임 현황 파악
- 인터뷰를 통한 자조모임 형성과 유지과정 파악
- 메타분석을 통한 자조모임활동,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 파악
- 관리자용 및 참여자용 자조모임 매뉴얼 개발

2) 연구방법

- 학술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행연구 결과 정리
-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기(既)운영된 자조모임 유형 파악
- 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을 키워드로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참여 결정요인을 종합
- 제2경력개발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자조모임의 지속요인과 방해요인 탐색
-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자조모임 매뉴얼 개발

II. 문헌 검토

1. 자조모임의 일반적 특성

- 자조모임은 공동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인과 집단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며, 집단 성원은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한편으로는 지지자 다른 한편으로는 수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지적인 동료집단이라 볼 수 있음
- 자조모임의 특성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나, 공통적으로 자발성, 당사자주의, 역량강화, 공통의 문제해결지향성, 구성원 간의 상호호혜적 관계라는 특성을 지님.
- 예비노인세대의 자조모임은 Katz(1965)의 자기성취 및 개인적인 성장형, Whittaker(1982)의 개인적 변화형, 윤재영(2014)의 자기개발형 유형에 해당함.
- 자조모임의 목적은 구성원 간의 정보제공, 지지와 격려, 옹호활동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이 직면한 문제 또는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음.
- 자조모임에서 전문가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개입하나, 형성기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모임의 위기상황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자조모임의 실천원칙에 따르면 인구사회학적 제한 없이 공통의 욕구 및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역할은 유연한 경향을 가짐.

2. 자조모임의 강점 및 약점

- 구성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 긍정적인 생활 방식으로 동기를 가지고 변화를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 지지와 격려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상호교류는 이타심과 소속감을 경험하므로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 반면 구성원들이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경우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자조모임의 물리적 환경과 내부적 자원이 결핍된 경우 자조모임의 동기와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성공적인 자조모임의 조건은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 전문가는 자조모임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 및 상담 제공으로 구성원들의 역할의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므로 자발적 참여와 자력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개발 및 연계하여 자조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3. 국내외 자조모임 사례

- 과거 취약한 집단(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욕구해결을 위해 주로 운영되던 자조모임은 현재 시민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자조모임으로 확장됨.
-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국내에서 실시된 자조모임은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은 자조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교육 후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한 자조모임은 다문화가족이거나 장애인가족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은 형성된 바 없었음.
- 50+의 사회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한 국외 자조모임은 주로 유럽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에서 50+지원이 활성화된 것과 관련 있어 보임.
- 이 중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것은 Selbsthilfegruppe Arbeitslose 50+과 50 plus Talk이었고,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모임은 Voluntary Action Broxtowe, 그 외는 친교적 성격의 자조모임이었음.

4. 자조모임 매뉴얼 발간 사례

- 국내 자조모임은 장애인, 다문화가족,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이 개발되었음.
- 매뉴얼의 내용은 대부분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전문가를 위한 매뉴얼로 자조모임 지침과 전문가의 역할 및 태도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당사자들의 역량을 함양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조모임 운영지원에 초점을 둔 것임.
- 한편 자조모임 형성을 위한 기관 및 전문가의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조모임 운영이 되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위한 매뉴얼이 함께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함.

III. 사회활동 참여요인 메타분석 결과

1. 분석 방법

- 2020년 5월 2주간 보조원 및 연구자 2인이 학술데이터베이스 2곳(RISS, KISS)을 활용하여 출판유형을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함.
- 검색에 활용한 용어는 ‘자조모임참여’, ‘자조모임’, ‘자원봉사참여’, ‘자원봉사’, ‘일자리참여’, ‘근로참여’였음.
- 취합된 자료는 포함조건과 제외조건에 맞춰 PRISMA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합한 연구를 선별하였고, 발견한 문헌의 참고문헌을 통해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함.
-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는 연구자 1인이 코딩 매뉴얼에 따라 코딩 시트에 작성한 데이터를 연구자 1인이 재검토 하는 방식으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코딩하였음.
- 개별연구에서 추출한 효과 크기는 로그승산비(logOdds)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으며, 평균 효과 크기 산출은 효과 크기의 이질성을 가정하여 무선효과모형을 적용함.
- 분석은 R프로그램의 ‘meta’, ‘metasens’, ‘pwr’ 패키지를 활용하였음.

2. 자조모임 참여 분석 결과

-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한 488편의 연구 중 최종 선정된 연구는 2편에 불과함.
-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은 만족도, 대인관계, 가족지지 6개 데이터였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효과 크기는 가족지지($Z_r=0.215$, 95% CI: 0.076~0.345), 참여만족도($Z_r=0.201$, 95% CI: 0.062~0.032)였음.

3.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석 결과

-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한 5,738편의 연구 중 최종 선정된 연구는 34편이었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참여의사에 관한 결과이며, 자원봉사활동 지속성(백운옥, 2019), 만족도(이은석, 2020)는 기(既)발간된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는 다음과 같음.
 - 가족 관련 요인: 가족관계만족도($OR=1.437$)
 - 건강 관련 요인: 삶의 만족도($OR=2.350$)
 - 경제수준 관련 요인: 가구소득($OR=1.128$), 근로유무($OR=1.100$)
 - 봉사 및 기부 관련 요인: 기부경험($OR=2.875$)
 - 사회관계망 관련 요인: 단체참여여부($OR=4.578$), 대인관계만족도($OR=2.357$), 종교유무($OR=1.128$), 종교활동의 적극성($OR=2.204$)
 - 성별 관련 요인: 성별($OR=0.831$),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의식($OR=1.623$)
 - 여가 관련 요인: 여가만족도($OR=1.937$)
 - 기타: 거주지역($OR=1.568$), 교육수준($OR=1.275$)
-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는 다음과 같음.
 - 봉사 및 기부 관련 요인: 봉사참여경험($OR=5.072$)
 - 사회관계망 관련 요인: 단체참여여부($OR=3.613$)
-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는 다음과 같음(백운옥, 2019).
 - 개인요인: 참여도($Z_r=0.244$), 사회적지지($Z_r=0.282$)
 - 동기요인: 이기적 동기($Z_r=0.355$), 이타적 동기($Z_r=0.409$), 대의적 동기($Z_r=0.382$)

- 관리요인: 관리체계($Zr=0.365$), 업무배치($Zr=0.450$), 인정보상($Zr=0.310$)
- 만족요인: 대상자 만족($Zr=0.438$), 관리자 만족($Zr=0.383$), 동료 만족($Zr=0.436$), 성취 만족($Zr=0.555$)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는 다음과 같음(이은석, 2020).
 - 동기변인: 이타적 동기($r=0.422$), 이기적 동기($r=0.362$)
 - 업무변인: 업무인식도($r=0.466$), 업무적절성($r=0.418$), 기대합치도($r=0.157$)
 - 관계변인: 대상자관계($r=0.495$), 동료관계($r=0.485$), 담당자관계($r=0.462$)
 - 관리변인: 교육훈련($r=0.382$), 지도감독($r=0.345$), 인정보상($r=0.344$)

4. 경제활동 참여 분석 결과

-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한 22,769편의 연구 중 최종 선정된 연구는 21편이었음.
-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는 다음과 같음.
 - 가족 관련 요인: 가구 내 지위($OR=1.615$), 배우자 유무($OR=1.153$)
 - 경제수준 관련 요인: 경제활동여부($OR=0.636$), 소득($OR=1.243$)
 - 심리사회적 요인: 직업훈련 유무($OR=1.594$)
 - 인구학적 요인: 성별($OR=1.731$)
- 경제활동 참여의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는 다음과 같음.
 - 건강 관련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OR=1.410$)
 - 경제수준 관련 요인: 소득($OR=1.506$)
 - 인구학적 요인: 거주지($OR=0.646$), 성별($OR=1.398$)

5. 출간오류 분석

-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수를 보유하지 않은 자조모임을 제외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출간오류를 분석함.
- 그 결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경제활동 참여여부, 경제활동 참여의사여부는 전체 연구를 대표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여부는 $t=2.541(p=0.014)$ 로 표본크기가 작아지면 효과크기는 과대 측정되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결과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IV. 교육참여자 인터뷰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2018년 및 2019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제2경력개발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면접 및 전화인터뷰를 진행함.
- 남성 5명, 여성 1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1.4세였음.
- 기본사항, 교육관련 사항, 자조모임 관련에 대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활용하여 공통적인 응답을 받고, 그 과정에서 개인별 경험에 따라 비구조화된 질문을 추가함.

2. 조사결과

1) 코딩결과

단계	주제군	개념화
교육신청 및 참여 단계	근로 목적 참여	재취업 가능성을 기대함, 현업과 접목 가능성을 기대함
	비근로 목적 참여	재능기부 하고 싶음, 새롭게 배우고 싶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음
교육 종료 단계	긍정적 교육평가	관련분야로 취업함, 현업에서 활용함, 봉사활동단체에 가입함, 교육생 동료에 대해 만족함
	부정적 교육평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교육 후 활동에 대해 과도한 기대감을 가짐, 소외감을 느낌, 불성실한 교육생에 불만을 가짐
자조모임 형성 단계	자조모임 형성요인	교육내용을 확장하고 싶음, 재능기부활동으로 연결됨, 정보를 공유함
	자조모임 미형성요인	구심점이 없음, 의지가 약해짐, 목적과 계획을 잘 모름, 시간적으로 여유 없음
자조모임 운영 단계	긍정적 모임평가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지식을 확대함, 소속감을 느낌
	부정적 모임평가	시간 맞추기 힘들, 장소 구하기 힘들, 이기적인 참여자로 인해 힘들
자조모임 중단 단계	외부중단요인	COVID-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움, 일자리 연계가 사라짐
	내부중단요인	참여인원이 줄어듦

2) 조사결과

교육 신청 단계			교육 과정 단계		교육 종료 단계					
근로 목적	재취업		일자리와 연결 가능성 인식		→	긍정	관련분야로 취업			
	현재 활동 분야의 확장		현업과 접목 가능성 인식				현업에서 활용			
비근로 목적	재능 기부		-				부정	봉사활동모임 가입		
	새로운 배움		새로운 분야에 참여					교육생 간 높은 의욕과 열정, 학습수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에게 도움		교육 후 활동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자원봉사 기관 연결 희망										
인적 네트워킹		후속 교육 없음								
		기존 교육생끼리의 친목으로 소외감								
				불성실한 교육생에 대한 불만						
자조모임 형성 단계					자조모임 운영 단계			자조모임 중단 단계		
구분	목적	세부내용			→ <td rowspan="4">긍 정</td> <td colspan="2">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증가</td>	긍 정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증가			
모임 형성	교육내 용확장	배운 내용 응용					정보교환		→	코로나로 인해 중단
		정보공유					지식확대에 대한 욕구 증가			
	재능기 부	자원봉사활동 참여					소속감 느낌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			시간 맞추기 힘들					
모임 미형성 또는 미참여	형성 주체의 일방적 연락단절			→	부 정	장소구하기 힘들				
	의지가 약해짐					지나친 개인적 의견				
	목적과 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					개인생활 우선함				
	시간적 여유 없음(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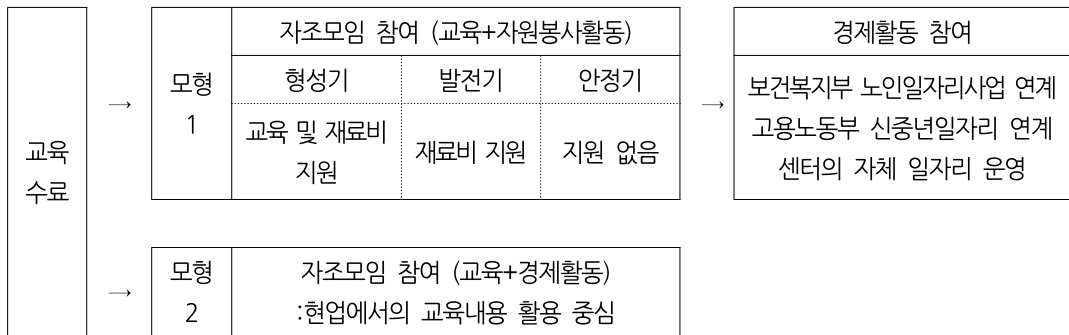
○ 모임발달을 위한 노력

- 구성원: 장기적 참여 의지 고취를 위해 공적 일자리 연계 및 초기 리더십 지원
- 전문가: 위기개입, 자원개발 및 연계, 교육 및 상담 제공
- 센터: 모임장소 제공

V.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개발

1.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설계

1) 자조모임 운영 모형



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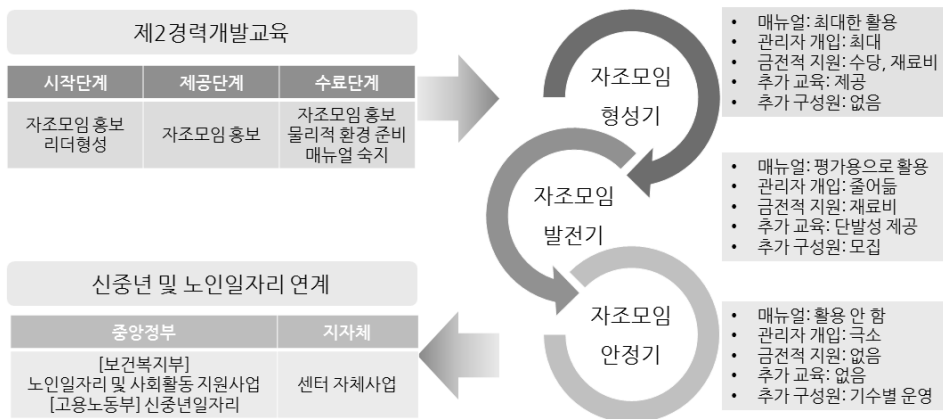
- 제1장: 나를 소개해봅시다, 자조모임의 리더 정하기, 자조모임이란 무엇일까요?, 자조모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조모임 구성하기, 규칙정하기
- 제2장: 자원봉사활동 대상 정하기, 실시횟수와 활동 준비기간 정하기, 자조모임과 자원봉사활동의 비율 정하기, 활동내용(프로그램) 정하기, 세부활동 계획하기
- 제3장: 서비스대상자 이해하기, 운영일지 작성하기, 건강하게 의사소통하기, 갈등 해결하기, 자조모임 평가하기, 온라인에서 모임하기

V.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정책적 제언

1) 교육 후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은 다음과 같음.



- 기존의 취약계층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임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조모임 대신 ‘50+사회공헌모임’, ‘50+학습모임’ 등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음.

2) 경제활동 참여 기반 마련

- 교육수료 후 자조모임 병행 경제활동 참여 모형은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 강사가 주된 대상이 됨.
 - 공공일자리는 모형1에서 보다 적합하고, 인터뷰 조사 결과 교육내용과 관련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외부기관 강의 시 도움을 받고자 자조모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음.
- 따라서 교육수료생에 대한 질적 담보와 관리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기반 마련 측면에서 교육생 인적자원 정보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재뱅크는 센터 활용 중심이므로, 외부기관에서 쉽게 강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사소개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질적 담보를 해야하며, 외부 활동 시 센터 소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있음.

2. 결론

- 본 연구는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 및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육 후 자조모임을 제공함으로써 예비노인세대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검토 및 현황분석 결과 참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가의 활동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메타분석 결과 자원봉사활동 목적의 자조모임과 경제활동 목적의 자조모임 운영이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참여자 인터뷰 조사 결과, 교육 종료단계에서 자조모임 형성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의 개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 목적의 자조모임 운영 초기 단계에 초점을 둔 관리자용 및 참여자용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자조모임을 활용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는데 돕고자 교육 후 자조모임 운영활성화와 경제활동 참여 기반 마련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음.

차 례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5

Ⅱ 문헌 검토

1. 자조모임의 일반적 특성	9
1) 자조모임의 개념	9
2) 자조모임의 정의와 특성	9
3) 자조모임의 유형	11
4) 자조모임의 목적과 의미	13
5) 자조모임에서의 전문가 역할	13
6) 자조모임의 실천원칙	15
2. 자조모임의 강점 및 약점	15
1) 자조모임의 강점	15
2) 자조모임의 약점	16
3) 성공적인 자조모임을 위한 조건	17
3. 국내외 자조모임 사례	18
4. 자조모임 매뉴얼 발간 사례	23
1) 자조모임 매뉴얼의 필요성	23
2) 자조모임 매뉴얼의 구성	24

차 례

Ⅲ 사회활동 참여요인 메타분석 결과

1. 분석 방법	29
1) 분석대상 및 자료선정	29
2) 데이터코딩 및 효과크기 산출	30
2. 자조모임 참여 분석 결과	31
1) 자료수집 및 선정 결과	31
2) 분석결과	34
3.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석 결과	35
1) 자료수집 및 선정 결과	35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38
3) 자원봉사 참여경험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40
4. 경제활동 참여 분석 결과	49
1) 자료수집 및 선정 결과	49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50
3)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53
5. 출간오류 분석	58

Ⅳ 교육참여자 인터뷰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63
2. 조사결과	65
1) 코딩 결과	65
2) 개념화한 인터뷰 내용	66
3) 희망하는 지원 방안	77
3. 함의	81

차 례

V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설계

1.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설계	87
1) 자조모임 운영 모형	87
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구성	88
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세부내용	90
1) 자조모임 구성 전 개입	90
2)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91

VI 결론 및 제언

1. 정책적 제언	119
1) 교육 후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119
2) 경제활동 참여 기반 마련	121
2. 결론	122

참고문헌	125
------------	-----

부록	131
----------	-----

표 차 례

<표 II-1> 자조모임의 정의와 특성	10
<표 II-2> 다양한 자조집단 유형	12
<표 II-3> 국내 자조모임 현황	19
<표 II-4> 해외 자조모임 현황	21
<표 II-5> 자조모임 매뉴얼 발간 현황	26
<표 III-1> 최종단계에서 포함 및 제외된 연구 목록: 자조모임	33
<표 III-2> 평균 효과 크기: 자조모임	34
<표 III-3> 최종단계에서 포함 및 제외된 연구 목록: 자원봉사	37
<표 III-4> 분석에 포함된 개별연구의 특성	38
<표 III-5> 데이터의 구성	39
<표 III-6> 평균 효과 크기: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여부	41
<표 III-7> 평균 효과 크기: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여부	44
<표 III-8> 평균 효과 크기: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사 영향요인	47
<표 III-9> 평균 효과 크기: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영향요인	48
<표 III-10> 최종단계에서 포함 및 제외된 연구 목록: 경제활동	51
<표 III-11> 분석에 포함된 개별연구의 특성: 경제활동	52
<표 III-12> 데이터의 구성: 경제활동	53
<표 III-13> 평균 효과 크기: 경제활동 참여여부	54
<표 III-14> 평균 효과 크기: 경제활동 참여의사여부	56
<표 IV-1>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	64
<표 IV-2> 자조모임 참여 과정 개념화	65
<표 IV-3> 영역별 희망하는 지원 방안	81
<표 IV-4> 성공적 자조모임 요건에 맞춘 개선안	82
<표 V-1> 사회활동 욕구를 가진 예비노인세대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구성(안)	90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	92

그 림 차 례

<그림 I-1> 사회활동 욕구를 가진 예비노인세대 자조모임 모형	18
<그림 III-1> flowchart: 자조모임	32
<그림 III-2> forest plot: 자조모임	35
<그림 III-3> flowchart: 자원봉사	36
<그림 III-4> forest plot: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여부	42
<그림 III-5> forest plot: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여부	45
<그림 III-6> flowchart: 경제활동 참여	49
<그림 III-7> forest plot: 경제활동 참여여부	55
<그림 III-8> forest plot: 경제활동 참여의사여부	57
<그림 III-9> funnel plot	59
<그림 V-1> 교육 후 자조모임 발전모형	88
<그림 VI-1>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	120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는 잘 나이들기(ageing well)에 대한 관인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세 정책틀(참여, 건강, 안전)에서 강조되는데(WHO, 2002), 인천시 예비노인세대는 특히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임(양지훈·권미애, 2018).
 -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서 예비노인세대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예비노인세대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해 현재 참여 비율보다 노후에 참여할 의사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 또한 과반이 희망함.
 - 건강관련 삶의 질이나 건강행태는 양호하며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나 돌봄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이었음.
- 참여는 다음의 내용을 행동강령으로 삼으며(WHO, 2002), 이는 주로 사회활동(교육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 친목활동) 참여를 의미함.
 - 생애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및 학습의 기회 제공
 - 개별적인 욕구, 선호, 능력에 따른 경제 발전 활동, 공식적·비공식적 근로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의 활동적 참여 가능성과 고려
 - 가족과 지역사회참여 촉진
 - 돌봄제공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 내용
-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현재 사회활동 참여율과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비교하여 보면,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활동(44.5%p), 교육활동(53.5%p)에 대한 노년기 욕구가 컸으며,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 희망률(58.9%)이 높았음(양지훈·권미애, 2018).

- 활동적 노화 관점 및 예비노인세대의 욕구를 고려할 때,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활동, 교육활동, 경제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세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는 복합적일 수 있으며, 이를 연속선상에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됨.
 - 인천시 예비노인세대는 노년기에 여가취미활동(37.8%), 교육자기개발(16.3%)을 하면서 보내길 희망하고,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9.6%)보다 용돈벌이를 위한 소득활동(14.6%)을 선호함(양지훈·권미애, 2018).
 - 대부분의 응답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욕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예. 1순위 취미활동, 2순위 소득활동), 이는 개인의 욕구는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 선호하는 활동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단순 노무 외 개인의 능력과 경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이나 소득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교육활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 결합모형 중 하나는 높은 욕구 순으로 구성된 사회참여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자원봉사 및 시민단체활동→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모델임.
- 이에 대한 사례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이하 센터)의 ‘제2경력개발교육’ 수료자 자조모임이 있는데, 제2경력개발교육은 50+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교육임.
- 교육 수료 후 희망자에 한하여 같은 교육을 이수한 또래집단과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동년배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자조모임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신중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으로 연결되었음.
- 즉 교육 후 자조모임을 통해 교육이라는 개별화된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이나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었음.
 - 또한 자조모임의 유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음.
 - 따라서 자조모임을 활용한 사회참여 프로세스는 교육활동→자원봉사활동→경제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그러나 교육 후 형성된 6개의 자조모임 중 1개의 모임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자조모임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지와 합의가 중요하며, 지속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구성된 자조모임 집단을 탐색하여 지속요인과 방해요인을 발견하고, 자원봉사활동 및 경제활동으로의 발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자조모임을 지원함으로써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방안으로써 자조모임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로의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 목적의 자조모임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조모임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있음.
- 자조모임 형성과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단발성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효과를 지속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자조모임의 지속요인과 방해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자조모임이 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 참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진행됨.
 - 자조모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현재 개발된 자조모임 매뉴얼 분석
 - 인터뷰를 통한 자조모임 형성과 유지과정 파악
 - 메타분석을 통한 자조모임활동,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 참여 결정요인 파악
 - 관리자용, 참여자용 자조모임 매뉴얼 개발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학술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
- 자조모임의 형성 배경 및 효과 등 일반적 특성 탐색
-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기(既)운영된 자조모임 유형 파악
- 기존 자조모임 매뉴얼 구성 분석

○ 메타분석

- 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을 키워드(keyword)로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결과 종합
- 참여 결정요인을 종합하여 자조모임의 발전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탐색

○ 인터뷰조사

- 제2경력개발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자조모임의 지속요인과 방해요인 탐색

○ 분석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자조모임 매뉴얼 개발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연구흐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연구계획 수립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설정 ▶ 연구 방향 및 연구 방법 설정	▶ 자조모임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문헌 연구	▶ 자조모임의 형성 배경 및 효과 등 일반적 특성 탐색 ▶ 기존 자조모임 매뉴얼 구성 분석	▶ 선행 보고서 및 연구 검토
메타분석	▶ 자조모임의 발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탐색	▶ 메타분석 키워드: 자조모임, 자원봉사, 경제활동, 일자리
인터뷰 조사	▶ 자조모임의 지속요인과 방해요인 탐색	▶ 인터뷰 활용 ▶ 조사대상: 인생재설계교육 참여자
자문회의	▶ 분석방향 및 정책적 함의 관련 방향성 검토	▶ 서면 및 대면 자문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매뉴얼 개발	▶ 자조모임 매뉴얼 개발	▶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리자 및 참여자용 매뉴얼 개발 ▶ 개발된 내용은 현장 전문가 및 참여자 검토 후 의견 수렴



II. 문헌 검토

1. 자조모임의 일반적 특성
2. 자조모임의 강점 및 약점
3. 국내외 자조모임 사례
4. 자조모임 매뉴얼 발간 사례

II. 문헌 검토

1. 자조모임의 일반적 특성

1) 자조모임의 개념

- 자조(Self-help)라는 단어에 포함된 ‘돕는다(help)’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임을 의미하므로 자조모임(Self-help group)은 개인과 집단의 상호성과 상호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시민이나 지역민들이 상호와 연대를 기본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특별한 형태의 자발적, 조직적 원조 활동이며(Luhman, 1983), 신체적, 정신적 질환과 사회적 혹은 경제적 곤경에 대한 예방이자 더 나은 해결을 돕는 당사자들의 모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행동 양식을 포함하는 개념임(이경준, 2006, 재인용 황현민, 2017).
- 비슷한 환경과 경험, 또는 비슷한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으로써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형성한 집단임(김춘경 외, 2016; 남세잔·조흥식, 1997).
- 즉, 자조집단은 공동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인과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며 집단 성원은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한편으로는 지지자 다른 한편으로는 수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지적인 동료집단이라 볼 수 있음.

2) 자조모임의 정의와 특성

- <표 II-1>에서 볼 수 있듯이 자조모임의 특성은 학자나 학문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됨(최복천 외, 2013).

〈표 II-1〉 자조모임의 정의 및 특성

구분	자조모임의 정의	특성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사전, 이철수, 2013)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가족들이 공통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집단	▪ 문제를 가진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 ▪ 공통된 목표 ▪ 상호호혜성 ▪ 대등한 관계 ▪ 자발성
사회학 (Smith&Pillemer, 1983) (고영복, 2000)	대다수 참여자에 의해 변경가능하고 개인적이라 인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격적 상호작용과 상호부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발적 집단	▪ 참여자 중심 ▪ 문제해결 지향 ▪ 대등한 관계 ▪ 상호작용과 상호부조 ▪ 자발성
Borkman (1976)	동일한 경험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개인의 상호부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력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조직	▪ 상호부조 ▪ 역량강화를 통한 주체적 문제해결 ▪ 조직의 민주적 운영
Katz & Bender (1976)	상호원조를 통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소규모의 자발적인 집단	▪ 상호원조, 소규모 집단 ▪ 자발성
DAG SHG (1987)	질병이나 심리적 혹은 사회적 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연합체	▪ 공통의 문제를 가진 당사자 ▪ 문제 해결 지향 ▪ 자발성
Stewart (1990)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생활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문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경험 중심의 기술을 사용하는 동료집단	▪ 문제해결 지향 ▪ 구성원 간의 지지와 정보제공 ▪ 동료집단
Yalom & Leszcz (2005)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상호 지지하는 상호원조 집단, 지지집단	▪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개인 ▪ 상호원조 집단 ▪ 지지집단
Zastrow (2008)	공통의 조건, 경험, 문제상황을 나누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공통 요인과 관련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원조하는 집단	▪ 적응능력 향상 ▪ 상호원조 집단

출처: 최복천 외(2013)의 내용을 수정함.

- 사회복지학 사전(이철수, 2013)에 의하면 “자조모임은 욕구를 가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공통된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집단”으로 이해하므로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원조에 주력하므로 동료와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Borkman(1976)은 자조모임을 “동일한 경험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개인의 상호 부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력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조직”으로 정의함. 구성원의 합리적이고 평등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초점을 둠.
- Yalom와 Leszcs(2005), Zastrow(2008)는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의 심리적 치료적, 의료적 자조모임에 초점을 두었음. 이에 자조모임은 “공통의 조건, 경험, 문제적 상황을 나누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공통 요인과 관련된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지집단, 상호 원조 집단”으로 규정하였으며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지와 상호원조성 특성을 강조함.
- 이밖에 Katz와 Bender(1976), DAG SHG(1987) 또한 자조모임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특성을 강조하였음.
- 이에 자조모임은 자발적인 참여로 개인과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량 강화, 문제해결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성원간의 상호원조, 상호부조가 형성되는 비전문적인 동료집단으로 볼 수 있음.
- 즉, 자조모임은 자발성, 당사자주의, 역량강화, 공통의 문제해결지향성, 구성원 간의 상호호혜적 관계의 특성을 지님.

3) 자조모임의 유형

- <표 II-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자조모임은 목적, 구성원의 특징 및 전문가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음.
- Katz(1965)는 자기성취 및 개인적 성장형, 사회적 권위와 대변형, 생활창조형, 문제해결형, 혼합된 유형의 다섯 가지로 자조모임 유형을 구분함.
- Whittaker(1982)는 자조집단을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개인변화 유형은 자아성장, 사회적 기능 개선 및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 등이며 사회적 변화 유형은 사회적 변화를 위한 옹호활동 등이 포함됨.
- Borkman(1976)에 의하면 자조모임은 다양성을 내포한 개념의 지지체계, 사회운동, 수혜자 참여체계, 전문적인 협조 체계를 보충해주는 대안적인 체계, 생활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하위 문화체계, 사회적 영향력을 주는 집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것을 소규모의 외부 구조와는 연관되지 않은 집단과 대규모로 잘 조직화된 집단으로 유형화 함.

- 윤재영(2014)은 자조모임을 문제해결형, 자기개발유형, 의식화형으로 구분함. 문제해결형은 공동의 문제를 가진 당사자 또는 가족들로 구성되어 문제해결에 초점, 자기개발형은 역량 강화, 의식화형은 사회인식 변화에 초점을 둠.
- 이외에도 Rhoades(1986), Moeller(1996), 김현진(2007) 등이 자조집단의 유형을 제시함. 대부분 질환자, 장애인 등 심리적 치료적 접근, 의료적 자조모임 또는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적 옹호를 위한 집단유형으로 구분됨.
- 예비노인세대의 사회공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자조모임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삶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또한, 사회적 참여를 위한 역량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예비노인세대 자조모임은 Katz(1965)의 유형에서 자기 성취 및 개인적인 성장형, Whittaker(1982)의 유형에서 개인적 변화형, 윤재영(2014)이 제시한 유형에서는 자기개발형이라 할 수 있음.

〈표 II-2〉 다양한 자조집단 유형

학자	자조집단 유형
Katz(1965)	자기성취 및 개인적 성장형, 사회적 권위와 대변형, 생활창조형, 문제해결형, 혼합된 유형
Borkman(1976)	소규모의 외부 구조와 연관되지 않은 집단유형 대규모로 잘 조직화된 집단
Whittaker(1982)	개인적 변화형, 사회적 변화형
Rhoades(1986)	자치적 집단모델, 부분적 모델, 서비스체계모델, 연합모델
Moeller(1996)	심리치료 자조집단, 의료적 자조집단, 자조단체, 시민운동 인식변혁을 위한 자조집단, 생활 설계적 자조집단, 노동 중심 자조집단, 학습 및 직업교육 중심 자조집단
Gartner & Reissman(1977)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 사회행동과 관계된 집단
김현진(2007)	당사자 자조집단, 당사자 가족 및 친구 집단
Adams(2007)	전문가필수형, 전문가촉진형, 자율형
윤재영(2014)	문제해결형, 자기개발형, 의식화형

출처: 천복천 외(2014)의 내용을 수정함.

4) 자조모임의 목적과 의미

- 최복천 외(2013)는 다음과 같이 자조모임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함.
- 첫째, 자조모임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직면한 상황, 조건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 받음.
 - 문제나 상황 자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도 제공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정보의 대다수는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중복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와 직면하고 새로운 생각과 전략으로 대응하는지 접할 수 있음.
 - 또한, 정보의 제시 시기나 양에 따라 자조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음.
- 둘째, 자조모임 내에서 참여자들은 친밀감을 느끼고, 전문가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동료애와 긍정적인 견해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음.
 - 유사한 경험과 상황에 대한 상호 공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료의 지지는 특별한 행동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며 일상의 자조모임에서 표현되는 인정과 칭찬은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킴.
- 셋째, 자조모임 내에서 개인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옹호활동에 연관되도록 자극을 받을 수 있음.
 - 자조모임의 옹호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만들고, 자조단체의 조직(self-help organization)으로 확장되어 나감.
- 즉, 자조모임의 목적은 구성원 간의 정보제공, 지지와 격려, 옹호활동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이 직면한 문제 또는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음.
- 사회공헌활동 및 경제활동에 욕구가 높은 예비노인세대의 경우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위한 재취업 교육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실시, 심리·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및 노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옹호 활동 등이 자조모임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

5) 자조모임에서의 전문가 역할

- 자조모임은 구성원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전문가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개입함.

-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조모임 발달과정에서 형성기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는 모임의 위기상황에 있거나 조언이 필요할 때 전문가의 심리·사회적 지지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또한,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대부분 받으며 전문가의 조언과 서비스를 기대함(이용표·최한숙, 2001).
- Gartner와 Reissman(1988)은 자조모임에서 전문가는 조직가, 지지자,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시함. 즉 잠재적 구성원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자조모임 형성을 위한 교육, 자조모임 구성을 위한 구성원 모집, 모임 시간과 장소 설정 등 자조모임 구조화하는데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또한, 자조모임이 발달함에 따라 지지자로서 지지와 격려, 피드백, 조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Maguire(1984)는 중개자로서의 전문가의 역할을 자조모임 구성원의 욕구에 기반에 자원 연결을 연계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조모임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로 제시함. 구체적으로 다음의 10가지를 제시함.
 - 모임의 장소 제공
 - 집단의 정보 제공
 - 집단에 사람을 의뢰하는 것
 - 지역사회에서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
 -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
 - 집단과 다른 기관/조직 사이의 윤활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 모임 지도자를 위한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 기금을 위한 기여 또는 배분
 - 구성원을 훈련시키는 것
 - 집단으로부터의 의뢰를 받는 것
- 전문가는 사회적 활동에 욕구를 가진 예비노인세대의 자조모임 형성을 위해 그들이 자조모임에 대한 이해 수준을 향상하도록 돕고, 자발적인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사 및 지지자의 역할, 모임의 활동 지원과 사회활동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연계하는 중개자의 역할이 요구됨.

6) 자조모임의 실천원칙

- 자조모임 실천원칙을 기반으로 서명희(2001)는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자조모임 구성원들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제한 없이 동등한 접근 수단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음. 이에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욕구를 가진 당사자 또는 관계된 사람이라면 접근 가능함.
 - 둘째, 자조모임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 부여된 욕구와 역할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규정함. 당사자의 욕구와 기대하는 역할을 기반으로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지자의 역할과 수혜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가능함.
 - 셋째, 자조모임은 당사자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며 전문가의 역할은 소극적이며 제한적임. 전문가 개입의 형태는 자조집단 모집, 분위기 조성, 정보 및 자원 제공 등 다양하나 운영방식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제한적으로 개입함.
- 자조모임의 실천원칙에 따르면 인구 사회학적 제한 없이 공통의 욕구가 있는 당사자 또는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라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조모임의 구성원들의 역할은 내부적 요구 또는 욕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그 역할은 유연한 경향성을 가짐.
- 또한, 자조모임은 구성원의 참여 자발성과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전문가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임.

2. 자조모임의 강점 및 약점

1) 자조모임의 강점

-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정보교류는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료들을 통한 정보보다 구성원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에 쉽게 활용될 수 있는 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있음.
- 구성원은 동일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 그리고 문제해결 행동을 모방 및 학습하므로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 의사소통, 사회적응능력이 향상됨.

- 자조모임 내에서는 전문가가 제공하기 어려운 유사한 인생 경험을 공유한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감추기보다는 드러내어 해결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인정과 칭찬, 격려와 지지 그리고 긍정적인 견해를 획득할 수 있음.
- 자조모임은 구성원 개인의 문제 상황에 대한 지식이나 대처 기술 등에 관하여 집단 구성원들 간의 공유와 상호교류를 통해 스스로 변화와 자기 평가를 할 기회를 제공함. 이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효과적임.
- 자조모임을 통해 구성원들은 집단과 동일시하므로 소속감을 경험하고,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므로 내적 성장 및 자아통합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짐.
- 자조모임은 상호작용 및 상호부조의 특성이 있어 타인에 대한 이타적 관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력을 가짐.
- 종합적으로 볼 때 자조모임의 강점은 구성원들이 직면한 문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인 생활 방식으로 동기를 가지고 변화를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또한, 지지와 격려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상호교류는 이타심과 소속감을 경험하므로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2) 자조모임의 약점

- 자조모임의 특성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운영이나 구성원들이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경우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인의 문제를 욕구로, 개인의 욕구를 집단의 욕구로 전환하는 데 내적 역량과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자조모임의 구성원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상호부조를 통해 스스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기술 부족 등 개인 자원과 리더의 역할 부재, 물리적 환경 등 집단 내부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자조모임 내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데 제한적이며 외부적 자원의 의존하는 경향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자조모임은 구성원 간의 협력과 지지를 통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집단 또는 조직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 잠재적 구성원들이 취약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개인의 문제를 욕구로 표출하거나 개인의 욕구를 집단의 욕구로 즉 공통의 욕구로 인지하고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자조모임의 물리적 환경과 내부적 자원이 결핍된 경우 자조모임의 동기와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음.
- 그러므로 자조모임의 구성과 발달을 위해서는 잠재적 구성원의 역량 강화, 외부 지원 연계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환류가 요구됨.

3) 성공적인 자조모임을 위한 조건

- 자조모임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할 것임.
- 자조모임의 구성원들은 자조모임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함. 즉, 모임의 목적과 획득하고자 하는 과업을 인지하여야 하며 자조모임 내·외부의 자원을 인식하고 지지 또는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는 잠재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조모임을 조직·운영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조모임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임.
- 공통의 욕구를 지닌 개인을 중심으로 자조모임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됨. 자조모임은 전문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잠재적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등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프로젝트로 실행되어야 함.
- 전문가는 조력자로서 자조모임 구성원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자조모임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즉 집단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정보 제공, 조언, 자원 연결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예를 들어 실업자 자조모임일 경우 취업 지원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교사 및 상담자의 역할, 이웃돌봄을 지원하는 노인들의 자조모임일 경우 지역사회 돌봄 기관과 연계하는 등 중개자로서 사회적 공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지역사회 기관은 자조모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함. 자조모임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상호 간의 교류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물리적 환경은 자조모임의 중요한 조건이 됨. 이에 지역사회 기관은 유휴공간 활용 등 공간 확보가 요구됨.

- 성공적인 자조모임의 조건은 우선으로 접근하기 쉽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전문가는 자조모임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 및 상담 제공으로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므로 자발적 참여와 자력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 개발 및 연계하여 자조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의 욕구를 가진 예비노인세대의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의 [그림 II-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그림 II-1] 사회활동 욕구를 가진 예비노인세대 자조모임 모형



3. 국내외 자조모임 사례

- 과거 취약한 집단(장애인, 정신질환자)의 욕구해결을 위해 주로 운영되던 자조모임은 현재 시민활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자조모임으로 확장됨.
- 국내에서 실시된 자조모임은 <표 II-3>과 같으며,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최소 2회 이상 진행된 자조모임 총 207개를 발견함.
 - 9월 2주간 포털사이트 2곳(네이버, 구글)에서 ‘자조모임 운영’, ‘self-help group’을 키워드로 모임 현황을 조사함.
 - 각 모임은 링크된 개별 사이트에서 발견하여, 별도의 출처없이 운영기관명을 명시하였음. 이는 <부록>의 구체적인 자조모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II-3〉 국내 자조모임 현황

대상별	모임 수	활동내용	운영기관
1인가구	5	- 스터디, 자체기획 - 봉사, 지역사회나눔 - 지역사회문화탐방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부모 및 가족	18	- 집단미술, 가족문화체험 - 의사소통교육, 정서지지 - 양육정보공유, 출산교육 - 자녀성장지원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65	- 출신국가 문화교육 - 화장품만들기, 수공예자조모임 - 미술, 심리정서 강화 - 자녀성장지원, 역량강화교육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장애인 및 가족	39	- 문화체험, 정보공유, 정서지지 - 친목, 사회적응훈련 - 자체기획 등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발달지원센터, 장애인지원센터, 기타
미혼모부가정	3	자녀양육, 정서지지 등	인구보건복지협회,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정	31	- 취미활동, 자기역량강화, 문화체험 - 문제해결능력 함양 - 정보공유, 정서지지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모자원, 노인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치매가족	8	문화체험, 정서지지, 정보교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환자 및 가족	13	정보공유, 정서지지	병원, 가족연합회, 기초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4	자원봉사, 친목, 사회성 증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경기여성비전센터
기타	21	- 성인 건강모임, 마음챙김모임 - 청소년 및 성인 문화활동 등	기초자치단체,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국내에서 실시된 자조모임은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은 자조모임이 실시됨.
- 이중 교육 후 자조모임을 살펴보면, 구리시에서 건강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2건의 자조모임,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음챙김명상에 대한 자조모임이 있었음.

-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자조모임은 전남여성가족재단 1건이 있었음.
- 그러나 교육 후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한 자조모임은 다문화가족이거나 장애인가족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은 형성된 바 없었음.
- 국외 자조모임은 50+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한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I-4>와 같음.
-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자조모임은 주로 유럽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가 다른 국가에 비해 일찍이 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므로 예비노인세대 경제참여를 위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시민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 사회활동 중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것은 Selbsthilfegruppe Arbeitslose 50+과 50 plus Talk이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모임은 Voluntary Action Broxtowe이었음.
 - 50세 이상 실직자의 자조모임(Selbsthilfegruppe Arbeitslose 50+)은 스위스 Bruggwindisch 지역 교회연합 센터에서 조직된 모임으로 실직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주 1회, 정기적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회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조모임 운영지원 외 직접적인 직업 연계 및 경제지원은 하지 않음.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정보공유 및 실직으로 인한 상실감을 다루는 등 정서지지에 목적이 있음.
 - 아베니어 50+ 사회적 연대(Avenir 50 plus Verband)는 스위스의 베른 외 6개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예비노인세대의 사회 재통합과 권리 옹호에 목적을 둔 시민단체임. 아베니어 50+ 연대에 소속된 50 plus Talk 자조모임은 취업 관련 정보공유, 사회적 네트워크 및 지지체계 형성하는 등 지지적 역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고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는 사회행동(social action)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영국의 Voluntary Action Broxtowe는 CVS(Community and Responsible Service)이자 브록스토허원봉사센터로 지역사회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임. 이들은 기부금(donations), 보조금(grants), 계약금(contracts)으로 운영되며, 훈련 및 개발활동, 상품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입도 있음.
- 고령자 권리와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는 자조모임으로는 독일의 Seniorinnen und Senioren aus Heidelberg와 Seniorinnen und Senioren aus Mannheim가 있음.
 - 독일 노동조합연맹(DGB)에 소속된 유나이티드서비스노동조합(ver.di)은 독일 전역 연방국 거점으로 노동권 보호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II-4〉 국외 자조모임 현황

모임명	국가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Selbsthilfegruppe Arbeitslose 50+ (50+실직자 자조모임)	스위스	50세 이상 실직자	- 일상생활 공유 사회적 지지 형성 - 실직 관련 의견 공유 - 구직에 관한 정보 공유	Kontaktstelle Selbsthilfe Kanton Solothurn Pastoralraum Region Brugg-Windisch
50 plus Talk (50+토크)	스위스	50세 이상	- 실직 관련 의견 공유 - 구직에 관한 중요한 정보 제공 - 권리 주장을 위한 사회행동	AVENR50PLUS
Friday Club (금요일 클럽)	영국	고령자	-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친교 자조모임 - 티타임 - 사회활동프로그램	Self help UK
Voluntary Action Broxtowe (자원봉사활동)	영국	고령자	- 언어(영어) 및 직업기술 습득 - 자원봉사 현장 실제 배치를 통해 자원봉사의 기회 제공	Voluntary Action Broxtowe 2018
Self-Help Group for Elderly People (고령자를 위한 자조모임)	오스트 리아	고령자	- 일상생활 공유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Sigmund Freud University Outpatient Clinic
Plusminus 50 - Selbsthilfegruppe für Frauen um die 50 (플러스 마이너스 50 - 50세 전후 여성을 위한 자조모임)	독일	50세 전후 여성	- 일상생활 공유 - 정서적 지지 활동	Selbsthilfebüro KORN e. V.
Netzwerk 55plus (55+네트워크)	독일	55세 이상	친밀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친교 모임 및 여가활동	Der Paritätische selbst Hilfe in Oberhausen
Seniorinnen und Senioren aus Heidelberg (하이델베르크 시니어)	독일	45세 이상	시니어의 권리 및 사회적 이슈에 관한 정기적인 워크숍	ver.di Leistungen für Seniorinnen und Senioren
Seniorinnen und Senioren aus Mannheim (만하임 시니어)				

- 라인-네카 지역 유나이티드서비스노동조합(ver.di in Rhein-Neckar)은 하이델베르크 시니어 모임(Seniorinnen und Senioren aus Heidelberg), 만하임 시니어 모임(Seniorinnen und Senioren aus Mannheim)을 운영함. 노인 권리 및 노후정책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적 이슈에 관한 논의 등 정기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어 사회단체로서 시민교육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그 외 모임은 친교적 성격의 자조모임으로, 영국의 Friday Club, 독일의 Netzwerk 55plus, Plusminus 50-Selbsthilfegruppe für Frauen um die 50, 오스트리아의 Self-help group for elderly people이 있음.
- 영국, 독일 대부분의 민간 자조모임은 법적 근거를 지닌 자조모임 협회(self-help association)에 소속되어 있음. 자조모임 협회는 지방정부 지원, 회원 회비,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조모임에 관한 정보제공과 자조모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등 컨설팅 역할을 수행함.
- 영국 네더필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금요일 클럽(Friday club), 오스트리아의 고령자 자조모임의 주요내용은 여가활동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독일 50세 전후 여성을 위한 자조모임(Plusminus 50)의 주요 목적은 50세 전후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 해소에 있으며 독일 오버하우젠에서 진행되는 네트워크 55+(Netzwerk 55 plus)는 이른 은퇴를 경험한 55세 이상 고령자의 은퇴로 단절된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친교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영국의 금요일 클럽이나 오스트리아의 고령자 자조모임에 비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생활 사건과 이슈(life events and issues)에 따른 욕구 해결에 초점을 둠.
- 대부분의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EU 자조모임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는 민간 비영리기관인 자원봉사센터, 교회 등에서 운영됨.
- 시민단체, 노동조합의 주요 재원은 회비, 기부금이며 민간 비영리단체의 경우 회비, 기부금 외 지방정부 지원으로 운영됨.
- 대부분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운영되는 자조모임은 협회(Self Help UK, Selbst Hilfe e.V 등)에 소속되어 있음. 중앙 또는 지역별로 자조모임 협회가 설립되어 있어 누구나 관심이 있는 자조모임을 찾아볼 수 있으며 자조모임을 구성하길 원할 경우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영국의 Self Help UK에 소속된 자조모임의 수는 약 250여 개이며, 독일 연방 또는 지역별로 조직된 협회(Selbst Hilfe e. V)는 약 100-150개의 자조모임이 소속되어 있음. 자조모임의 종류는 질환과 관련된 자조모임이 가장 많았으며, 자녀양육, 한부모가족, 이민자를 위한 자조모임 등 다양함.
-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운영되는 고령자를 위한 자조모임의 경우 고령 실직자를 위한 취업 관련 정보공유, 실직 또는 은퇴로 인한 정서적 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또는 여가생활 증진 등에 목적을 두므로 친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반면, 시민단체, 노동조합에서 운영되는 자조모임의 경우 취업 관련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친고령자 환경 조성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 사회 이슈에 관한 교육 및 논의, 나아가 사회행동(social action)을 도모하므로 노동권 옹호를 위한 시민교육 및 사회 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앞서 국외 사례를 통해, EU는 우리나라에 비해 자조모임 대상과 내용이 다양하고, 자조모임의 수가 현저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시민의 높은 자발적 참여 수준과 전문적이고 조직적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짐.
- 영국과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을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으로 도입하여 시민의식 수준을 높이고, 자율적인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음(Keating et al., 2001).
- 독일 각 도시에 설립된 시민대학(Volkhochschule)은 예비노인세대의 재교육 기회를 제공받으므로 그들의 욕구를 자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Empowerment)을 향상하는데 기여함.
- 또한, 연방 또는 도시 중심으로 Self Help UK, Selbst Hilfe e.V 등 자조모임 협회가 설립되어 자조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함. 이는 자조모임의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

4. 자조모임 매뉴얼 발간 사례

1) 자조모임 매뉴얼의 필요성

- 자조모임은 공통의 문제를 상호원조하여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집단 또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잠재적 구성원이 개인의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욕구를 집단의 욕구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자조모임의 구성과 운영이 어렵게 됨.

- 자조모임이 구성되더라도 구성원들이 집단의 과업과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방법이 미숙하고 내·외적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는데 장애가 있다면 자조모임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국내에서 자조모임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복지센터, 병원 등의 현장에서 특이성 질환, 만성질환자, 신체 및 정신장애인, 다문화 가족, 단주집단 등 다양한 자조집단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이 전문가의 주도하에 결성되어 프로그램 수행에 그치고 전문가 개입이 끝나면 종결되는 결과가 초래하여 독립적으로 자조모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높음(박정숙 권상민, 2014).
- 모임운영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데 보다 손쉬울 것이며, 일부 기관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매뉴얼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즉 자조모임의 매뉴얼을 통해 자조모임의 목적과 목표, 운영방법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을 명시하므로 자조모임의 기능을 수행하여 원활하고 활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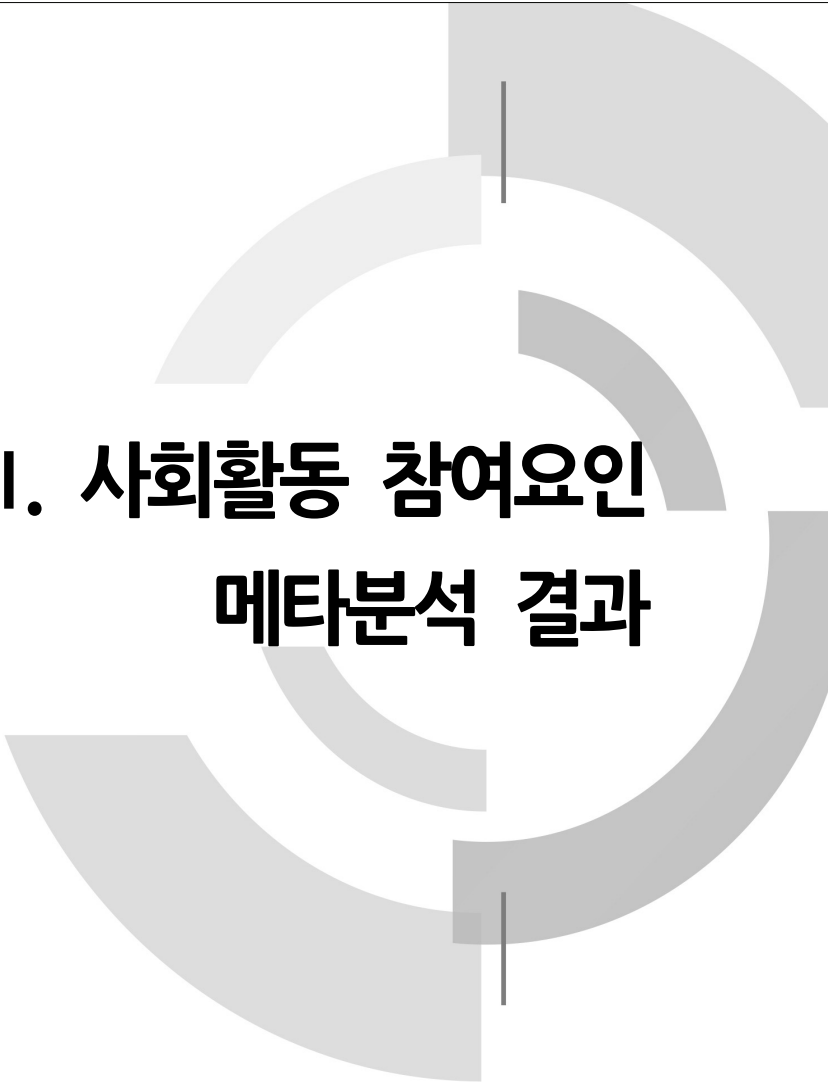
2) 자조모임 매뉴얼의 구성

- 국내 자조모임은 특이성 질환, 만성질환자, 신체 및 정신장애인, 다문화 가족, 단주집단 등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표 II-5>와 같이 대표적으로 장애인, 다문화 가족,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매뉴얼이 개발됨.
-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매뉴얼(최복천 외, 2014)은 자조집단의 이해, 자조집단이 활동 지원, 조력자의 역할 및 자세로 구성됨. 발달장애인의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조력자의 매뉴얼로 개발되어 실제 사례를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고 있으며 조력자의 역할이 필요한 자조모임 초기단계에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사자를 위한 자조모임 매뉴얼이 함께 제시된다면 조력자의 지원으로부터 독립된 자조모임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자살유족 상담 및 자조모임 매뉴얼(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2)은 자살유족을 고통을 능동적으로 다루기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음.
 - 자살유족의 자조모임은 동일한 경험을 한 당사자들이 절망감을 해결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매뉴얼은 프로그램 운영자가 당사자들을 자조모임 참여에 이끌기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자조모임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유용함.

- 지적장애인 자조모임 회의활동 지원 매뉴얼(안용석 외, 2014)은 조력자가 당사자의 회의 운영을 위한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사자가 회의 운영 기술을 익히고, 역량을 향상하는데 유용함.
- 여성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남편 자조모임 형성 프로그램 매뉴얼(정해숙 외, 2010)는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역량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 매뉴얼의 대상자는 자조모임 기관담당자이며 자조모임 형성 교육 이후 자조모임 활동을 위한 운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역량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형성에 유용함.
-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워크북(태화샘솟는집, 2017)은 당사자의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당사자들이 자조모임을 구조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원활히 운영하는 데 유용함.
-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매뉴얼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은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전문가(조력자, 자조모임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로 자조모임 지침과 전문가의 역할과 태도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욕구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량을 함양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조모임 운영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문에서 제시한 매뉴얼 중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워크북(태화샘솟는집, 2017)만이 당사자를 위한 자조모임 매뉴얼로 당사자들이 모임 구성, 장소 선정, 회의 운영방법, 임원 선출, 운영 규칙 등 자조 모임을 구조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제 당사자들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자조모임 형성을 위해 기관 및 전문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조모임 운영되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위한 매뉴얼이 함께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1-5〉 자조모임 매뉴얼 현황

자조모임 매뉴얼	대상	매뉴얼 구성	유용성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매뉴얼 (최복천 외, 2014)	조력자	▪ 자조집단의 이해: 자조집단의 개념, 자조집단의 기능, 자조집단의 유형 ▪ 자조집단의 구성지원: 자조집단 참여자 구성, 모임의 내용과 목표 정하기, 시간과 장소 정하기, 구성원의 역할 정하기, 모임 알리기, 규칙 정하기 ▪ 자조집단의 활동 지원: 의사결정지원하기, 의사결정의 문제해결 지원하기, 역할 정하기와 독려하기, 회의운영 지원하기, 회비관리 지원하기 ▪ 조력자의 역할: 구성원의 임파워먼트하기, 정보제공하기, 의사소통 지원하기, 자기결정능력 배양하기, 자조집단 유지 지원하기 ▪ 조력자의 자세: 이해하기, 인내와 기다림, 경청하기, 평등한 관계맺기, 실수할 권리를 보장하기, 자기노출	조력자의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초기 형성 단계에서 유용
자살유족 상담 및 자조모임 매뉴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2)	자살유족 상담 운영자	▪ 자살유족 모임의 이해 ▪ 자살유족 모임을 이끄는 기술 ▪ 바람직한 행동 ▪ 주의해야 할 문제행동	자살 유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끝난 후 유족들이 자조모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유용
지적장애인 자조모임 회의활동 지원 매뉴얼 (안용석 외, 2014)	조력자	▪ 당사자 회의 운영 지원: 학습과제 학습목표, 학습지원 방법, 학습지원 세부내용, 학습지원 계획안 ▪ 자조모임 지원자(조력자) 활동지침	당사자의 회의 운영을 위한 학습에 맞춰져 있어 당사자의 자조모임 운영 역량 향상에 유용
여성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남편 자조모임 운영 프로그램 매뉴얼 (정해숙 외, 2010)	자조모임 기관 담당자	▪ 프로그램의 목적 ▪ 자조모임 구성원의 자격요건 ▪ 자조모임 운영 프로그램 개요	자조모임 형성 교육을 통해 자조모임이 형성된 이후 운영 지원에 유용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워크북 (태화샘솟는집, 2017)	당사자	▪ 자조모임의 정의 ▪ 모임의 구성 ▪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 ▪ 모임의 내용	당사자가 자력으로 자조모임을 구조화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유용



Ⅲ. 사회활동 참여요인 메타분석 결과

1. 분석 방법
2. 자조모임 참여 분석 결과
3.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석 결과
4. 경제활동 참여 분석 결과
5. 출간오류 분석

Ⅲ. 사회활동 참여요인 메타분석 결과

1. 분석 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선정

- 본 장에서는 자조모임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활동의 참여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실시함.
- 분석대상은 사회활동(자조모임, 자원봉사활동,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의사여부 또는 참여와 관련된 개별연구임.
- 자료의 수집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음.
 - 2020년 5월 2주간 보조원 및 연구자 2인이 학술데이터베이스 2곳을 활용하여 출판유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 수집에 활용한 학술데이터베이스는 2곳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이하 RISS) 및 한국학술정보(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이하 KISS)임.
 - 검색에 활용한 용어는 각 과정에 해당하는 ‘자조모임참여’, ‘자조모임’, ‘자원봉사참여’, ‘자원봉사’, ‘일자리참여’, ‘근로참여’였음.
 - 추가적 검색전략으로, 발견한 문헌의 참고문헌을 통해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경우 목록에 포함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목록을 작성함.
- 최종적으로 취합된 자료는 포함조건과 제외조건을 고려하여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동의 참여요인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연구를 선별하였음.

○ 포함조건과 제외조건은 다음과 같음.

-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연구는 제외하되, 전 연령이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비교집단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본 분석에 포함하였음.
- 국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제외하였음. 일반인 자료가 없는 자조모임 참여여부를 제외하고 장애인, 치매 및 중증 질환을 가진 대상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분석에서 제외함.
-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사회활동 참여가 단일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참여를 동시에 결과변수로 활용한 논문임. 또한 적극적 참여정도를 측정한 참여도는 참여여부와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하지 않음.
- 비교집단은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는 집단으로 활동의 참여의사가 다중으로 연구된 경우에는 비참여집단을 비교집단 값으로 활용하였음.
- 예를 들어 ①현재 참여하고 과거에도 참여한 집단, ②현재 참여하지 않으나 과거에 참여한 집단, ③현재도 참여하지 않고 과거에도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세 집단 비교에서 ①집단과 ③집단의 값만을 분석에 활용하고, ②집단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음.
- 학위논문이 학술논문으로 출판된 경우 정보의 보유량이 더 많은 학위논문을 본 분석에 포함하였음.
- 포함된 연구의 설계는 설문조사 연구를 기본으로 하되, 단순 실태만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통계치를 보고하지 않는 연구 또한 제외하였음.

2) 데이터코딩 및 효과크기 산출

- PRISMA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는 일반적 특성 및 효과크기의 값 등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하여 코딩 시트(coding sheet)와 코딩 매뉴얼(coding manual)을 작성함.
- 데이터의 코딩은 연구자 1인이 코딩 매뉴얼에 따라 코딩 시트에 작성한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 1인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코딩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경우 두 연구자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일치할 수 있도록 함.
- 코딩과정에서 1개만 존재하는 변인은 데이터에서 제외하고, 최소 2개 이상의 동일한 변인에서 통계치가 보고된 경우에만 포함함.

- 데이터는 동일한 범주로 측정되거나 연속형 변수로 취급하였을 경우 포함함.
 - 예를 들어 종교의 유무가 아닌 ‘기독교/기타’, ‘불교/기타’의 이분형으로 투입된 경우 종교유무와 동일한 변인으로 볼 수 없음. 그러나 ‘기독교/무교’, ‘불교/무교’의 경우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측정하고 있으므로 종교유무에 포함하였음.
 - ‘초졸/중졸/고졸/대졸이상’을 ‘교육수준이 매우 낮음/낮음/높음/매우 높음’과 같은 연속형 변수로 취급한 경우에는 교육수준으로 취급하여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음.
 -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비교집단을 표시하지 않거나 본문 내 설명이 없어 비교집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석에 포함하지 않음.
- 각 논문에서 발견한 통계치는 비표준화계수(B), 승산비(Odds Ratio), 로그승산비(logOdds Ratio), 상관계수(r), 차이값(t), 평균(m)과 표준편차(s), 각 집단의 표본 수(n)였음.
- 문헌에서 발견한 효과크기가 같다면 그 값을 그대로 활용하고, 각기 다른 효과 크기는 통합을 위하여 단일의 통계치로 산출하고자 모든 통계치는 Excel 프로그램과 R프로그램의 ‘compute.es’ 패키지를 활용하여 logOdds Ratio로 변환하여 계산하였음.
- 개별연구에서 추출한 효과 크기는 평균 효과 크기로 종합되는데, 효과 크기의 이질성을 가정하고 연구 간 분산을 인정하므로 무선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균 효과 크기를 산출함(양지훈·황성동, 2020). 산출된 값은 승산비(Odds Ratio, OR)임.
- 또한 메타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가 연구 주제에 대한 전체 연구결과를 대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간오류를 검토함. 오류가 있다면 오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확인하였음.
- 분석은 R프로그램의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평균효과크기의 산출은 R프로그램의 ‘meta’ 패키지, 산출된 평균 효과크기의 수준(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검증에는 ‘pwr’ 패키지, 출간오류 분석에는 ‘metasens’ 패키지를 활용하였음.
- 효과크기의 보고는 표와 함께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forest plot을 제시함.

2. 자조모임 참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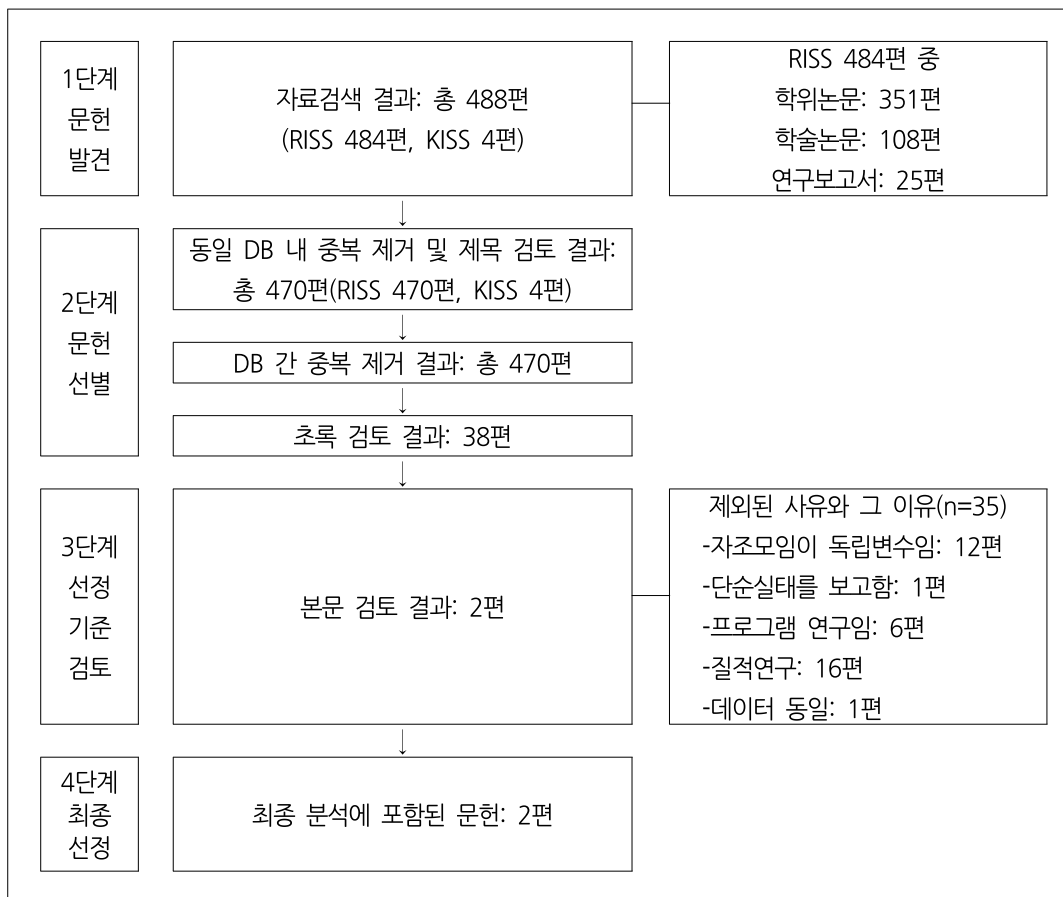
1) 자료수집 및 선정 결과

- RISS 및 KISS에서 ‘자조모임’ 및 ‘자조모임참여’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포함될 문헌을

최종 선정한 과정은 다음의 [그림 Ⅲ-1]과 같음.

- 단계인 문헌발견단계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키워드를 통해 문헌을 발견하는 단계로, 각각 484편(RISS), 4편(KISS)의 문헌을 발견하였음.
- 2단계인 문헌선별단계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자명과 문헌 제목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였고, 이후 데이터베이스 내 중복을 제거한 474편의 문헌을 재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된 문헌 4편을 제거하였음.
- 470편의 연구 중 초록을 통해 연구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하였음.
- 3단계 선정기준검토에서는 초록 검토 결과 나타난 38편의 문헌의 본문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였음.

[그림 Ⅲ-1] flowchart: 자조모임



- 선정기준검토 단계에서 제외된 연구는 총 35편으로, 제외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자조모임이 결과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사용된 문헌 12편
 - 단순실태를 보고한 문헌 1편
 - 자조모임이 아닌 프로그램 연구인 문헌 6편
 - 질적연구로 수행된 문헌 16편
 - 연구대상, 변수측정, 결과 값 같은 문헌 1편
-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문헌은 35편을 제외한 2편에 불과하였으며, 포함된 문헌과 최종단계에서 제외된 문헌의 목록은 <표 Ⅲ-1>과 같음.
-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장애 및 질환을 가진 대상으로 연구된 석사학위논문으로, 자원봉사활동 및 경제활동 분석 시 제외된 집단이지만 자조모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연구가 없어 최소한의 결과를 참조하기 위해 분석에 포함하였음.
 - 메타분석은 2편 이상이면 분석이 가능한 연구방법임(Borenstein et al., 2011).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모임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표 Ⅲ-1> 최종단계에서 포함 및 제외된 연구 목록: 자조모임

분석에 포함된 문헌(n=2)	분석에서 제외된 문헌(n=35)			
곽인, 2009	강국진, 2015	김창훈, 2012	서태실 외, 2017	이혜진, 2020
황보창국, 2004	권해란, 2017	김현례, 2006	서태실, 2017	정지희, 2018
-	김가득, 2018	김현주, 2014	성지현, 2006	정혜숙, 2010
-	김미숙, 2002	김현진, 2007	안미란, 2011	조정배, 2008
-	김선미 외, 2017	김혜신, 2003	양혜원 외, 2018	최선경, 2016
-	김소영 외, 2013	딩징야 외, 2017	윤영혜, 2015	최한숙, 2001
-	김영향 외, 2019	박예원, 2018	이경준, 2006	한미영, 2003
-	김예리 외, 2010	박혜선 외, 2016	이정애 외, 2016	허성구, 2009
-	김진숙, 2005	박후남, 2020	이정애 외, 2015	황현민,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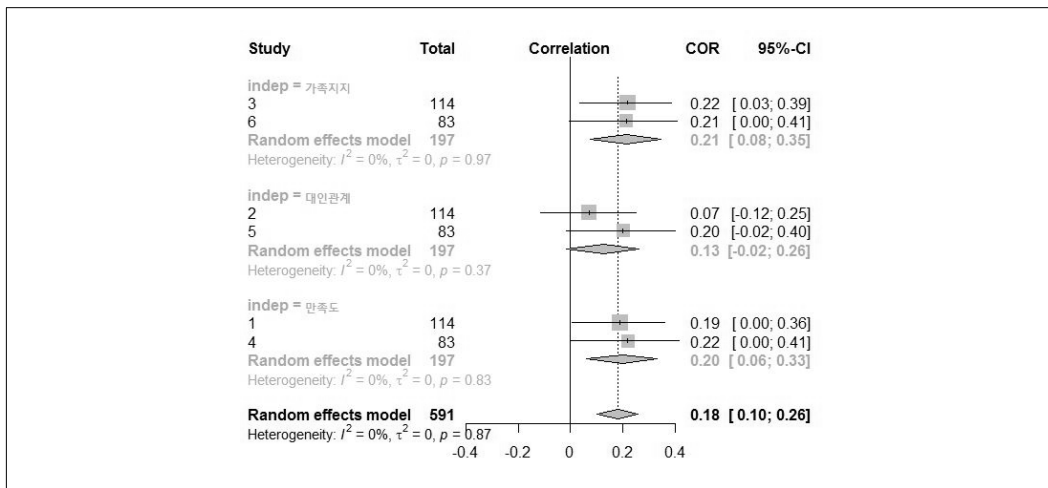
2) 분석결과

- 선정기준에 적합한 연구는 총 2편(곽인, 2009; 황보창국, 2004)으로, 두 편 모두 석사학위논문이었으며, 자조모임활동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음.
-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인은 만족도, 대인관계, 가족지지였음.
- 곽인(2009)의 연구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황보창국(2004)의 연구는 신장이식환자들을 대상으로 함.
 - 자원봉사활동과 근로활동에서 개입이 필요한 질병을 보유한 경우 포함조건에서 제외한 것과 달리, 자조모임은 활동의 특성 상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으므로 질병을 보유하였더라도 분석에 포함하였음.
- 평균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지속에 대한 세 요인의 평균 효과 크기는 <표 Ⅲ-2>와 같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2]와 같음.
- 세 요인의 평균 효과 크기는 가족지지 $Z_r=0.215$ (95% CI: 0.076~0.345), 프로그램 만족도 $Z_r=0.201$ (95% CI: 0.062~0.332), 대인관계 $Z_r=0.125$ (95% CI: -0.016~0.261)의 순으로 나타남.
- 즉 가족이 지지적이거나 자조모임 구성에 만족할수록 자조모임 참여 기간이 길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대인관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석결과를 예비노인세대의 자조모임 참여 요인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이후 분석된 다른 활동과 비교하여 볼 때 참여만족을 높이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본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2편에 불과하여 출간오류검증은 수행하지 않았음.

<표 Ⅲ-2> 평균 효과 크기: 자조모임

유형	데이터 수	Zr	95% CI	
			LL	UL
가족지지	2	0.215	0.076	0.345
대인관계	2	0.125	-0.016	0.261
참여 만족도	2	0.201	0.062	0.332

[그림 Ⅲ-2] forest plot: 자조모임



3.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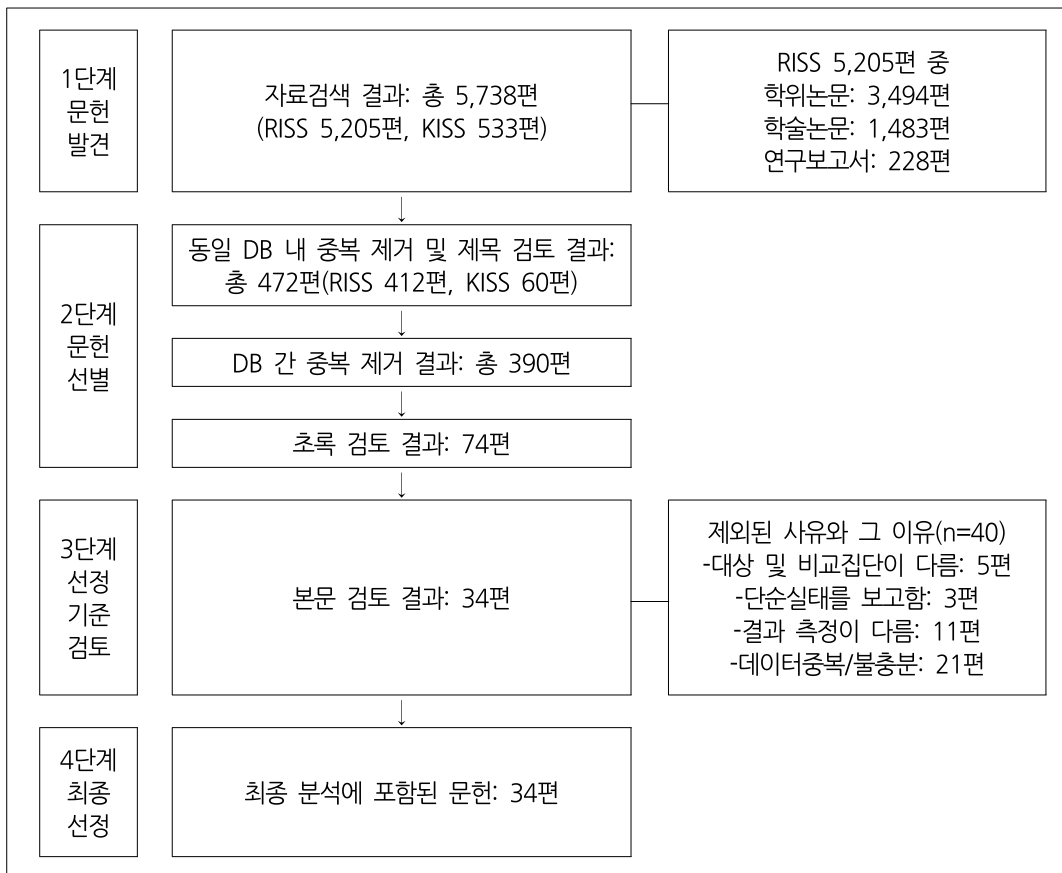
1) 자료수집 및 선정 결과

- RISS 및 KISS에서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참여’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포함될 문헌을 최종 선정한 과정은 다음의 [그림 Ⅲ-3]과 같음.
- 1단계인 문헌발견단계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키워드를 통해 문헌을 발견하는 단계로, 각각 5,205편(RISS), 533편(KISS)의 문헌을 발견하였음.
- 1단계에서 발견한 연구 목록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된 메타분석 연구(백운옥, 2019; 이은석, 2020)가 발견되어, 결과변수에서 참여여부와 참여의사여부만을 포함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만족도는 제외하였음.
 -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는 본 메타분석 결과의 마지막에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 다만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은석, 2020)는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과는 차이가 있음.
 - 이에 지속성과 만족도는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는 데 의의를 가지며, 참여여부 및 참여의사여부에 관한 연구결과를 주로 논의하고자 함.
- 2단계인 문헌선별단계에서는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자명과 문헌 제목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였음.

- 데이터베이스 내 중복을 제거한 472편의 문헌을 재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된 문헌을 제거하였음.
- 390편의 연구 중 초록 검토를 통해 연구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하였음.
- 3단계 선정기준검토에서는 초록 검토 결과 나타난 74편의 문헌의 본문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였음.
-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연구는 총 40편으로, 제외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이 청소년만을 포함하였거나 비교집단이 ‘미참여/참여의사없음’이 아닌 문헌 5편
 - 단순실태를 보고한 문헌 3편

[그림 III-3] flowchart: 자원봉사



- 결과가 참여의지나 지속성 등 ‘참여여부/참여의사여부’가 아닌 문헌 11편
 - 데이터가 중복되어 동일한 영향변수와 결과변수를 가지며, 이에 대한 logOdds 값이 같거나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연구 21편
- 데이터가 불충분한 문헌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의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를 제외한 메타분석 결과만을 포함하였음.
-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문헌은 40편을 제외한 34편이며, 포함된 문헌과 최종단계에서 제외된 문헌의 목록은 <표 Ⅲ-3>과 같음.

<표 Ⅲ-3> 최종단계에서 포함 및 제외된 연구 목록: 자원봉사

분석에 포함된 문헌(n=34)		분석에서 제외된 문헌(n=40)		
강희주, 2000	안재경, 2008	강유진, 2006	류방, 2010	이현기1, 2013
고원혁, 2016	이경수, 1999	강철희, 2003	문주신, 2017	이현기2, 2013
고은숙, 2013	이문국, 2011	강철희 외, 2012	민복기, 2006	이현기, 2015
김명숙&고종욱, 2014	이성록, 2001	강철희 외, 2015	박세혁, 2010	이효영 외, 2009
김미혜 외, 2014	이소정, 2009	권병욱, 2008	배기효 외, 2014	조선주, 2011
김여진, 2013	이정배, 2001	권영신, 2004	서재용, 2018	최유진, 2000
김영옥, 2009	이행석, 2012	김봉근 외, 2013	송미영, 2015	-
김욱진, 2017	임동진&채성준, 2014	김영애, 2004	신홍경 외, 2018	-
김종인, 2012	임수영, 2008	김은정, 2001	심미영, 2004	-
김철수, 1997	임애란, 2004	김하영, 2015	양지훈 외, 2019	-
김혜경, 1998	장정숙, 2002	김정애 외, 2017	오병철 외, 2016	-
도신록, 2003	정희정, 2000	김지혜 외, 2011	이경혜 외, 2013	-
박선영, 2001	조운하, 2002	김철수, 1996	이금룡, 2003	-
박옥진, 2008	최미혜, 2002	김태룡 외, 2009	이란희, 2015	-
서한식, 2002	최수화, 2005	김태홍 외, 2007	이용관, 2015	-
송정안, 2016	한은미, 2012	김현진 외, 2011	이현기1, 2012	-
신인숙, 2014	홍명환, 2002	김현진 외, 2012	이현기2, 2012	-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분석에 포함된 34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Ⅲ-4>와 같음.
- 출판유형으로 구분하면, 학술논문은 11편(32.4%), 학위논문은 23편(67.6%)이었음.
- 연령은 크게 노인(65+), 중고령(55+), 베이비부머(55-64), 일반(전연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노인이 15편(44.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 12편(35.3%), 중고령 4편(11.8%), 베이비부머 3편(8.8%)의 순이었음.
- 개별연구의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1차자료)가 22편(64.7%)이었으며, 기존에 수집된 자료의 원시자료(2차자료)를 활용한 연구 12편(35.3%)이었음.
- 출판연도는 1997년에서 2020년 사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면 2000년 이하 5편(14.7%), 2001년에서 2010년 15편(44.1%), 2011년 이상 14편(41.2%)로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의사여부에 관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4> 분석에 포함된 개별연구의 특성

구분		n	%
출판유형	학술	11	32.4
	학위	23	67.6
조사대상의 연령	노인	15	44.1
	중고령	4	11.8
	베이비부머	3	8.8
	일반	12	35.3
자료유형	직접수집(1차)	22	64.7
	원시자료(2차)	12	35.3
출판연도	2000년 이하	5	14.7
	2001년-2010년	15	44.1
	2011년 이상	14	41.2
계		34	100.0

- <표 Ⅲ-5>와 같이, 34편의 개별연구에서 발견한 데이터는 총 252개임. 이 중 표준오차가 0으로 평균 효과 크기를 산출할 수 없는 데이터는 제외하였음.

○ 그 결과 결과변수는 246개로, 참여경험여부가 192개(78.0%)로, 참여의사여부 54개(22.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영향변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가족 관련(26개): 가족관계만족도, 가족주의가치관, 배우자관계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동거 유무, 자녀 유무
- 건강 관련(26개): 삶의 만족도, 신체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 경제수준 관련(42개): 가구소득, 근로 유무, 자가 유무, 주관적 경제수준
- 봉사 및 기부 관련(25개): 봉사참여경험, 사회적 책임감, 성장욕구, 이타적 동기, 자원봉사필요성, 자원봉사활동인식
- 사회관계망 관련(56개): 단체참여 수, 단체참여 여부, 단체참여 정도, 대인관계만족도, 대인관계 수, 사회관계망실패, 연락빈도, 종교유무, 종교활동적극성
- 성별 관련(32개): 성별, 성역할의식, 여성의 사회참여의식
- 여가관련(7개): 시간제약, 여가만족도, 여가시간
- 그 외: 거주지역(3개), 교육수준(12개), 연령(17개)

〈표 III-5〉 데이터의 구성

구분		n	%
결과변수	참여경험여부	192	78.0
	참여의사여부	54	22.0
영향변수	가족 관련	26	10.6
	거주지역	3	1.2
	건강 관련	26	10.6
	경제수준 관련	42	17.1
	교육수준 관련	12	4.9
	봉사 및 기부 관련	25	10.2
	사회관계망 관련	56	22.8
	성별 관련	32	13.0
	여가 관련	7	2.8
	연령	17	6.9
계		24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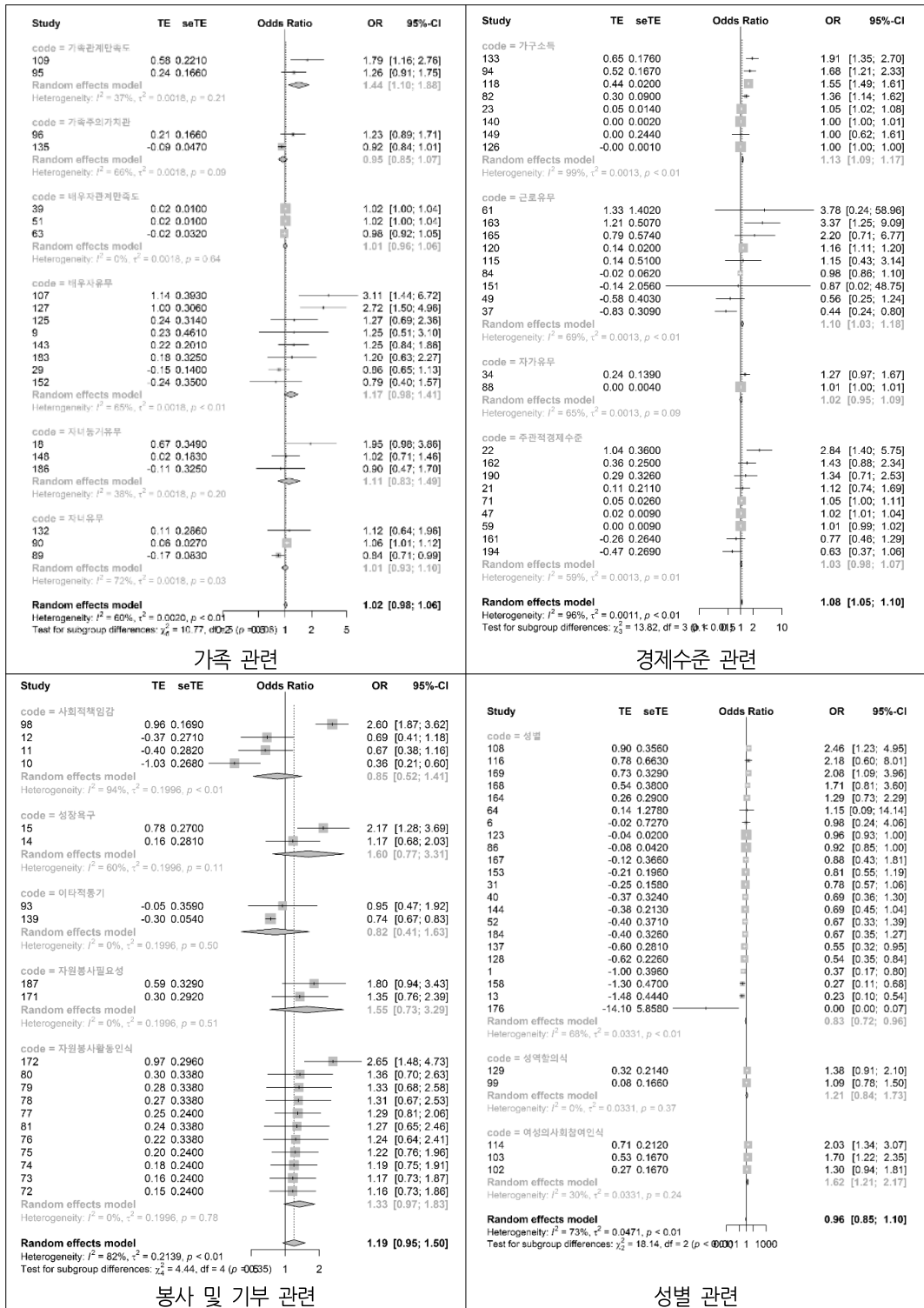
3) 자원봉사 참여경험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는 <표 III-6>과 같으며, [그림 III-4]는 이를 시각화한 결과임.
- 범주화된 영향변수별로 평균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각 범주별 1개 이상의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가족 관련 요인 중 가족관계만족도는 $OR=1.437(95\% \text{ CI: } 1.100\sim1.877)$ 로 유의미하였으며, 가족주의가치관, 배우자관계만족도,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유무, 자녀유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에 가족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
- 건강 관련 요인 중 삶의 만족도가 $OR=2.350(95\% \text{ CI: } 1.315\sim4.201)$ 로 유의미하였으며, 신체건강과 주관적 건강상태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 이는 신체적 만족보다 심리적 만족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 경제수준 관련 요인 중에서는 가구소득이 $OR=1.128(95\% \text{ CI: } 1.089\sim1.170)$, 근로유무가 $OR=1.100(95\% \text{ CI: } 1.067\sim1.178)$ 로 유의미하였으며, 자가유무와 주관적 경제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 이는 소득이 있을 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 봉사 및 기부 관련 요인 중 기부경험이 $OR=2.875(95\% \text{ CI: } 1.211\sim6.831)$ 로 유의미하였으며, 사회적 책임감, 성장욕구, 이타적 동기, 자원봉사필요성, 자원봉사활동의식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 사회적 책임감, 이타적 동기나 자원봉사활동 필요성과 의식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자원봉사활동은 소위 ‘사회에 좋은 일’로 인식되기보다 개인의 욕구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사회관계망 관련 요인 중에서는 단체참여여부가 $OR=2.714(95\% \text{ CI: } 1.700\sim4.335)$, 단체참여정도가 $OR=4.578(95\% \text{ CI: } 2.252\sim9.308)$, 대인관계만족도가 $OR=2.357(95\% \text{ CI: } 1.071\sim5.190)$, 종교유무가 $OR=1.932(95\% \text{ CI: } 1.347\sim2.772)$, 종교활동의 적극성이 $OR=2.204(95\% \text{ CI: } 1.021\sim4.755)$ 로 유의미하였고, 단체참여 수, 대인관계 수, 사회관계망 신뢰, 자녀연락빈도 등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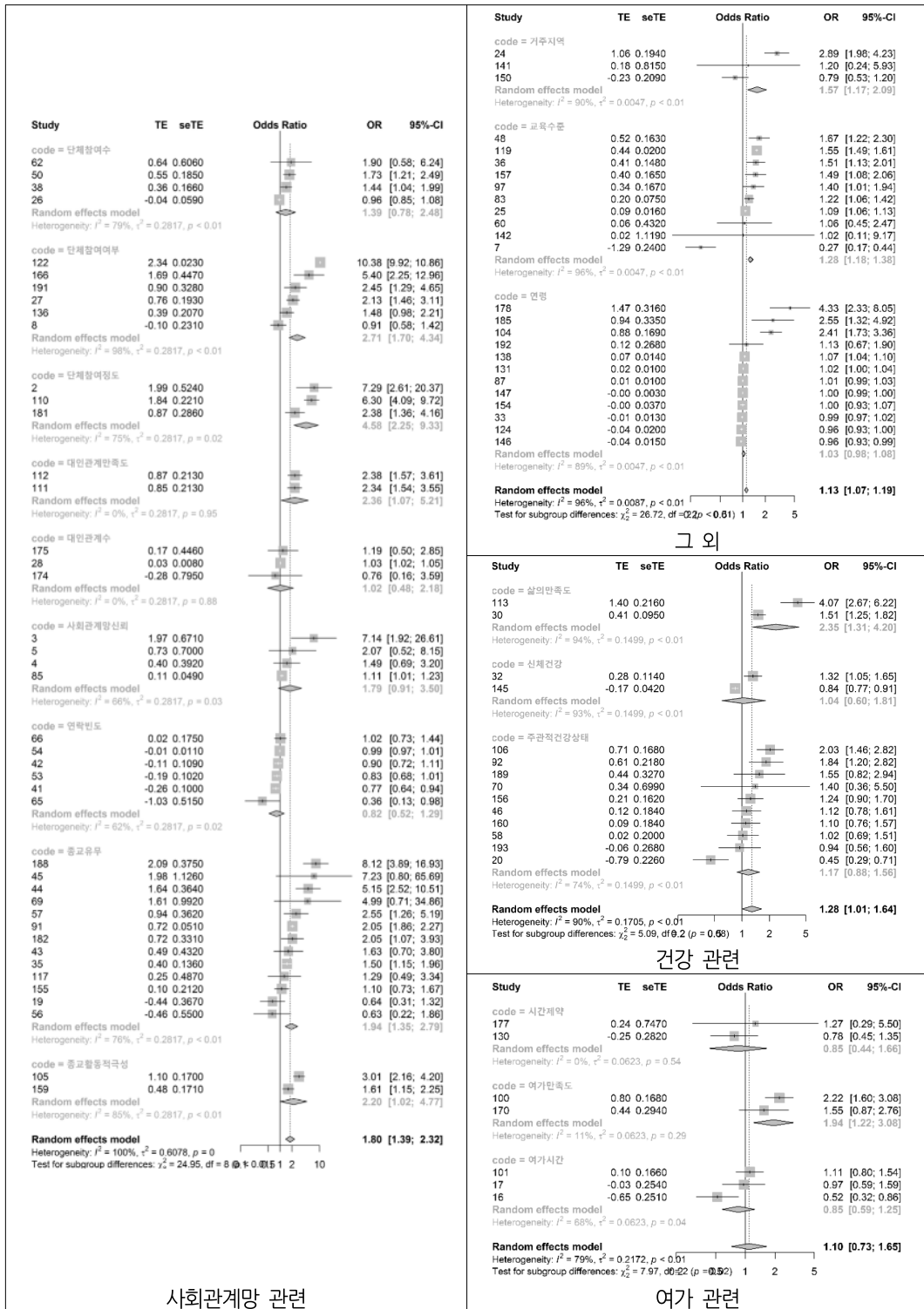
〈표 III-6〉 평균 효과 크기: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여부

유형		데이터 수	OR	95% CI	
				LL	UL
가족 관련 요인	가족관계만족도	2	1.437	1.100	1.877
	가족주의가치관	2	0.976	0.827	1.152
	배우자관계만족도	3	1.006	0.913	1.107
	배우자유무	8	1.198	0.990	1.450
	자녀동거유무	3	1.120	0.826	1.519
	자녀유무	3	0.983	0.861	1.123
건강 관련 요인	삶의 만족도	2	2.350	1.315	4.201
	신체건강	2	1.044	0.603	1.809
	주관적 건강상태	10	1.173	0.883	1.559
경제수준 관련 요인	가구소득	8	1.128	1.089	1.170
	근로유무	9	1.100	1.067	1.178
	자가유무	2	1.019	0.952	1.092
	주관적 경제수준	9	1.028	0.984	1.073
봉사 및 기부 관련 요인	기부경험	2	2.875	1.211	6.831
	사회적 책임감	4	0.855	0.520	1.404
	성장욕구	2	1.601	0.778	3.293
	이타적 동기	2	0.815	0.410	1.620
	자원봉사필요성	2	1.549	0.733	3.272
	자원봉사활동의식	11	1.334	0.977	1.822
사회관계망 관련 요인	단체참여수	4	1.388	0.780	2.472
	단체참여여부	6	2.714	1.700	4.335
	단체참여정도	3	4.578	2.252	9.308
	대인관계만족도	2	2.357	1.071	5.190
	대인관계수	3	1.025	0.483	2.176
	사회관계망신뢰	4	1.783	0.912	3.486
	자녀연락빈도	6	0.819	0.523	1.284
	종교유무	17	1.932	1.347	2.772
	종교활동의 적극성	2	2.204	1.021	4.755
성별 관련 요인	성별	22	0.831	0.722	0.956
	성역할의식	2	1.207	0.840	1.735
	여성의사회참여의식	3	1.623	1.214	2.169
여가 관련 요인	시간제약	2	0.850	0.437	1.655
	여가만족도	2	1.937	1.217	3.084
	여가시간	3	0.854	0.586	1.246
그 외 요인	거주지역	3	1.568	1.173	2.094
	교육수준	10	1.275	1.181	1.378
	연령	12	1.032	0.983	1.082

[그림 III-4] forest plot: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여부



[그림 III-4] forest plot: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여부(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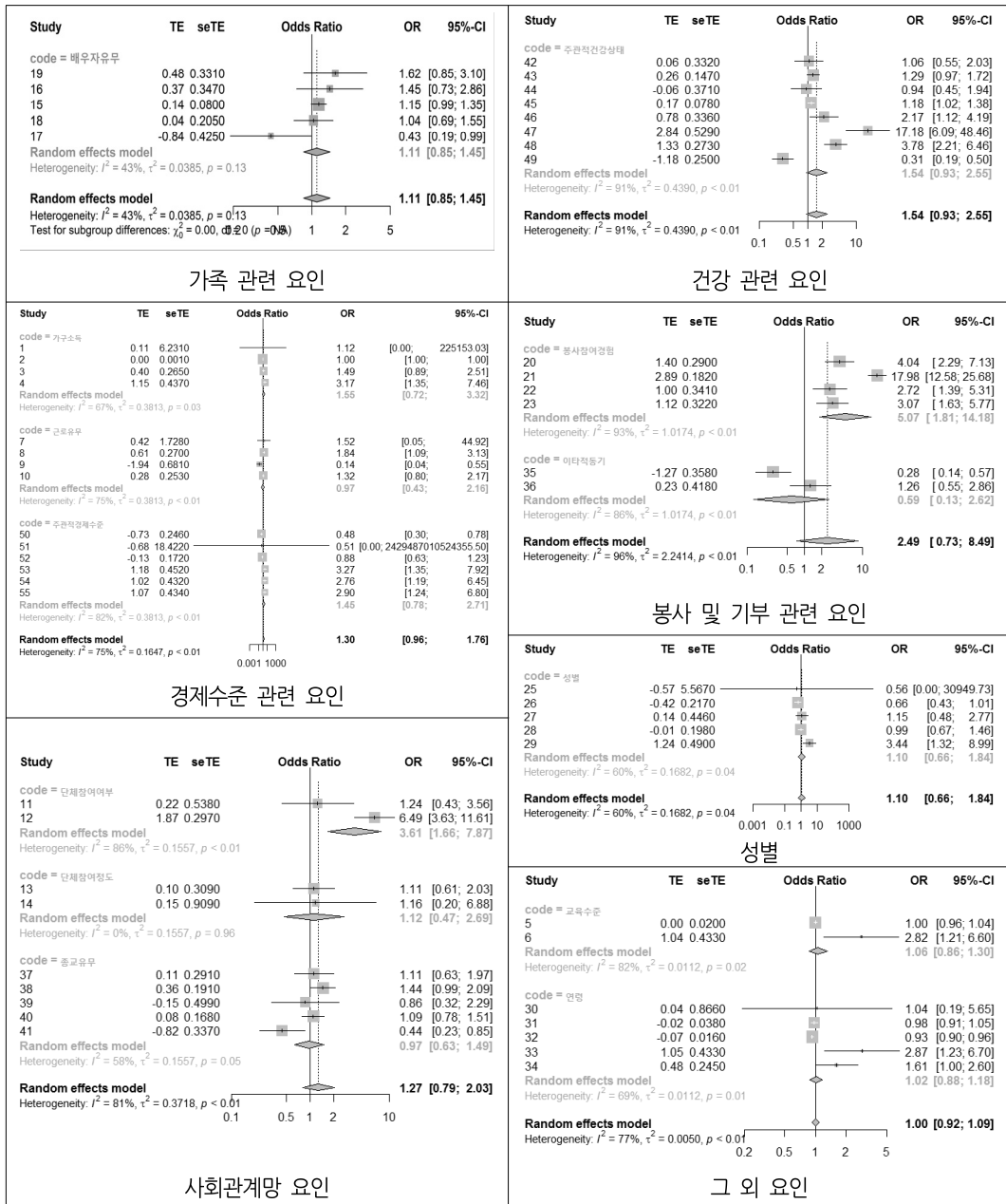


- 이와 같은 결과는 자원봉사활동 또한 사회활동의 일환이며, 많은 단체에 참여하기보다 단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줌.
- 성별 관련 요인 중 성별이 OR=0.831(95% CI: 0.722~0.956), 여성에 대한 사회참여의식이 OR=1.623(95% CI: 1.214~2.169)로 유의미하였고, 성역할의식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사회참여의식이 높을 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여가 관련 요인 중 여가만족도가 OR=1.937(95% CI: 1.217~3.084)로 유의미하였으며, 시간제약과 여가시간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 그 외 요인으로 거주지역이 OR=1.568(95% CI: 1.173~2.094), 교육수준이 OR=1.275(95% CI: 1.181~1.378)로 유의미하였고,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도시지역에 거주할 때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으로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여부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의 분석결과는 <표 Ⅲ-7>과 같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5]와 같음.

〈표 Ⅲ-7〉 평균 효과 크기: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여부

유형		데이터 수	OR	95% CI	
				LL	UL
가족	배우자유무	5	1.109	0.846	1.454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8	1.541	0.931	2.551
경제수준	가구소득	4	1.400	0.882	2.221
	근로유무	4	1.137	0.664	1.946
	주관적경제수준	6	1.272	0.845	1.915
봉사 및 기부	이타적 동기	2	0.587	0.131	2.624
	봉사참여경험	4	5.072	1.814	14.181
사회관계망	단체참여여부	2	3.613	1.660	7.856
	단체참여정도	2	1.119	0.466	2.689
	종교유무	5	0.972	0.634	1.491
성별	성별	5	1.100	0.660	1.836
그 외	교육수준	2	1.061	0.864	1.303
	연령	5	1.020	0.884	1.177

[그림 III-5] forest plot: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여부



- 영향변수의 범주화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와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영향변수별로 평균 효과 크기를 산출함.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주는 봉사 및 기부 관련 요인과 사회관계망 관련 요인이었음.

- 봉사 및 기부 관련 요인 중에서는 봉사참여경험이 $OR=5.072(95\%CI: 1.814\sim14.181)$ 로 유의미하였고, 이타적 동기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 사회관계망 관련 요인 중에서는 단체참여여부가 $OR=3.613(95\% CI: 1.660\sim7.866)$ 로 유의미하였으며, 단체참여정도와 종교유무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 참여여부와 참여의사여부의 영향변수 차이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전후(前後)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공통적으로 봉사참여경험과 단체참여여부는 참여와 참여의사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음.
 - 이는 활동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을 때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성인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사 영향요인에 대해 기(既)발표된 연구결과(백운옥, 2019)를 요약하면 <표 III-8>과 같음.
- 백운옥(2019)은 지속의사 영향요인을 개인요인, 동기요인, 관리요인, 만족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영향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범주별로 구체적인 평균 효과 크기를 보면, 개인요인에서는 참여도가 $Zr=0.244(95\% CI: 0.408\sim0.045)$, 사회적지지가 $Zr=0.282(95\% CI: 0.145\sim0.408)$ 로 유의미하였으며,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소득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 동기요인에 포함된 세 요인은 모두 유의미하였는데, 각각의 평균 효과 크기는 이기적 동기 $Zr=0.355(95\% CI: 0.245\sim0.456)$, 이타적 동기 $Zr=0.409(95\% CI: 0.308\sim0.502)$, 대의적 동기 $Zr=0.383(95\% CI: 0.293\sim0.467)$ 이었으며, 이타적 동기가 가장 높았음.
 - 이는 참여여부의 영향력과는 차이를 보인 결과로, 참여할 때는 이기적 동기로 시작하더라도 지속하는 것은 이타적 동기 및 대의적 동기, 즉 사회적 기여의 측면이 보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 관리요인은 교육훈련을 제외한 세 요인이 모두 유의미하였음.
 - 각각의 평균 효과 크기를 보면, 관리체계 $Zr=0.365(95\% CI: 0.273\sim0.450)$, 업무배치 $Zr=0.450(95\% CI: 0.377\sim0.517)$, 인정보상 $Zr=0.310(95\% CI: 0.206\sim0.408)$ 이었음.
 -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자원봉사단을 관리하는 기관 양측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줌.

○ 만족요인은 동기요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인이 유의미하였음.

- 구체적으로, 대상자 만족 $Zr=0.438(95\% \text{ CI: } 0.329\sim0.535)$, 관리자 만족 $Zr=0.383(95\% \text{ CI: } 0.232\sim0.516)$, 동료 만족 $Zr=0.436(95\% \text{ CI: } 0.291\sim0.562)$, 성취 만족 $Zr=0.555(95\% \text{ CI: } 0.475\sim0.626)$ 이었음.

〈표 III-8〉 평균 효과 크기: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사 영향요인

유형		데이터 수	Zr	95% CI	
				LL	UL
개인요인	성별	19	-0.036	-0.092	0.021
	연령	8	0.060	-0.013	0.132
	학력	3	-0.021	-0.131	0.090
	종교	6	-0.027	-0.085	0.032
	소득수준	6	0.60	-0.062	0.180
	참여도	8	0.244	0.064	0.408
	사회적 지지	9	0.282	0.145	0.408
동기요인	이기적 동기	18	0.355	0.245	0.456
	이타적 동기	14	0.409	0.308	0.502
	대의적 동기	11	0.383	0.293	0.467
관리요인	교육훈련	19	0.178	0.016	0.331
	관리체계	16	0.365	0.273	0.450
	업무배치	20	0.450	0.377	0.517
	인정보상	17	0.310	0.206	0.408
만족요인	대상자 만족	10	0.438	0.329	0.535
	관리자 만족	12	0.383	0.232	0.516
	동료 만족	12	0.436	0.291	0.562
	성취 만족	24	0.555	0.475	0.626

출처: 백운옥(2019)

○ 성인의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해 기(既)발표된 연구결과(이은석, 2020)를 요약하면 〈표 III-9〉와 같음.

○ 이은석(2020)은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사 영향요인을 동기변인, 업무변인, 관계변인, 관리변인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음.

- 동기변인에서 이타적 동기($r=0.422$, 95% CI: 0.925~0.535)가 이기적 동기($r=0.0.362$, 95% CI: 0.216~0.493)보다 높았음.
- 업무변인에서 업무인식도($r=0.466$, 95% CI: 0.049~0.520)가 업무적절성($r=0.418$, 95% CI: 0.365~0.469), 기대합치도($r=0.157$, 95% CI: 0.039~0.271)보다 높았음.
- 관계변인에 포함된 변수의 평균 효과 크기는 비교적 비슷한 값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자관계($r=0.495$, 95% CI: 0.439~0.547), 동료관계($r=0.485$, 95% CI: 0.428~0.538), 담당자관계($r=0.462$, 95% CI: 0.417~0.506)의 순이었음.
- 관리변인은 교육훈련($r=0.382$, 95% CI: 0.247~0.503), 지도감독($r=0.345$, 95% CI: 0.197~0.477), 인정보상($r=0.344$, 95% CI: 0.246~0.436)의 순이었음.

〈표 III-9〉 평균 효과 크기: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영향요인

유형		데이터 수	r	95% CI	
				LL	UL
동기변인	이타적 동기	13	0.422	0.295	0.535
	이기적 동기	10	0.362	0.216	0.493
업무변인	업무인식도	33	0.466	0.409	0.520
	기대합치도	17	0.157	0.039	0.271
	업무적절성	36	0.418	0.365	0.469
관계변인	대상자관계	26	0.495	0.439	0.547
	동료관계	32	0.485	0.428	0.538
	담당자관계	34	0.462	0.417	0.506
관리변인	교육훈련	15	0.382	0.247	0.503
	지도감독	10	0.345	0.197	0.477
	인정보상	25	0.344	0.246	0.436

출처: 이은석(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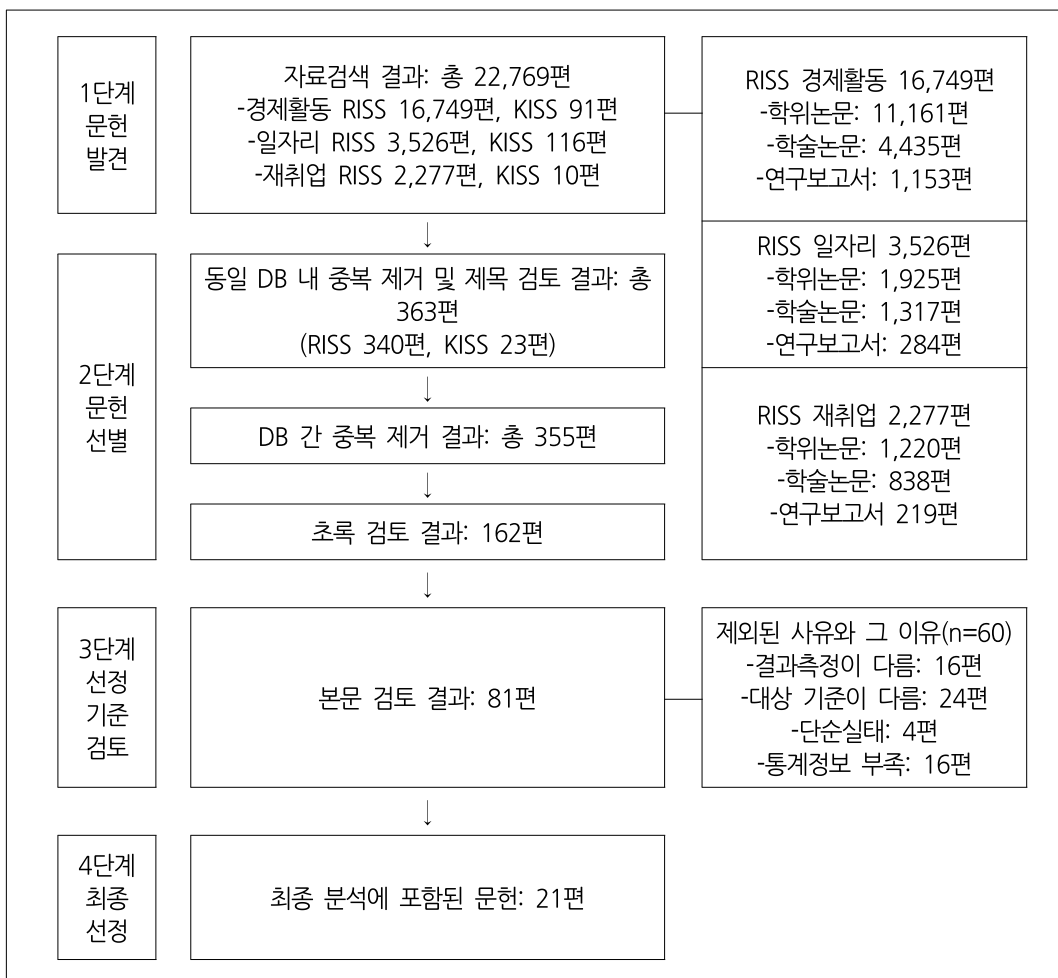
-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 동기요인, 만족요인, 사회적지지 등 심리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참여여부 및 참여의사와 동일한 맥락임.
- 즉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주관적 인식 및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4. 경제활동 참여 분석 결과

1) 자료수집 및 선정 결과

- RISS 및 KISS에서 ‘경제활동’ 및 ‘일자리’, ‘재취업’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포함될 문헌을 최종 선정한 과정은 다음의 [그림 Ⅲ-6]과 같음.
- 1단계인 문헌발견단계에서 발견한 문헌은 RISS에서 22,552편, KISS에서 217편을 발견하였음.

[그림 Ⅲ-6] flowchart: 경제활동 참여



- 2단계부터 4단계에서 활용한 연구에 포함할 문헌의 포함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음.
 - 연구대상은 50세 이상의 중장년을 포함한 연구로 한정하였으며, 청년이나 자녀양육을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하였음.
 - 결과는 현재 일자리 참여 여부와 향후 참여할 의사 여부이며 재취업의 경우 현재 일자리 참여 유무의 결과로 보았으며, 일할의사가 낮음~높음의 정도를 측정하였거나 여러 사회활동을 종합하여 활동정도가 낮음~높음으로 측정된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데이터가 중복되어 사용되어 동일한 영향변수와 결과변수를 가지거나,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데이터 내 중복을 제거한 363편의 문헌을 재정리한 후 데이터베이스 간 중복된 문헌을 제거하였음.
- 그 결과 355편의 연구가 중복되지 않은 연구였으며, 각 연구의 초록을 통해 연구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문헌을 제거하여 162편의 연구를 3단계 선정기준검토에서 살펴보았음.
- 3단계인 본문 검토 결과, 60편의 연구는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60편에 대한 제외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현 취업상태 또는 재취업의사 문헌 24편.
 - 단순실태를 보고한 문헌 4편.
 - 결과가 취업의식, 창업의도 등 ‘참여의사/참여의도, 참여여부’가 아닌 문헌 16편
 - 데이터가 중복되어 동일한 영향변수와 결과변수를 가지며, 이에 대한 Odds 값이 같거나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연구 16편
- 데이터가 불충분한 문헌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의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체계적 문헌고찰의 결과를 제외한 메타분석 결과만을 포함하였음.
-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문헌은 60편을 제외한 21편이며, 포함된 문헌과 최종단계에서 제외된 문헌의 목록은 <표 Ⅲ-10>과 같음.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분석에 포함된 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Ⅲ-11>과 같음.
- 출판유형으로 구분하면, 학술논문은 6편(28.6%), 학위논문은 15편(71.4%)이었음.
- 연령은 크게 노인(65+), 중고령(55+), 베이비부머(55-64)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노인이 11편(52.4%)로 가장 많았고 중고령과 베이비부머가 각각 5편(23.8%)이었음.
- 베이비부머 및 중고령은 재취업에 외에 없었는데,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집단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음.

<표 Ⅲ-10> 최종단계에서 포함 및 제외된 연구 목록: 경제활동

분석에 포함된 문헌(n=20)	분석에서 제외된 문헌(n=60)		
김미영(2019)	강순희(2016)	배영호(2001)	윤형호&김성준(2007)
김수영 외(2015)	김경란(2018)	박양숙(2012)	이은경(2014)
김은묵(2010)	강신임(2007)	박해자(2006)	이정훈&박진배(2018)
김종인(2012)	강월영(2006)	박효영(2007)	이한석&이영균(2019)
김종향(2011)	강은나 외(2012)	배근수(2019)	이홍래(2017)
나진구(2019)	강철희 외(2015)	서귀분(2008)	이효진(2014)
노현오(2015)	곽영순(2011)	서미경&최미진(2011)	우경숙(2004)
백선희(2011)	권현정 외(2018)	서상기(2016)	정명경(2011)
서경석&이윤정(2012)	김경연(2019)	서한식(2002)	조애저(2002)
엄미아(2012)	김대광(2015)	서효석(2007)	정영숙(2009)
이교창(2019)	김민정(2015)	손세종(2008)	진재문(2020)
이미순(2005)	김보민(2019)	손영희(2017)	진화영(2018)
이민경(2004)	김영범(2008)	손정현(2011)	함미자(2006)
이웅호 외(2015)	김재호 외(2016)	최희정&정규원(2016)	허준수(2014)
임지영(2010)	김종주(1999)	안성규(2007)	홍승희(2018)
자오자(2019)	김주영(2010)	양안나(2002)	황영희(2012)
정영자(2011)	김학주&우경숙(2004)	양해진(2016)	황성우(2015)
조순점(2010)	김현경(2019)	오병철(2012)	황영희(2013)
조인수(2011)	김희창(2008)	이웅호 외(2015)	-
최재원(2013)	박기인(2014)	이길원(2011)	-
황희숙&김윤재(2012)	박순미(2011)	이상록(2000)	-

- 노인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는 재취업의 의미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로, 사회활동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음.
- 개별연구의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1차자료)가 11편(52.4%)이었으며, 기존에 수집된 자료의 원시자료(2차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10편(47.6%)이었음.
- 출판연도는 2004년에서 2019년 사이로 발견되었으며, 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면, 2010년 이하 4편(9.0%), 2011년 이상 17편(81.0%)으로 노인의 일자리 참여와 의사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표 III-11〉 분석에 포함된 개별연구의 특성: 경제활동

구분		n	%
출판유형	학술	6	28.6
	학위	15	71.4
조사대상의 연령	노인	11	52.4
	중고령	5	23.8
	베이비부머	5	23.8
자료유형	직접수집(1차)	11	52.4%
	원시자료(2차)	10	47.6%
출판연도	2010년 이하	4	19.0
	2011년 이상	17	81.0
계		21	100.0

- 〈표 III-12〉와 같이, 21편의 개별연구에서 발견한 데이터는 총 120개임. 이 중 표준오차가 0으로 평균 효과 크기를 산출할 수 없는 데이터는 제외하였음.
- 결과변수는 개로, 일자리 참여여부 71개(59.2%)로, 일자리 참여의사 49개(40.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영향변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가족 요인(21개): 가구 내 지위, 가족부양여부, 배우자 유무, 부양가족 수, 자녀관계 만족도
 - 건강 관련(15개):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 경제수준 관련(19개): 경제활동 여부, 소득, 경제적 만족도, 주관적 생활수준
- 심리사회적 요인(10개): 단체참여여부, 자원봉사여부, 직업훈련유무
- 인구학적 특성(55개):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문해력

〈표 III-12〉 데이터의 구성: 경제활동

구분		n	%
결과변수	경제활동 참여여부	71	59.2
	경제활동 참여의사	49	40.8
영향변수	가족요인	21	17.5
	건강관련요인	15	12.5
	경제수준	19	15.8
	사회적 요인	10	8.3
	인구학적 특성	55	45.8
계		120	100.0

3)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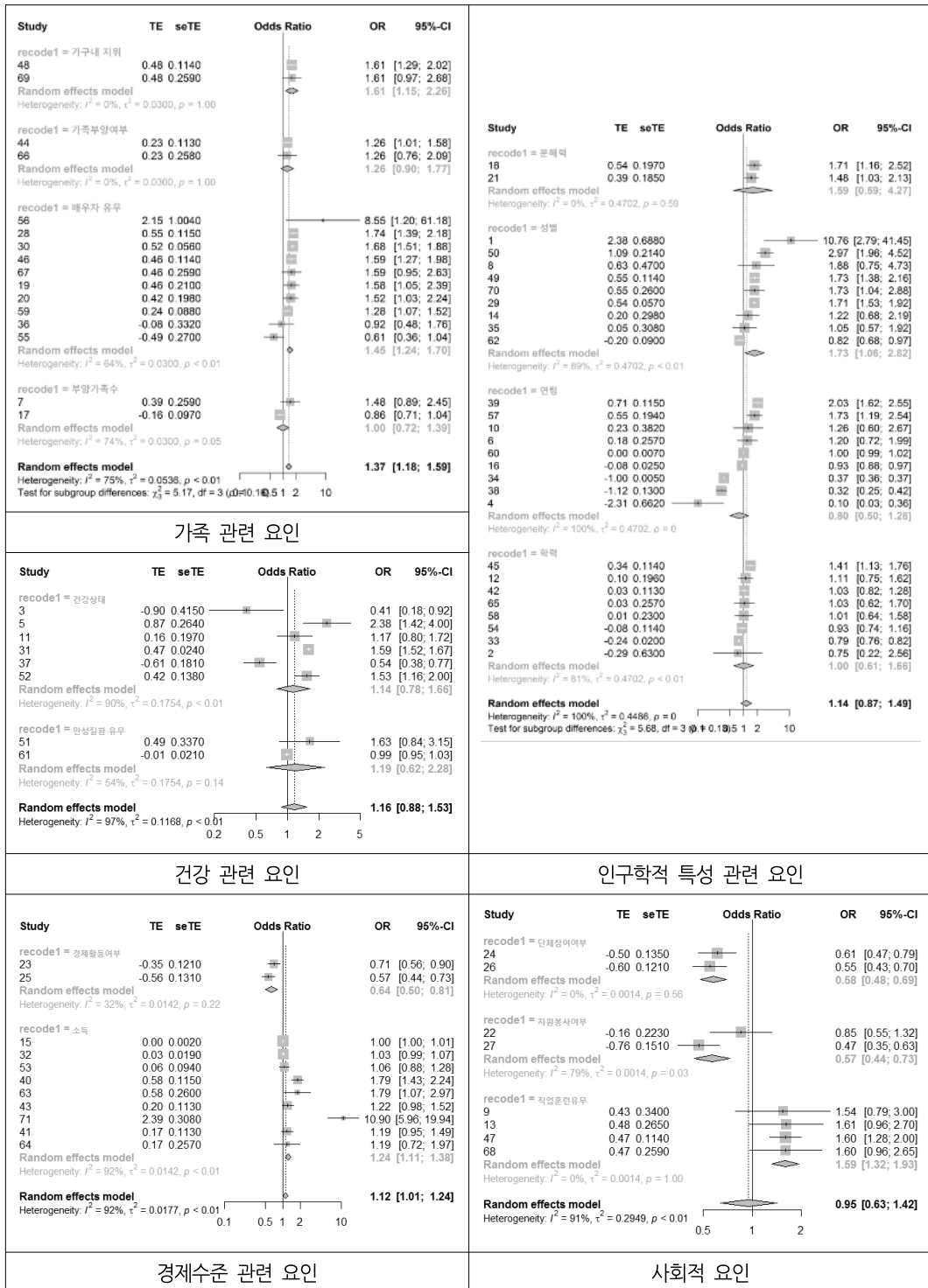
-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는 〈표 III-13〉과 같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7]과 같음.
- 범주화된 영향변수별로 평균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건강 관련 요인을 제외하고 각 범주에서 1개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가 있었음.
- 가족 관련 요인 중 가구 내 지위(OR=1.615, 95% CI: 1.151~2.264)와 배우자 유무(OR=1.153, 95% CI: 1.244~1.69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가족부양여부와 부양가족의 수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 경제수준 관련 요인은 모두 유의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여부가 OR=0.636(95% CI: 0.500~0.809), 소득이 OR=1.243(95% CI: 1.115~1.385)이었음.
- 경제활동 여부는 분석에 포함된 개별 연구에서 노인일자리 외 경제활동 참여를 의미하며, 다른 일자리가 있을 때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앞서 자조모임이나 자원봉사와 달리, 경제활동 참여는 소득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임.

- 심리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직업훈련 유무(OR=1.594, 95% CI: 1.318~1.927)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단체참여여부나 자원봉사여부는 유의미하지 않았음.
-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OR=1.731, 95% CI: 1.062~1.282)이 유의미하였고, 문해력, 연령, 학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 경제활동 참여의사에 대한 평균 효과 크기는 <표 Ⅲ-14>과 같으며,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8]과 같음.
- 범주화된 영향변수별로 평균 효과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건강 관련 요인, 경제수준 관련 요인, 인구학적 요인은 각 범주에서 1개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가 있었고, 가족관련 요인, 심리학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건강 관련 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OR=1.410, 95% CI: 1.111~1.789)가 유의미하였고, 정신건강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Ⅲ-13> 평균 효과 크기: 경제활동 참여여부

유형		데이터 수	OR	95% CI	
				LL	UL
가족 관련 요인	가구 내 지위	2	1.615	1.151	2.264
	가족부양여부	2	1.262	0.901	1.769
	배우자 유무	10	1.453	1.244	1.697
	부양가족 수	2	1.002	0.722	1.392
건강 관련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6	1.140	0.783	1.660
	정신건강	2	1.194	0.625	2.283
경제수준 관련 요인	경제활동 여부	2	0.636	0.500	0.809
	소득	9	1.243	1.115	1.385
심리사회적 요인	단체참여여부	2	0.575	0.479	0.692
	자원봉사여부	2	0.568	0.442	0.730
	직업훈련유무	4	1.594	1.318	1.927
인구학적 요인	문해력	2	1.592	0.594	4.271
	성별	9	1.731	1.062	2.820
	연령	9	0.798	0.496	1.282
	학력	8	1.002	0.606	1.656

[그림 III-7] forest plot: 경제활동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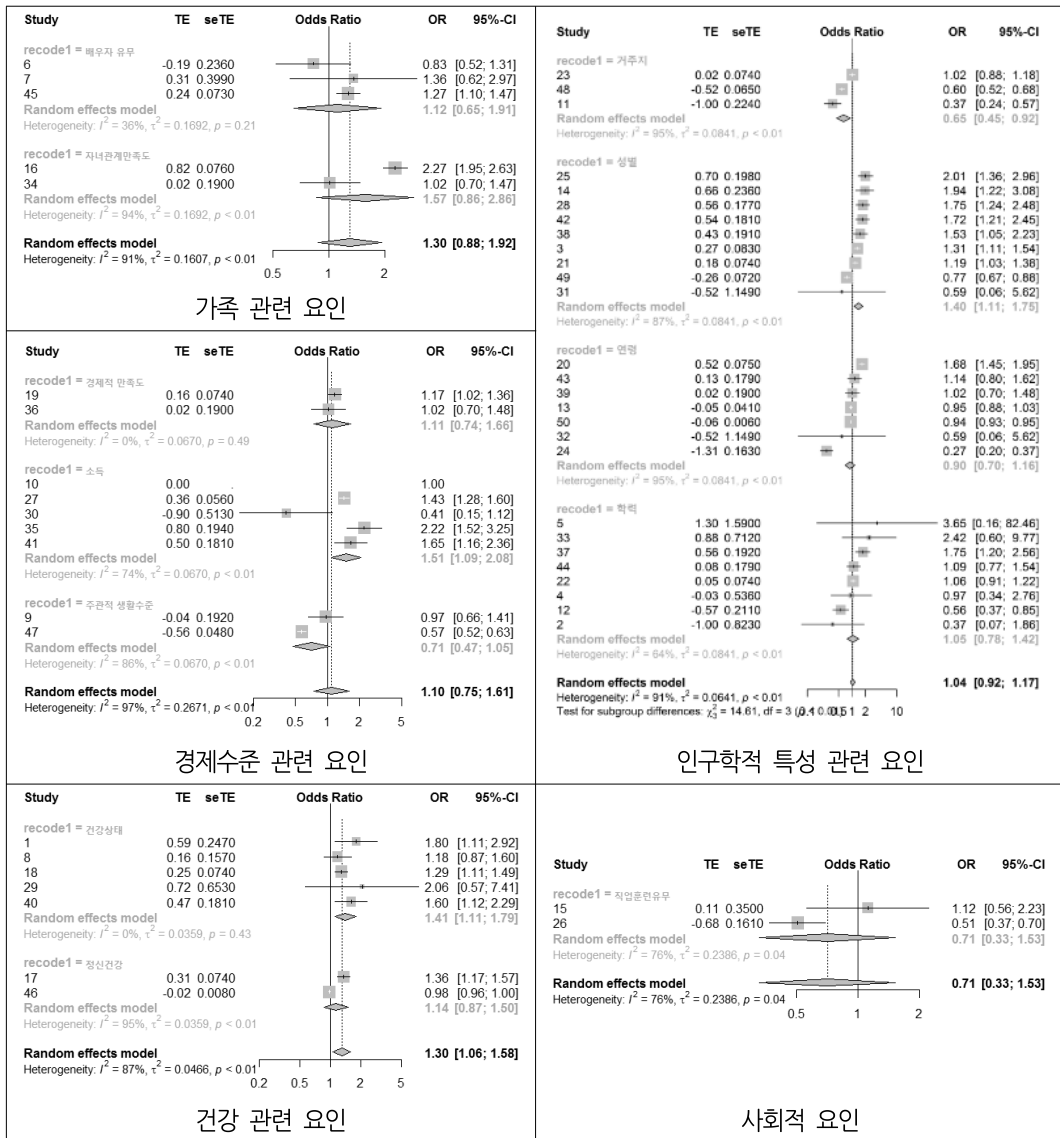


- 현재 주관적 건강상태는 현재 참여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참여의사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향후 비자발적인 노년기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즉 건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일을 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수준 관련 요인은 소득(OR=1.506, 95% CI: 1.090~2.079)은 유의미하였으나 경제적 주관적 생활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즉 주관적인 인식보다 객관적인 소득 유무가 경제활동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침.
-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는 거주지(OR=0.646, 95% CI: 0.452~0.925)와 성별(OR=1.398, 95% CI: 1.114~1.753)은 유의미하였고, 연령, 학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가 도시 지역이 높은 것과 달리 경제활동 참여의사는 읍면지역이 높다는 결과는 도농의 특성에 따라 주된 사회참여 지원방안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줌.
- 종합적으로 볼 때, 앞서 두 활동과 달리 경제활동 참여는 가구 내 지위, 배우자 유무, 경제수준 관련 요인 등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단체참여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단체 참여는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표 III-14〉 평균 효과 크기: 경제활동 참여의사여부

유형		데이터 수	OR	95% CI	
				LL	UL
가족 관련 요인	배우자 유무	3	1.116	0.651	1.913
	자녀관계만족도	2	1.566	0.857	2.860
건강 관련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	5	1.410	1.111	1.789
	정신건강	2	1.141	0.869	1.497
경제수준 관련 요인	경제적 만족도	2	1.107	0.739	1.658
	소득	4	1.506	1.090	2.079
	주관적 생활수준	2	0.706	0.473	1.052
심리사회적 요인	직업훈련유무	2	0.710	0.330	1.527
인구학적 요인	거주지	3	0.646	0.452	0.925
	성별	9	1.398	1.114	1.753
	연령	7	0.890	0.700	1.155
	학력	8	1.051	0.777	1.423

[그림 III-8] forest plot: 경제활동 참여의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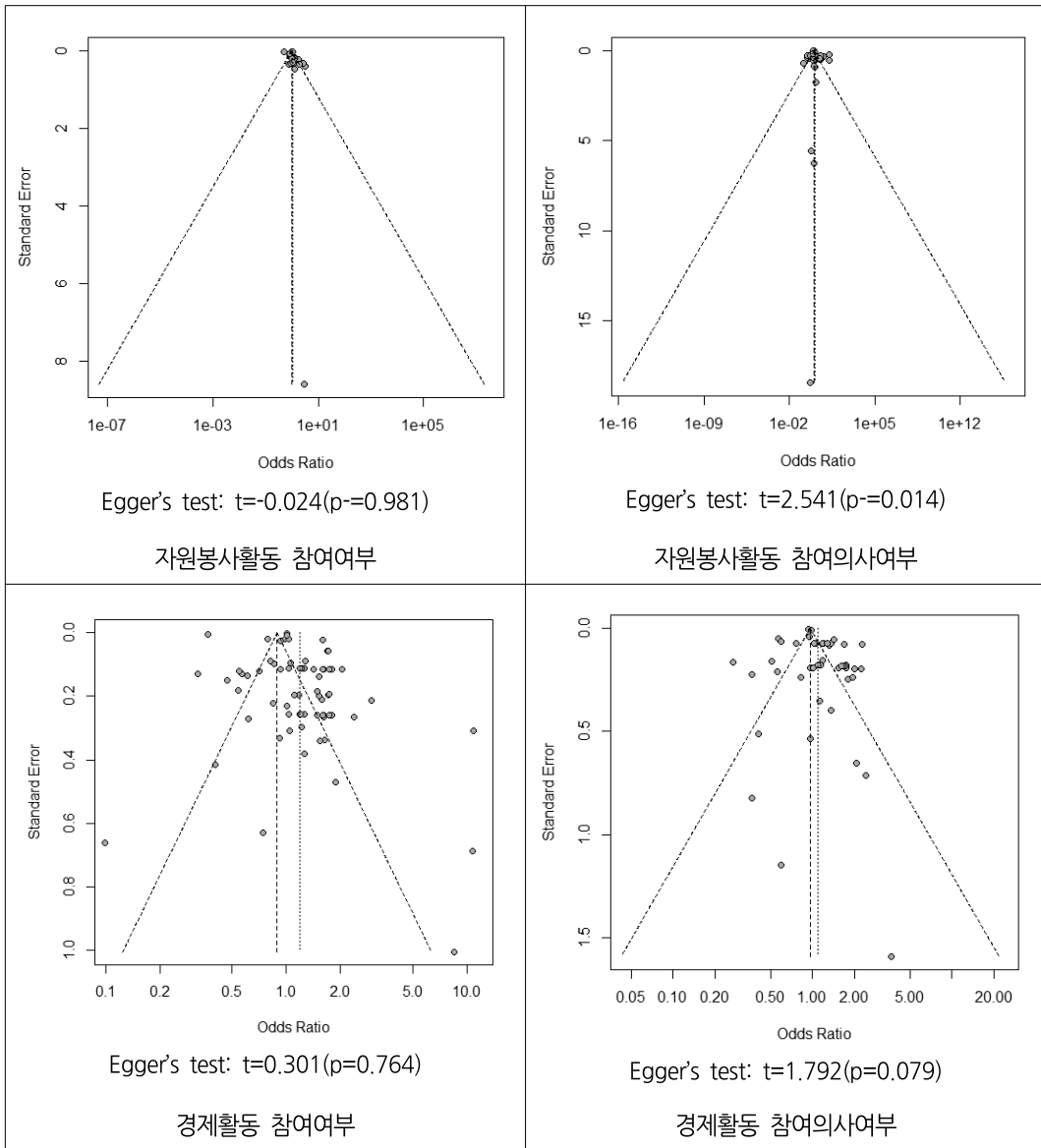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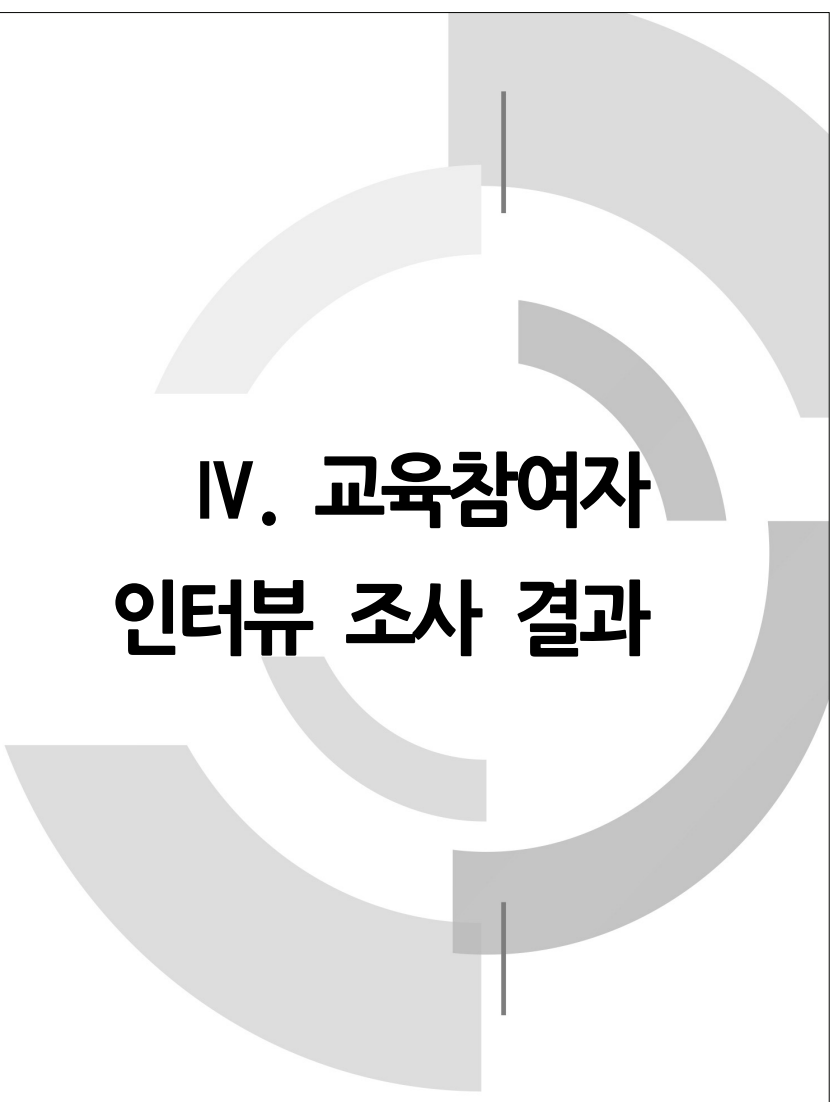
○ 즉 메타분석 결과는 자조모임 운영 시 자원봉사활동 참여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자조모임이 분리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5. 출간오류 분석

- 출간오류분석이란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가 전체 연구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는 것으로, 전체 효과 크기가 왜곡된 결과인지 살펴보기 위해 실시됨.
- 출간오류분석은 forest plot을 통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오류의 존재를 funnel plot을 활용한 시각적 검토와 Egger's regression을 통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함. 만약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오류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trim-and-fill 방법을 활용하였음.
- [그림 III-9]는 출간오류분석을 수행하기 적합한 데이터 수를 보유하지 않은 자조모임을 제외하고, 자원봉사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한 출간오류 분석을 실시한 결과임.
- 데이터 4개 모두 시각적으로 볼 때 일부 비대칭을 보이고 있었음.
-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t=0.024$, $p=0.981$), 경제활동 참여여부($t=0.301$, $p=0.764$), 경제활동 참여의사여부($t=1.792$, $p=0.07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충분히 전체 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여부는 $t=2.541$ ($p=0.014$)로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크기가 작아지면 효과크기는 과대 측정되어 있을 수 있음.
- 이에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여부에 대한 오류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봄으로써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음.
- trim-and-fill 분석 결과, 13개의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효과크기는 랜덤효과모형에서 $OR=1.315$ 에서 $OR=1.009$ 로 감소하여 오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본 분석결과 중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여부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9] funnel plot





Ⅳ. 교육참여자 인터뷰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Ⅳ. 교육참여자 인터뷰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자조모임 운영에서 참여요인과 방해요인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이하 센터)의 제2경력개발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인터뷰 기법을 활용한 질적조사를 진행함.
- 센터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즐거운인생지원팀의 협조를 통해 연구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함.
 - 모집대상은 2018년 및 2019년 제2경력개발교육 중 ‘돌봄파트너 양성과정’, ‘50+ 명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장애인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과정’, ‘50+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한 예비노인세대로, 각 과정 당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함.
- 총 20명이 모집되었으나, 조사 설명 후 1명이 미동의하여 최종적으로 19명의 참여자가 조사에 참여함.
 - 참여자 중 남성은 5명, 여성은 14명으로 여성참여자가 많았음.
 - 참여자의 연령은 최소 52세에서 최대 64세였으며, 평균연령은 61.4세였음.
 - 참여교육을 보면 돌봄파트너 양성과정 4명, 50+ 명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4명, 장애인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과정 6명, 50+컨설턴트 양성과정 5명임.
- 조사는 5월 2주간 진행되었으며, 신청자의 선호에 따라 유선 인터뷰(15명)와 대면 인터뷰(4명)를 병행하였음.
 - 인터뷰는 모두 일대일로 진행되었으며, 대면인터뷰는 1인당 60분, 유선인터뷰는 참여자의 응답준비도에 따라 1인당 20분에서 60분 사이 진행되었음.
 - 인터뷰 신청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유선 설명을 진행하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서면으로 수집하고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음.

- 인터뷰 전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미리 전달하고, 기본적인 응답을 받은 후 인터뷰 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였음.
 -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의 보호와 윤리적 기준 준수를 위하여 연구목적, 방법, 익명 및 비밀보장, 연구 철회의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설명함.
- 인터뷰 전 제공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다음 <표 IV-1>과 같음.

<표 IV-1>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

구분		내용
기본사항		연령, 성별, 학력, 경력, 취업희망여부, 희망하는 업무, 참여한 교육과정
교육 관련 사항		처음 교육신청 했을 때 기대했던 점, 교육 참여 과정 중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 교육을 받고 나서 희망 및 실망, 같이 교육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
자조모임 관련 사항	참여하고 있음	모임이 만들어진 배경,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이유, 참여한 사람 수, 만남 횟수, 만나서 하는 활동, 모임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앞으로 기대하는 모임의 방향,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하지 않음	모임이 만들어진 배경,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유, 참여한 사람 수, 만남 횟수, 만나서 했던 활동, 모임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 모임이 중단된 이유, 향후 모임에 참여할 의사,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만들어졌으나 한 번도 만나지 못함	모임이 만들어진 배경,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유, 참여하기로 한 사람 수, 만나려던 횟수, 만나서 하려고 했던 활동,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 모임이 시작되지 못한 이유, 향후 모임에 참여할 의사,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자조모임에 신청 안 함	모임에 대한 인지 여부, 참여하지 않은 이유, 교육 후 활동, 교육 후 하고 싶었던 활동, 향후 모임에 참여할 의사,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 인터뷰 자료의 분석은 교육 및 자조모임 참여과정을 도식화하고, 각 과정에서의 응답을 상위 개념적 수준으로 코딩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으로 수행됨.
- 코딩된 자료는 인터뷰 원자료(raw data)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응답을 개념화함. 이 과정에서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영향요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론함.

2. 조사결과

1) 코딩 결과

-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함.
- 각 과정에서의 응답을 위계적 배열을 통해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참여과정을 5단계로 도출하고, 참여과정 당 2개의 주제군을 도출하였음.
- 각각의 과정은 상반되는 주제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신청 및 참여 단계: 근로목적 참여, 비근로목적 참여
 - 교육 종료 단계: 긍정적 교육평가, 부정적 교육평가
 - 자조모임 형성 단계: 자조모임 형성요인, 자조모임 미형성요인
 - 자조모임 운영 단계: 긍정적 모임평가, 부정적 모임평가
 - 자조모임 중단 단계: 외부중단요인, 내부중단요인
- <표 IV-2>는 자조모임 참여 과정의 주제군별 개념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임.

<표 IV-2> 자조모임 참여 과정 개념화

단계	주제군	개념화
교육신청 및 참여 단계	근로 목적 참여	재취업 가능성을 기대함, 현업과 접목 가능성을 기대함
	비근로 목적 참여	재능기부 하고 싶음, 새롭게 배우고 싶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음
교육 종료 단계	긍정적 교육평가	관련분야로 취업함, 현업에서 활용함, 봉사활동단체에 가입함, 교육생 동료에 대해 만족함
	부정적 교육평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교육 후 활동에 대해 과도한 기대감을 가짐, 소외감을 느낌, 불성실한 교육생에 불만을 가짐
자조모임 형성 단계	자조모임 형성요인	교육내용을 확장하고 싶음, 재능기부활동으로 연결됨, 정보를 공유함
	자조모임 미형성요인	구심점이 없음, 의지가 약해짐, 목적과 계획을 잘 모름, 시간적으로 여유 없음
자조모임 운영 단계	긍정적 모임평가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지식을 확대함, 소속감을 느낌
	부정적 모임평가	시간 맞추기 힘들, 장소 구하기 힘들, 이기적인 참여자로 인해 힘들
자조모임 중단 단계	외부중단요인	COVID-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움, 일자리 연계가 사라짐
	내부중단요인	참여인원이 줄어들

2) 개념화한 인터뷰 내용

① 교육신청 및 참여단계

- 조사대상자들은 교육을 신청할 때 재취업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도움이 되어 활동 분야가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재취업 가능성을 기대함’, ‘현업과 접목 가능성을 기대함’으로 개념화하였고, ‘근로 목적 참여’로 주제를 도출함.
-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사회기여, 사회공헌을 고려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배우고 싶은 마음, 교육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재능기부 하고 싶음’, ‘새롭게 배우고 싶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음’으로 개념화하였고, 이를 ‘비근로 목적 참여’로 주제를 도출함.

○ 근로 목적 참여

- 재취업 가능성을 기대함

- *요양보호사를 제가 배웠고... 요양보호사를 배우고 나니까는 저기 어차피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이 뭐 꼭 내가 저... 요양 보호사 등급 없거나 장애 없는 분은 안 받는다는... 저기 일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 배워 볼려고 들었어요. 일을 할려고 (사례4)*
- *명화스토리텔링으로 유아교육으로 강사 쪽으로 나갈 수 있을까 했던거죠.(사례8)*
- *업을 원하는 이유는 그래두 고령이지만 뭔가를 하면서 사회에 활동도 하면서 좀 수입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사례13)*

- 현업과 접목 가능성을 기대함

- *저 같은 경우는 명화스토리텔러를 개인적으로 배우고 기본적으로 지역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초 문해 교육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를 접목해서 쓸 수도 있는 분야긴 해요.(사례9)*
- *저는 이걸지 모르고 왔어요. 왔는데 이걸 장애인 프로그램인데, 보드게임 가르쳐주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격증을 따놓고 취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장애인활동교육 그거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다 배우면 좋겠다 하고 그냥... 모르고 왔는데 하게 됐죠. 근데 나도 그 교육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된 거지.(사례14)*
- *지인으로부터 50+ 명화스토리를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고 신청했죠. 오랜 시간 동안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해서 배워서 아이들과 어르신 시니어 스쿨에도 접목시켜서 교육하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죠.(사례17)*

○ 비근로 목적 참여

- 재능기부 하고 싶음

-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재능 기부할 수 있겠다 하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위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죠.(사례2)
- 내가 나의 건강한 취미생활과 사회공헌을 같이 경험하고 거기에 조그맣게 긍정적인 보수가 따라진다고 하면은 많지는 않지만 내가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남편의 정년을 도움이 되게 할려고 많이 저기 했던 거죠.(사례19)
- 아무래도 뭔가를 준비하면은 노년이 여유롭고 건강할거고 또 사회참여의 새로운 기회도 될거고요...(사례12)

- 새롭게 배우고 싶음

- 장난감 수리나 노노케어를 들으려했지요. 2019년 도에는 하지 않아 실망하던 차에 장애인 인지라는 들어보지 못한 강좌가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편이 봉사나 취업 등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평소 장애인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한 면이 있어 이번 기회에 편견을 없앨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해서 참가 했어서...(사례6)
- 도움이 많이 되었죠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저기 뭐야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죠. (중략) 그니깐 노인에 대한 이해를 듣고 이제 노인이 이런 상황이다 그런걸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니깐. 나는 이제 엄마 변화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 노인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사례15)
- 저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한 가지 일만 했었어요. 39년을 인천에서. 초등학교서. 그랬는데 고령(주: 센터를 의미함)에서 돌봄이라던가 컨설턴트라던가 또 사회협동조합이라던가 이런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 다방면을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계기가 된 거였죠.(사례11)

-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음

- 아무래도 네트워킹이고 새로운 분들을... 만약에 그런 센터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은 인천시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옆집도 모르는 세상인데.(사례1)
- 은퇴 후예요 전문적인 경력이라든가... 그... 뭐냐... 현직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동년배네들, 또래들하고 이렇게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가지고요 이런 거래던가 저런 거는 죄금 되니까는 시간 소일하는 문제도 있고 같은 소일거리를 또래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어요.(사례5)

- 음... 나이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잖아요. 같은 관심으로 교육도 받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정보도 나누고... 좋았어요. (사례12)

② 교육 종료 단계

- 교육의 종료 단계에서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
-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거나 현업에서 응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참여가 가능하였을 때, 함께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긍정적 교육평가'로 주제를 삼고, '관련분야로 취업함', '현업에서 활동함', '봉사활동단체에 가입함', '교육생 동료에 대해 만족함'으로 개념화함.
- 반면 연계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거나 일부 교육생들의 태도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
- 이는 '부정적인 교육평가'를 주제로 삼고,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교육 후 활동에 대해 과도한 기대감을 가짐', '소외감을 느낌', '불성실한 교육생에 불만을 가짐'으로 개념화함.
- 긍정적인 교육평가
 - 관련분야로 취업함
 - 컨설턴트는 신중년 일자리 하고도 연결이 됐었구요. 작년에는 고령센터에서 신중년 일자리를 했어요. 고령에서 파견해 갔구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나가서... 지금은 사회 공헌으로 하고 있죠, 고령에서. 그리고 돌봄은 자원봉사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11)
 - 취업과 연결이 된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게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그걸가지고.. 제가 교육 받을 때 그 요양끼리 같은 데 보조 강사로 들어가서 도움을... 이케하는 건데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갔구 참여를 못했어요. 좀 아쉬웠구 또 앞으로 기회가 있겠죠 뭐, 하하하.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례13)
 - 그 교육을 받고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구 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았어요. 신중년 일자리로 연결되었고요. (사례18)
 - 현업에서 응용
 - 교육받고 바로 어르신 돌봄의 기회가 있었어요. (중략) 음- 제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친절하게 해 드리면 되더라고요, 하하하. 따로 부담감 가질 것도 없고 책임감 가질 것도 없고 뭐 잘 대해 드리지만 하면 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례3)

- 교육 후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고, 그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아쉬웠어요. 어-1년이 안 되는 기간이었잖아요. 제가 활동하면서 어르신하고 정이 조금 좀 많이 들어서.(사례12)
- 봉사활동단체에 가입함
 - 물질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 형성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진행해 보고 싶어요. 그와 관련해서 부평구 문화해설사 과정을... 그 면접을 봐 가지구 선정이 되었어요. **월 **일서부터 **월까지 교육을 한 대요. 교육과정 해가지구 문화해설사 그 전문가 과정을 한하는데 거기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할려고 그래요.(사례5)
 - 그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니까 그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배려하면서 나도 어- 기쁨... 만족... 보람... 이런 걸 느낄 수 있는거죠.(사례11)
- 교육생에 대한 신뢰
 - 참여과정 중에는 저희가 인제 다... 사람들이 배우려는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다 ... 우리가 다... 자조적으로 모인거잖아요, 배울려구...(사례4)
 - 스토리텔러 너무 좋았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도 활동을 했고 그 매시간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강사님들도 너무 좋았고 저는 거의 100% 만족을 했거든요? 이것을 가져가서 활동도 하고 싶었고(사례17)

○ 부정적인 교육평가

-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음
 - 근데 사업이 이번에 안 따왔다면서요(주: 고용노동부 신중년일자리사업). 사업이 안 되서 못 한거죠. 뭐.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 사업이 열리면 일단 교육받은 사람이 위주로 강사교육도 좀 더 심화되고 할 줄로 다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게 안 된거죠. 아무런 연락도 없고 교육이 끝나고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던 거죠.(사례8)
 - 취업하거나 이런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뭐 취업에 도움도 되고 어차피 제가 요양보호사를 했으니까 그쪽 부근이라던가 장애인 교육이라던가 어떻게 간에 앞으로 내가 쓸 거라는 거,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죠. 나름대로 새로운 걸 배우고 해서 좋긴 했지만, 취업이랑은 아무 관계없는 거지. 취업에 도움이라곤 일도 없었으니까.(사례14)
- 교육 후 활동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가짐

- 음- 이후의 연계 활동하고 지속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팔로업이 지속되었으면 좋은데 뭐 교육으로 끝나고 아무리 네트워킹을 스스로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결속력도 없고 지속성도 없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그 교육 하나만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그게 기반이 돼서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되고 뭔가 활동의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만족스럽지만 다소 아쉽죠.(사례1)
 - 사업이 열리면 일단 교육받은 사람이 위주로 강사교육도 좀 더 심화되고 할 줄로 다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게 안된거죠. 아무런 연락도 없고 교육이 끝나고 아무것도 진전이 없었던거죠. (사례8)
 -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은 아니었지만, 수료를 했잖아요. 양성을 했으면 같이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그 배운 내용을 저희들이 교안을 새로 스테디를 통해서 새로 교안을 만들어서 유치원이라던가 학교래던가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그거를 교육 기부 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단순히 교육에 그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사례9)
 - 그런 교육이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심화교육 같은 거 심화교육이라던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조금... 인천도 그게 처음이었으니까 그게 후속타가 나오지 않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서울 견학을 가 봤을 때 거기는 이제 막 이제 되어있더라고요.(사례19)
- 소외감을 느낌
- 아무래도 소재했던 인근 지역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직종, 돌봄 과정이면, 돌봄 과정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입소문이 빠르거나 정보가 빠르겠죠. 구성원들이 모여서 구성원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저처럼 다양한... 순수하게 정년을 맞이해서 그 분야에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알고 싶어서 그렇게 온 사람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편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사례2)
 - 왔더니 여기가 웃긴 게 그전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지역 뭉쳐갖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혼자 왔는데, 이제 뭐... 자리도 뭐, 비워져 있어서 앉으려고 했더니 자기네 자리라고 비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자기네 여기 앉을 자리라고. 팀별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네 지역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사례14)
- 불성실한 교육생에 불만을 가짐
- 막 늦게 오구 들쭉날쭉하고 결석도 많구 그러구 뭐 수업시간에도 왔다갔다하구 그러니까 산만하더라고요... 그러구 막 중간에 막 들어오구 중간에 막 나가고.

강사님한테도 미안하고... 막 그러더라구요. 줄기도 하고 막 떠들고... 한사람! 한사람이 특히 더 그렇게 물을 흐리더라구요. 수업시간에 막 졸고 너무 그냥 상식이하 상식이하로 그러니까...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결석을 하는데... 특히 조는 건 너무 아니지 않나... (사례6)

- 왜 그러냐면 간식 같은 것도 보면은 한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면 되잖아요. 그렇지않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인제 그런 면도 그렇고 시간... 시간 잘 안 지키고 중간에 인제 나가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위... 아니 인제 같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조금 지장을 주잖아요. 주위를 분산시킨다던가. 이렇게 조금 안 좋아요. 그냥 살짝 있다가 좀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저기 안 주면 되는데 그제 좀 인제 안돼서... 도덕성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사례18)

③ 자조모임 형성 단계

- 반구조화된 질문지에서 자조모임의 형성은 ①형성된 경우, ②형성되었으나 종료된 경우, ③형성하려고 하였으나 만난 적 없는 경우, ④ 형성된 적 없는 경우 네 가지로 구분됨.
- 자조모임이 ①형성된 경우와 ②형성되었으나 종료된 경우에는 추후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만들거나 교육받은 것을 더 확장하고 경험하고 싶어서, 지식향상과 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을 파악하는 등 정보공유를 위해 자조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교육내용을 확장하고 싶음’, ‘재능기부활동으로 연결됨’으로 개념화하고, ‘자조모임 형성요인’으로 주제군을 설정함.
- 자조모임을 ③형성하려고 하였으나 만난 적 없는 경우와 ④형성된 적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로 의무나 강제성이 없어 구심점이 형성되지 않거나 자조모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 없음이 나타남.
- 이를 ‘구심점이 없음’, ‘의지가 약해짐’, ‘목적과 계획을 잘 모름’, ‘시간적으로 여유 없음’으로 개념화하고 ‘자조모임 미형성요인’으로 주제군을 설정함.
- 자조모임 형성요인
 - 교육내용을 확장하고 싶음
 - 아- 우리가 교육만 받았지 뭐 조금 자료를 만들어야되거든요. 조금 교육도 더... 추가 교육도 필요하고 그 명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다른 교육하고는 다르게 그제 인제 자조모임이

있어야만 이제 가능한 일이에요. (사례8)

- 마칠 무렵에, 명화스토리텔러 마칠 무렵에 두 세분이 제의를 하셨어요. 그 모임을, 결성을 하자. ...(중략)... 제가 적극적으로 원했거든요. 제가 접목해서 활용하고...저는 좋았어요. 도움이 되고. (사례17)
- 저희가 모인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상담학을 공부한 건 아닌데 단순히 이 몇 시간의 양성교육만 갖고는 나가서 상담할 때 부족한 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문으로 된 시험도 봤고 정말 일대일 면접시험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나눠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신의 껍을 오픈을 하고 거기 제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각자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가졌었죠. (사례19)

○ 재능기부활동으로 연결됨

- 그 모임은 원래 자원봉사 모임. 거기도 따로 무슨...순수한..순수한 거 맞는 데 기관의 지원을 받거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회칙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말하자면 동아리 형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례2)
- 전원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종강기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결정하였어요. (사례6)

○ 정보를 공유함

- 비정기적으로라도 모임에 있을 때는 제가 시간이 되면 갔구요, 지금도 카톡방에서 서로 교류하니까 그렇게 뭐 좋더라구요.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런 면에서는 좋죠. (사례3)
- 컨설턴트요 예를 들어서 상담한 사례를 시연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인제 느낀 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인제 정보... 어떤 고충이 있었다,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례11)
- 저 혼자만이 공부를 하면은 그게 한계가 있는데 똑같은 인제 자문이라도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면은 정보를 키워보면은 제가 혼자 열 시간 공부할 거를 거기 가면 한 시간이면 된다는 거. 정보의 다양성 그런 것도 있구요, (사례18)

○ 자조모임 미형성 요인

- 구심점이 없음

-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에는 무언가가 센터에서 제공해 주는 콘텐츠가 있어서 그걸 관심을 갖고서 모였는데 그 이후의 자조모임은 아직까지는 그런 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서로가 뭔가 나누고 도와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있어 아직까지는 구심점이... 그리고 모임에 의무적으로 나와야된다는 그런 출석에 대한 그런 의무감이나 자발성 이런 것들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그- 어쨌든 자조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되는데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만큼의 그 어떤 구속력이나 의무감 이런 부분들도 약해진 거 같구요.(사례 1)

- 수강생들이 저절로 그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해 주는 게 그 센터래던가 그다음에 주최 측의 역할인 거 같은데 우리 고령사회대응센터는 그거를 진행하는 거는 상당히 그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실속이 있는데 그런 저 자조모임을 구성하는 커리큘럼 자체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사례 5)

- 의지가 약해짐

- 일반 계모임보단 약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자원봉사란 쪽에서 강제성이 없잖아요. 원래 본인 의지가 좀... 다른 거에 흔들리면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두 번째에 두니까. 지금도 좀 그런... 자기 급한 일 있으면 오기 힘들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같이 모임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례2)
- 근데 뭐가 안 된 것도 같아요. 근데 깊이는 모르겠어요. 회장도 있고 하나까 회장, 총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더 뭐 자조모임을... 교육생들 다 맞았던 사람들 뭐 좀 더 확대시키기도 하고 뭐... 아무튼 거창하게 됐었는데 그냥 갑자기 사라져 버리더라구요. ..중략... 못 듣고 그냥 흐지부지돼 버렸던 거예요. (사례8)
- 몇 분이 인제 처음에 인제 그런 일을 좋아하시고 관심을... 그런 일을 해 보고 싶고 의욕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 일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해 줘야지 이제 인제 일하는 사람도 신이 날 거 아니예요. 근데 허허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사례10)

- 목적과 계획을 잘 모름

- 어떤 교육 기부를 하던 본인들이... 어떤 설명이 있었다면 좀 모임이 됐을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뭐... 인맥관련,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써의 어떤 저기가 없었어요(사례9)
-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저도 뭐라 말하기가.. 그 분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못들을 수도 있었고, 나이 때문에 이제... 잠깐잠깐 집중이 좀... 쭉 집중이 안 되더라구요.(사례14)

- 시간적으로 여유 없음

-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 마침 제가 **요일 **요일 제가 활동을 하는 날이었는데 **요일이면 **요일 주로 그날 모임을 하셨어요, 제가 활동하는 날, 그 요일에. (사례12)

④ 자조모임 운영 단계

- 자조모임 운영 단계는 교육 종료 단계와 마찬가지로 모임활동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로 응답하였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의의를 느끼게 되었거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배우는 활동, 다양한 시각을 통해 삶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거나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 소속감을 느낀 경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 이는 ‘긍정적인 모임평가’를 주제군으로 삼고,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지식을 확대함’, ‘소속감을 느낌’으로 개념화함.
- 시간을 맞추거나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지나친 개인적 의견을 표출하거나 개인생활만을 우선시하는 등 정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를 ‘부정적인 모임평가’로 주제군을 삼고 ‘시간 맞추기 힘들’, ‘장소 구하기 힘들’, ‘이기적인 참여자로 인해 힘들’으로 개념화함.
- 긍정적인 모임평가
 -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보조로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한다. 강사별로 어디 어디를 가면 지원해달라는 게 있잖아요. 자원봉사 가도 손이 필요한데.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임을 가면 누가 언제 어디 어디 있다, 그러면 누가 어디 어디 갈라고 한다. 그걸 정하는 거죠... (중략) 다들 그 분들은 강사로 뛸 수 있는데 그 한 특정한 날을 뭐...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자원봉사 시간 인정해줘요. (사례2)
 - 많이는 못 해도 기회가 되는대로 하는 거죠 시간되고 할 수 있는 일이면 앞으로도... (사례3)
 -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
 - 서로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 들을 교환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례 3)
 - 학교에서 아무리 우등생 공부를 했어도 사회에 나가면 그 공부만 갖고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사례19)
 - 지식을 확대함
 - 그니까 일단은 저하고 전부 다른 세계에서 사시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특히 항상 우리가 볼 때 주변만 보지 남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얘기를 들었고... 아니 근데 전부가 깊은 얘기까지는

안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얘기는 좀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서 인제 삶의 지혜도 얻은 거죠, (사례10)

- 돌봄파트너 그 동아리를 하는데 거기서 인제 제가 인제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상대로 인해서 제가 그때 인제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좋았어요.(사례18)

- 소속감을 느낌

-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시설 등에 가서 교육이나 돌봄을 지원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각자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공동으로 같은 노력을 하고 있어 유대감을 느낄 수 있고.(사례2)
- 비정기적으로라도 모임에 있을 때는 제가 시간이 되면 갔구요, 지금도 카톡방에서 서로 교류하니까 그렇게 뭐 좋더라구요.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정보도 나누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런 면에서는 좋죠. (사례3)
- 단시간이아나서 서로 몰랐던, 좀 수준있는 사람들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교제가능해서 좋았고, 앞으로도 다른 강좌나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 굉장히 좋았어요.(사례6)

○ 부정적인 모임평가

- 시간 맞추기 힘들

- 단지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들기 전에는 협동조합이라도 만들 듯이 진지했는데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밥만 먹고 헤어져요...(중략)...모임 시간을 정하는 것도 총 30여 명 중 이런저런 사정인지 핑계인지 겨우 5명만 모인 데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무언가 하기도 불충분해서 사회적 기업은커녕 조합을 만들 최소인원도 안되어 의미가 없어요.(사례6)
- 아... 모임에서... 그런데 인지 어떤 점이 있냐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일곱 명, 여덟 명 다 모이지는 못하고 그런 스케줄에 의해서... 어- 다 모임 때도 있지만 뭐 다섯, 넷 이렇게 모임 때도 있죠. 그런 점이 고충이 좀... 그니까 시간이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라서 어- 그런 점.(사례11)

- 장소 구하기 힘들

- 저희가 각자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바깥에서 모이기도 어려워 센터에서 모이게 되면 센터 같은 경우도 퇴근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만한 모임 장소가 없는데 컴퓨터도 있구 뭐도 있구 다 좋은데 그 분 최근 시간에

걸려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라던가 모임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게 또 단점이 있죠.(사례19)

- 이기적인 참여자로 힘들

- 너무 이게 만약에 강사비가 지원되고 한다면 지원 나갈 텐데, 무보수로 지원을 나가니까 그게 너무... 실제로 입으로 이야기하고, 봉사 쪽으로는...돈 받고 나가는 걸 우선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아이 나 돈 필요하니까 못하고 나가야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희생이지만 감수하면서 하는 데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알ampo. 본인 생각이니까 강요할 순 없고. (사례2)
- 동아리 활동도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간에 그냥 억지 부린다던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한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사회적인 기준이고 그 표준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그 동아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게 참 불편했어요. 그건 기본 원칙이라던가 회칙이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참 불편했어요.(사례18)

⑤ 자조모임 중단 단계

○ 조사결과 현재 COVID-19로 인해 잠정적으로 모임을 중단한 경우와 일자리 연계가 없어서 자조모임도 중단된 경우, 참여인원이 줄어들에 따라 자연스러운 해체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COVID-19로 인한 중단은 외부중단요인으로, 참여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는 내부중단요인으로 정의함.

○ 외부중단요인

- COVID-19로 대면활동이 어려움

- 코로나19로 모임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사례 19)

- 일자리 연계가 사라짐

-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모임도 중단했어요. 참여자만으로는 힘은 부족하고, 정부나 관계자의 도움이나 정책이 필요하죠.(사례10)

○ 내부중단요인: 참여인원이 줄어들

- 참여인원이 축소돼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사례1)
- 몇몇 사람들이 독단적인 사고를 해서 그게 불편해서 참석 안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참여인원이 부족해져서 모임 안 해요.(사례6)

3) 희망하는 지원 방안

- 구조화된 설문 내용 중 금전적 지원방안, 추가교육 관련 지원방안, 장소 관련 지원 방안, 모임관리 관련 지원방안을 살펴봄.

① 금전적 지원방안

- 금전적 지원희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참여자는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지원금과 요구활동에 대한 재료비, 다과비나 식대와 같이 모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비 지원을 요구함.
- 또한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자조모임 이후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자조모임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되면 자원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으로 경제적 보상 요구가 있었음.
- 반면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요구를 바라지 않는 참여자도 있었음.

○ 금전적 지원 필요

- 다른데 보면은 뭐 저기 교육 기부하는 거니까 많은 활동비는 못해도 교통비 정도 지원해 줘서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죠. 그거야 저기 예산상이니까...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거죠 받는 입장에서는...(사례9)
- 교통비하고 약간의 자료를 할 수 있는 거.(사례16)
- 인원 수에 비례해서...이거를, 명화스토리텔러를 활성화를 한다고 보면, 일단 컬러복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 거 같고 준비물이 좀 들 거 같았거든요 그 부분이 좀...얼마나 필요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사례17)

○ 금전적 지원 불필요

- 자리 제공, 자리 제공. 그 정도 해주면 우리가 부득불 뭐 크게 지원금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은데요 뭐. 사람이 마음이지 뭐, 그렇게 크게 뭐... 지원금 정도는 저는 바라지 않아요.(사례4)
- 어떤 자조모임이 구성이 됐을 때 저기 회에 다가서는 센타에서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그 어떤 자조모임이 생길 때마다 센타에서 시 예산이래던가 이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가지고는 지원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원칙적으로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일년에 또는 반년

상 하반기래던가 또는 분기별로 몇십만원이래던가 이렇게 해주는 거는 바람직하다, 저기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사례5)

② 추가교육 관련 지원방안

○ 추가교육은 크게 심화교육, 전문교육, 현장교육, 동료 교육 등을 언급하였음.

-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기를 희망하여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강사들이 전달하는 지식이나 교육 자체가 현장과 다소 동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이에 대한 해결 등 실제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 이외에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스스로 혹은 동료들 간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교육을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음.

○ 심화 및 전문교육

- 과정을 굳이 얘기하자면 초, 중, 고급 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죠 심화과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회비를 내고라도 완벽하게 익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사례6)
- 역량강화 그거는 필요한 거 같아요. 인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와서 역량강화를 시켜주면 알고 있었던 것도 다시 인식하게 되거나 미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거나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활력도 되고(사례11)
-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할라구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중략...역량강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뭐 상 하반기는 어렵더라도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사례18)

○ 현장교육

- 어르신들이 실제로 연세가 좀 많으시니까 네- 그니까 직접 가서 파트너를 하면서 내 주위에 그런 케이스들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음- 많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사례12)
- 교육을 오시면 대학교수님들이 오세요. 대학교수님들은 정말 교육적인 것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음... 사실 서울 50+센타의 생애설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해 주시면 더 좋아요...(중략) .이럴 때 이렇게 대응하면 좋고 물론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저희가 많은 경험과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례19)

○ 동료교육

- 그림으로도 할 수 있고 한국화 서양화 뭐든지 다양한 방면의 그림을 스토리로 만들어야죠. 지금은. 그거에 모임이 생긴다면 거기서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고 그럴 가지고 스캔하고 또 어디 뭐 갈 수 있다면 가는데 뚫고... 서로 뭐 또 기관에 협력해서 기관이 도와주고 또 그 교육했던 강사분도 그런 쪽에 많이 안다 하니까 같이 노력하고.. 아무튼, 활성화만 되면 길은 열리죠. 그쪽으로 열리죠.(사례8)
- 저희들이 어떤 아이들이랑 함께 참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어... 쉽게 말하면 개발하고 활동하는 것은 선생님 몫이죠 뭐.(사례 9)

③ 장소관련 지원방안

-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물리적 공간으로의 장소는 센터 내 교육장 대여, 또는 청년들을 위한 유유지기와 같은 중장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희망하였음.
 - 특히 센터 내 교육장 이용을 대다수 희망하였는데, 이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임.
 - 저 같으면... 센터에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뭐 세미나실이라던가 이런 곳을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중략) 구심점 역할이 되야 되니까.(사례9)
 - 고령사회대응센터에 다녔으니까 거기가 혹시라도 거기가 남는 장소가 있으면은 공간을 할애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어요.(사례15)
 - 주 메인은 여기가 좋을 거 같아요. 건전하고 다른 데 가면 생각이 흩어지고 시끄럽기도 하고, 여기는 분위기 자체가 마음을 다잡아 주니까 저는 여기가 참 좋거든요.(사례17)
- 공간 마련이 어렵다면 장소대여비를 지원받기 희망함.
 -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그 미팅하기 위해서는 장소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소를 일차적으로 센터에서 해 주는 게 어땠겠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쓴거 같습니다.(사례5)
 - 장소를 가급적 거기서 지원해주면 좋겠죠. 강사도 지원해 주시면 좋고... 방도 한 두 개 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판 층에는 좀 많이 있기는 하던데... 저 위층에 보니까... 금전적으로라도 장소 비용을 주심 좋죠.(사례6)
 - 장소를 지원해 주면 좋구요 장소를 구하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라도 감사하죠(사례12)

④ 모임관리 관련 지원방안

- 모임관리 관련하여 크게 센터에서 개입하는 경우와 회원 자체 관리로 나타남.
- 센터 개입 및 관리에 대한 요구 유형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모임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센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주로 구심점이 없어 자조모임을 형성하지 못한 응답자에게서 나타남.

- 회원 자체 관리를 요구한 참여자는 주로 현재 모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 참여자로,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팀워크이며, 자조모임은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운영이 어렵다면 리더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 센터 개입 및 관리

- 새로운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조직화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시쳇말로 그냥 으쌰으쌰 해보자는 건데, 이런 기분을 주체 측에서 제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사례2)
- 서먹서먹한 관계를 누군가가 좀 주도해 주고 이끌어 나가 줘야지 이게 좀 뭉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사례15)

○ 회원 자체 관리

- 저 처음 결성 시에는 센터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나 이후에는 회원이 알아서 할 일인지 같아요.(사례4)
-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원이 많을 때에는 총무를 뽑는다면지 또 뽑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2인 1조가 되어서 우리가 잘해보자, 으쌰으쌰해서 해보잖아요. 여기는 인원이 그닥 많은 형은 아니었으니까 1명 정도는 가능하죠. 분위기를 옆에서 함께 하는.(사례17)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IV-2>와 같음.

<표 IV-2> 영역별 희망하는 지원 방안

영역	지원희망 내용
금전적	교통비 및 활동비, 재료비, 모임유지관리비(다과비)
	바라지 않음(참여자 부담)
추가교육 관련	보수교육 및 심화교육, 현장교육, 동료교육(스터디를 통한 역량강화)
장소 관련	센터장소 활용, 스터디카페(유유기지 같은) 제공, 장소 대여비 지원
모임관리 관련	지속적 참여자 관리 및 공지, 주관 또는 촉진자로서 센터 개입
	리더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3. 합의

- 교육 참여 후 자조모임의 개입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단계는 교육 종료 단계에서 자조모임 형성 단계로 이어지는 두 과정임.
- 교육 종료 단계에서 교육생들이 교육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며, 자조모임 미형성요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성공적 자조모임 요건에 맞춘 개선안은 <표 IV-3>과 같음.
- 먼저 모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하여 구성원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자원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구성원이 모임의 목적 및 획득 과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조모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의 전 과정에서 교육목적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기존 참여자의 경험 나누기 시간 또한 유용할 것이라 생각됨.
- 모임발달을 위한 노력으로 구성원의 장기적 참여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에 중장년일자리와 같은 외부의 공적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모임의 미형성 사유로 나타난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임 초기 리더십 지원이 요구됨.
- 전문가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관계도를 파악하거나 리더를 선출함으로써 교육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임 초기 라포형성 및 의사소통 향상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음.

〈표 IV-3〉 성공적 자조모임 요건에 맞춘 개선안

구분	대상	내용	평가	개선안
모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성원	내외부 자원인식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음	모임장소, 인쇄 등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원의 편의성 향상
		모임의 목적 및 획득 과업	센터의 교육 안내에 대한 자의적 해석 기존 참여자 중 중장년일자리 참여자의 경험담에 의한 과도한 기대	교육신청-과정-종료단계에서 교육목적 지속적 상기 자원봉사 또는 프리랜서 활동 중인 기존 참여자의 경험나누기 시간 필요
	전문가	자조모임에 대한 교육과 홍보		
모임발달을 위한 노력	구성원	장기적 참여 의지	일자리 및 봉사활동 연계 미형성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형성 주체 미약	노인일자리 및 중장년일자리와 같은 외부의 공격일자리 연계 모색 초창기 리더십 지원 필요→모임 초기 교육/상담 제공
	전문가	위기개입	기존 교육생의 친목 및 사회성 결여 교육생에 대한 대처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관계도 파악 및 교육 중 리더 선출 모임 초기 라포형성을 위한 교육/집단 상담 제공 위기발생 시 상담원 연결 자원 확보 의사소통 향상교육 제공
		자원개발 및 연계	교육내용을 활용하고 싶은 욕구 높음	자원봉사 및 일자리 수행기관 연계 확보 현업 활용 집단의 경우 교재 발간 등 목표치 제공
		교육 및 상담 제공	심화/보수교육에 대한 욕구 높음	연 1-2회의 보수교육 제공
	센터	모임공간 확보	센터 내 공간을 가장 선호함→소속감에 기인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장 외 자조모임 집단실이 필요→자원봉사활동/경제 활동 참여시 훈련실로 활용 확대

- 또한 자원봉사활동처나 일자리 수행기관과 연결을 확보하여 자조모임활동의 콘텐츠를 넓혀줄 필요가 있음.
- 심화교육이나 보수교육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아 연 1-2회의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 기관 측면에서는 자조모임 참여자를 위한 모임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돕고, 장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나 경제활동 참여시 활용할 수 있는 집단실이 요구됨.
- 자조모임이 향후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의 연속선상에서 발전하는 데 지원은 재능기부 목적의 자조모임 집단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 자조모임은 자원봉사 참여 집단과 현업에서의 활용 집단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었음.



V.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개발

1.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설계
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세부내용

V.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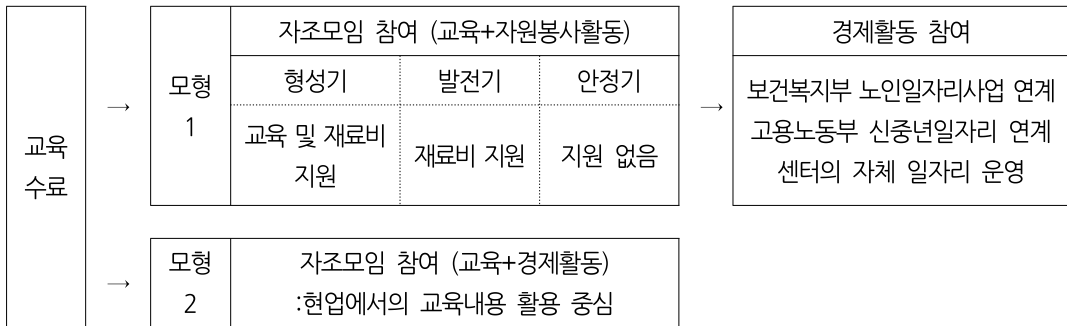
1.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설계

1) 자조모임 운영 모형

- 본 연구는 인천시 예비노인세대가 가진 노년기 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의 욕구를 높은 순으로 구성한 사회참여 프로세스를 가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조모임을 활용하고자 함.
-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영향요인은 경제활동 참여 영향요인과 차이를 보였으며, 인터뷰 결과에서도 경제활동 참여는 새롭게 일을 구하는 참여자보다 현직의 프리랜서로 현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한 사례가 많았음.
- 이에 ‘자조모임+자원봉사활동→경제활동 참여’의 연속성을 가지는 모형(모형1)과 ‘자조모임+경제활동 참여’의 모형(모형2)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음.
 - 모형1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교육 진행 기술 및 프로그램 구성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할 능력을 도모함으로써 경제활동까지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모형2는 인터뷰 조사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현재 프리랜서 등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집단이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자조모임을 통해 공유하는 형태로,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임.
- 교육 참여 후 사회활동 참여로 이어지는 두 모형 중, 본 연구에서는 자조모임의 운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자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능력을 함양하고, 그 능력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지원대상이 될 때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형에 우선 개입할 것임.
 - 이는 프리랜서 등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보다 향후 경제활동을 희망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대상에 보다 집중하기 위함임.

- 또한 교육 후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는 대부분의 예비노인세대는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둬.
-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자조모임 초기(형성기)에는 보수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고, 동년배교육이 가능하거나 배운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시기(발전기)에는 재료를 지원하며, 자조모임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생이 가능한 시기(안정기)에는 지원을 종료함.
- 이와 같은 모형에서 자조모임의 성공적인 운영은 연계되는 활동(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의 기반이 될 것임.
- 두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V-1]과 같음.

[그림 V-1] 교육 후 자조모임 발전모형



- 사회활동에 욕구를 가진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의 형성 및 운영발전을 위해서는 자조모임 지원을 위한 관리자용 매뉴얼과 참여자용 매뉴얼을 함께 개발하는 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뷰 조사 결과, 자조모임이 형성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는 구심점이 없는 것이며, 형성 초기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모임이 자리 잡기까지 참여자를 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구성

- 자조모임은 참여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자조모임의 구조화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자조모임 형성단계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운영 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관리자는 운영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로써 운영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음의 두 매뉴얼은 현재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매뉴얼 구성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관리자용 매뉴얼: 자조모임 초기 형성단계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잘 나타낸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매뉴얼」(최복천 외, 2014)
 - 참여자용 매뉴얼: 당사자가 자력을 자조모임을 구조화하고 운영하는 데 유용한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워크북」(태화샘솟는집, 2017)
- 매뉴얼의 세부내용은 문헌검토, 메타분석, 인터뷰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함.
- 문헌검토 결과, 사회활동 욕구를 가진 예비노인세대 자조모임의 형성에서 전문가의 활동 지원은 ‘자조모임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공간 제공’, ‘자원 연결’, ‘위기개입’이 요구됨.
- 메타분석 결과, 자조모임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련 활동의 선(先) 경험, 활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그리고 대인관계로 나타남.
 - 자조모임 참여여부: 가족지지, 참여만족도
 -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상위5개): 단체참여정도, 단체참여여부, 대인관계만족도, 기부경험, 삶의 만족도
 -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 삶의 만족도, 단체참여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사(상위5개): 성취만족, 업무배치, 대상자만족, 동료만족, 이타적 동기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상위5개): 대상자관계, 동료관계, 업무인식도, 담당자관계, 이타적 동기
- 경제활동 참여의 경우, 참여 및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다 객관적 변수들이었으며, 이 중 직업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자조모임과 관련이 있음.
 -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여부(상위5개): 가구 내 지위, 배우자 유무, 직업훈련 유무, 소득, 성별
 -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의사: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거주지, 성별
- 또한 제3장에서 밝혔듯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자조모임과 경제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자조모임 집단은 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이 달라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인터뷰 조사 결과, 참여자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자조모임 목적과 과업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 참여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관리자에게는 자조모임에 대한 교육과 홍보, 위기개입, 자원개발 및 연계, 교육 및 상담 제공, 모임 공간 확보에 대한 역할이 요구됨.
- <표 V-1>은 이에 따른 개괄적인 자조모임 매뉴얼 구성(안)을 제시한 것임.
 - 관리자용 운영 매뉴얼은 참여자용 운영매뉴얼의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참여자용 운영 매뉴얼은 활동내용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함.

<표 V-1> 사회활동 욕구를 가진 예비노인세대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구성(안)>

구분	내용	
제1장	▪ 나를 소개해봅시다 ▪ 자조모임이란 무엇일까요? ▪ 자조모임 리더 정하기	▪ 자조모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자조모임 구성하기 ▪ 규칙정하기
제2장	▪ 자원봉사활동 대상 정하기 ▪ 실시횟수와 활동 준비기간 정하기 ▪ 자조모임과 자원봉사활동의 비율 정하기	▪ 활동내용(프로그램) 정하기 ▪ 세부활동 계획하기
제3장	▪ 서비스대상자 이해하기 ▪ 운영일지 작성하기 ▪ 건강하게 의사소통하기	▪ 갈등해결하기 ▪ 자조모임 평가하기 ▪ 온라인에서 모임하기

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세부내용

1) 자조모임 구성 전 개입

- 제3장 및 제4장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라 자조모임은 모임의 참여 목적에 따라 달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 참여 후 자조모임을 형성하는 것을 계획했다면, 교육 초기 및 과정 중에 교육 종료 후 자조모임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참여자가 교육과정 중에 모임으로 발전하고 싶은 구성원을 탐색할 수 있으며, 이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됨.

- 자조모임이 자원봉사활동이나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참여자들의 동의와 자발적 활동에 근거한 것임을 알림.
- 이미 형성된 자조모임이 있을 경우 자조모임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음.
- 자조모임 담당자의 역할(조력자)과 자조모임 구성 시 제공되는 혜택(공간, 물품사용 및 수당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어야 함.
- 각 교육과정마다 참여자 대표를 선출하고, 적당한 활동(출석처리, 강사 및 직원으로부터의 공지사항 전달 등)을 제공한다면 자조모임의 리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음.
- 관리자는 향후 원활한 자조모임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참관하거나 참여자 대표와의 회의를 통해 집단의 분위기와 특이사항을 보이는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음.

2) 성공적인 시작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 자조모임이 조직되고 처음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조모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구조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운영 매뉴얼을 제작함.
- 세부적인 내용은 각 장의 제목(음영 표시)과 이에 따른 관리자용, 참여자용 내용을 <표 V-2>에 제시하였음.
 - 관리자용과 참여자용에게 모두 포함되는 내용은 공통으로 표시되었음.
- 각 구분은 임의의 구분이며, 운영 매뉴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하면서 합쳐지거나 나누어질 수 있으며, 제1장과 제2장의 경우 가급적 초기 3회차 이내 매뉴얼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함.
- 제3장의 내용 중 일부는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순서를 지켜 매뉴얼을 활용하기보다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일부 활동은 준비물 및 부록 등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관리자 및 리더는 전반적인 내용을 자조모임 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작성된 운영 매뉴얼은 현장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현장실무자 5인 및 참여자 4인에게 초안을 검토를 받았으며,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결과임. 이후 다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받았음.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

구분	들어가며
관리 사용	- 관리자용 매뉴얼은 자조모임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난 뒤, 초기 자조모임 진행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참여자용 매뉴얼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기는 자조모임의 구성 초창기로, 자조모임 구성원들이 자조모임에 대해 가진 기대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주제로 모임을 진행할지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운영 매뉴얼은 자조모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조모임의 정의와 기능을 알려줍니다. 자조모임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모임의 활동은 온전히 구성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교육과정 중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원들을 잘 모르거나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구성원도 집단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친밀해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모임의 진행이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면, 구성원 스스로가 모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리자는 더 이상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자조모임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개입하게 됩니다.
참여 사용	- 본 매뉴얼은 처음 자조모임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운영 중에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매뉴얼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조모임에 잘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자조모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임의 목표와 규칙을 정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2장에서는 자조모임과 자원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 자조모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활동내용을 정하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을 때, 다시 2장으로 돌아와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3장에서는 모임을 진행하면서 운영일지를 작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운영일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자조모임의 활동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자조모임이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각각의 장은 한 번씩의 모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제1장의 내용은 한 번의 모임에서 모두 수행할 수도 있고, 다음 모임에서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1장의 구성
공통	나를 소개해봅시다→자조모임이란 무엇일까요?→자조모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자조모임 구성하기→규칙 정하기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제1장 자조모임에 대한 이해 나를 소개해봅시다
관리 자용	▪ 누구나 첫 만남의 자리는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첫 모임에서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 첫 모임에서 관리자는 자조모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성원 상호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합니다. ▪ 효과적으로 첫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관리자는 간단한 다과 및 필기구 등을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 서로 돌아가며 각자의 이름을 소개한 뒤,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레크리에이션(ice breaking recreation)을 활용하여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 아이스 브레이킹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질문카드, 그림으로 소개하기, 달팽이와 안내자, 이심전심, 합동화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집단의 특성(활동성 및 적극성)에 따라 정적인 활동에서 동적인 활동(질문카드-그림으로 소개하기-합동화-달팽이와 안내자-이심전심)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중 준비물이 필요한 활동은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 경우 미리 다른 색깔로 포장된 초콜릿/캔디를 준비하여 자조모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달합니다. ▪ 활동별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카드: 1인별 캔디 5색 이상, 캔디 색에 맞춘 질문카드 5장 이상 ▪ 그림으로 소개하기: 다양한 사진(태양, 달, 나무, 동물, 풍경 등) 1인당 3장 이상 ▪ 합동화: 3-5인당(1개조) A2 용지 또는 4절지 1매, 조별 크레용 1개 ▪ 달팽이와 안내자: 달팽이 그림 및 볼펜 2인 1개, 눈가리개용 손수건(안대 등) ▪ 이심전심: 주제어 카드 15개, 기념품 2개
참여 자용	▪ 누구나 첫 만남의 자리는 긴장되고 불편합니다. 구성원들은 모두 교육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했지만,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교류하였거나 반면 서로 말 한 마디 나누어보지 않은 사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진행자를 한 사람 정합니다. 센터의 사업담당자가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모임의 리더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 일찍 도착한 사람이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기분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야기 해 봅시다. 진행자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이야기 하면 됩니다. ▪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을 확인하였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를 알기 위해 질문지를 활용하여 돌아가며 이야기 해 봅시다. ▪ 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레크리에이션(ice breaking recreation)이 있습니다. ▪ 다음의 5가지의 아이스 브레이킹 레크리에이션 방법 외에도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아이스 브레이킹 레크리에이션(ice breaking recreation)	
공통	질문캔디	
	준비물	대여섯개의 색깔로 포장된 캔디(또는 초콜릿)와 동일한 색깔의 질문카드(각 5-6장)
	질문 카드 내용	“자조모임에 참여한 느낌이 어떨까요?”, “자조모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특기나 취미는 무엇인가요?”, “성격은 어떨까요?” 등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질문을 적어놓습니다. 이때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진행방법	1. 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다섯 색깔로 포장된 캔디를 색깔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나누어 줍니다. - 적어도 집단의 50% 이상이 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지가 5장이고 구성원이 10명이라면, 색깔별로 5개 이상의 동일한 색상의 캔디가 준비되어야 합니다(초록색 카드 1장, 초록색 포장의 캔디 5개 이상). 2. 진행자는 질문 카드를 한 장씩 뽑고, 질문 카드의 색깔과 같은 색깔의 초콜릿 또는 캔디를 가진 참여자들은 카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림으로 자기 소개하기	
	준비물	1인당 사진 3매가 돌아가도록 인원수의 3배수 이상인 사진(동물, 풍경, 사물 등)
	진행방법	1. 태양, 달, 나무, 사물, 동물, 풍경 등 다양한 사진을 준비하고 어떤 사진이 준비되었는지 한 번 훑어봅니다. 2. 다양한 사진 중 한 사람당 3가지의 사진을 선택합니다. 3. 3가지를 고른 이유와 사진 속 내용과 관계되는 추억을 이야기 해 봅니다.
	합동화	
	준비물	조별당 A2 또는 4절지 1매, 크레용 1세트
	진행방법	1. 하나의 조에 3명 이상 5명 이하가 되도록 전체 인원을 나눕니다. 진행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집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2. 각 조원별로 한 가지 색의 크레용을 선택하고, 그림을 그릴 순서를 정한 후 돌아가며 그림을 그립니다. 3. 처음에는 1인당 20초, 한 번 전체 인원이 그림을 그린 후에는 15초, 그 이후 10초 씩 줄여갑니다. 4. 그림이 완성되면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며 이야기 하고, 작품에 이름을 붙입니다. 5. 모든 조가 그림을 완성하면 각 조별로 발표합니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아이스 브레이킹 레크리에이션(ice breaking recr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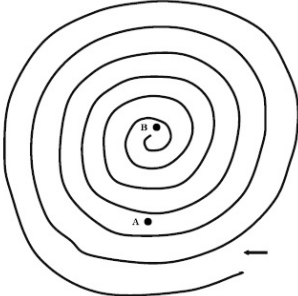
공통

달팽이와 안내자

준비물

2인당 달팽이 그림 1장 및 볼펜 1개, 눈가리개용 손수건

달팽이 그림



진행방법

1. 진행자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2인 짝을 이룹니다.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달팽이, 왼쪽에 앉은 사람은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2. 달팽이는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볼펜을 달팽이 그림 진입 화살표에 대고 선을 따라갈 준비를 합니다.

3. 안내자는 볼펜이 달팽이 그림의 선에 닿지 않도록 달팽이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구두로 안내하고, 안내자가 말하는 방향에 따라 달팽이는 선을 그으면서 A지점까지 선을 그리면서 도달합니다.

4. A지점에서 안내자는 달팽이 역할로, 달팽이는 안내자 역할로 교대합니다.

5. 안내가 끝나면 모두 함께 각자 자기의 경험과 상대방을 안내했던 경험에 대해 말하고 느낌이나 소감을 나눕니다.

이심전심

준비물

주제어 카드 15매, 기념품 2개

주제어 카드

짜장 vs 짬뽕, 콜라 vs 사이다, 고래 vs 상어, 강아지 vs 고양이

여름 vs 겨울, 순대 vs 떡볶이, 소주 vs 맥주, 마트 vs 시장

비행기 vs 배, 사과 vs 배, 대추 vs 밤, (탕수육) 부먹 vs 짬뽕

부추전 vs 김치전, 축구 vs 야구, 유재석 vs 강호동

진행방법

1.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뜻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2. 이심전심 게임은 진행자가 각 주제어를 제시하고 숫자를 1에서 3까지 세는 동안 팀원과 함께 두 제시어 중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3. 진행자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두 사람씩 짝을 이룹니다. 집단이 홀수 인 경우 3인 팀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4. 각 팀당 총 5개의 주제어를 제시하여, 이 중 가장 많이 맞힌 팀에게 준비된 기념품을 줍니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자조모임의 리더 정하기	
관리 자용	- 리더는 전체 일정을 조율하고 기관과 모임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직원이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자조모임의 정의와 효과까지 리더가 아닌 직원이 진행하고, 이후 자조모임 구성 이후 과정부터 리더가 전체 자조모임을 리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조모임 형성 전의 교육과정에서 모임의 리더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리더가 자조모임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공식화합니다.	
참여 자용	- 자조모임을 조율하고, 구성원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리더를 선발하면 모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모임의 리더를 선발하여 봅시다.	
구분	자조모임이란 무엇일까요?	
공통	OX퀴즈	
	1. 자조모임은 치료모임이다.	O, X
	2. 자조모임은 토론모임이다.	O, X
	3. 자조모임은 스터디모임이다.	O, X
	4. 자조모임은 사회적 집단이다.	O, X
	정답(퀴즈 후 별도의 종이로 제공)	
공통	1. X	전문가가 주도하여 개개인의 심리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훈련하는 모임을 치료모임이라고 하며 이는 비전문가가 주축이 되는 자조모임과 차이가 있다. 치료모임은 아니지만 자조모임을 통해 치료 될 수는 있다.
	2. X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거나 주제에 대한 신념을 주장하는 토론모임이 아니다.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다.
	3. X	자조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교육은 일부 과정이고 그 주목적이 될 수 없다.
	4. X	자조모임과 별도로 각자가 스스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자조모임과는 별개의 모임이다.
(출처: Miller, 1998, 재인용 태화샘솟는집, 2017)		
- 자조모임이란? - 공통의 문제나 욕구를 가진 비전문가들이 하나의 그룹 또는 단체를 형성하여 상당기간 동안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자원을 교환하고 조직한 자발적인 연합회이다.(출처: 이철수, 2013)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자조모임이란 무엇일까요?
관리 사용	▪ 자조모임이 단순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 줍니다. ▪ 앞서 아이스 브레이킹 레크리에이션에서 참여한 목적에 대해 질문하였다면, 그 답변과 구성원들이 자조모임에 대해 내린 정의를 비교하여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발적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자 중요함을 주지시킵니다.
참여 사용	▪ 여러분은 자조모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조모임은 _____이다. ※ 자조모임을 먼저 시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자조모임은 함께 배우고, 자원봉사 하는 곳이다.’ ‘자조모임은 나의 재능을 찾는 곳이다.’ ‘자조모임은 사회활동을 돕는 모임이다.’ ▪ 다른 구성원과 내가 생각한 정의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구분	자조모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공통	▪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다음의 5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사회참여 활동을 원하는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 둘째, 같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셋째, 유사한 인생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동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넷째,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과 상호작용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관리 사용	▪ 아이스 브레이킹 레크리에이션에서 자조모임에 대한 기대를 다루었더라도, 보다 구체적으로 모임에 대한 기대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구성원 간 기대가 서로 다를 경우 모임에서 기대가 모두 충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시간을 제공합니다.
참여 사용	▪ 여러분은 자조모임 참여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 다른 구성원과 내가 생각한 기대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자조모임 구성하기
공통	▪ 자조모임의 구성 ▪ 모임의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모임의 성향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 기준 ▪ 모임은 구성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역, 성별, 나이, 관심사 등 자조모임 구성원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같이 지역에 살더라도 관심사가 다르거나 나이 차이가 크게 날 경우 모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자조모임의 크기 ▪ 참여자들은 모임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때론 주요한 내용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집단 규모가 크면 클수록 모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모임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모임 크기가 중요합니다. 집단 기준으로 볼 때, 자조모임의 적정 인원은 8명-12명이나 자조모임 참여자들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용	▪ 모임의 주제와 형식은 모임의 크기와 지속성 등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성원들이 자조모임의 구성과 참여자 기준에 대해 이야기 할 동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 구성원에 대한 비난이 되지 않도록 중재합니다. ▪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진 경우, 서로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고, 논의된 노력들은 이후 모임 규칙을 정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자조모임의 크기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모임 구성원을 추가로 모집할 것인지, 혹은 현 구성원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모집할 경우 추천제, 다음 교육 기수의 유입, 홍보 등 방법론적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인원을 제외할 경우 이후 모임의 규칙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 사용	▪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여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 우리 자조모임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 나의 기준과 우리 자조모임의 수준 차이가 크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자조모임 참여자의 적정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거나 부족한 인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자조모임 구성하기
공통	- 모임의 횟수 - 모임의 성격에 따라 얼마나 자주 모이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모임 간격이 너무 짧으면 참여자들이 시간을 내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모임 간격이 너무 긴 경우 참여자들 간에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고 결국 모임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모임시간 - 모임 진행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너무 일찍 만나거나 너무 늦게 만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대 또는 주말에 만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 참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조율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 또한, 시작 시각과 마치는 시각을 정해서 실제 모임에 적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모임장소 - 모임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모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 모든 참여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이면 좋습니다.
관리 자용	- 모임의 구성은 관리자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만 특정 구성원이 지나치게 자신의 일정에 맞는 의견을 내세우거나 충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관리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 모임의 장소가 센터가 될 경우 이용가능여부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합의한 모임 날짜에 장소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여 자용	한 달에 몇 회 정도 모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한 달에 어떤 요일, 몇 시에 만나는 것이 좋은가요?
	모임 시간을 몇 분정도로 예상합니까?
	서로 희망하는 구성이 다르다면 왜 그렇게 만나는 것이 필요한지 서로를 설득하여 모임횟수를 조율합니다.
	정해진 모임 구성 월 ____회 ____요일 ____시부터 ____시까지 _____에서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자조모임 구성하기						
공통	- 모임의 목표 - 자조모임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1년,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단기적 목표는 3-6개월 정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목표가 현실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판단하고 일 년에 한두 차례 자조모임의 목적에 대해 참여자들과 토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참여자가 변화에 동의하면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용	- 모임의 목표는 구성원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단기적 목표를 세울 때는 장기적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숫자와 용어를 사용하여 이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임 초기에 세운 목표는 연1회 또는 반기마다 목표의 달성을 검토하고, 목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울 것인지 또는 유지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 사용	-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봅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장기적 목표</td><td></td></tr> <tr> <td>단기적 목표</td><td></td></tr> </table> 예를 들어, - 장기적 목표: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나눔을 실천한다. - 단기적 목표: 4월 전까지 배운 기술을 6회기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1개 이상의 노인복지관에 월 1회 자원봉사를 다닌다.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구분	규칙 정하기						
공통	- 모임규칙 - 첫 모임에서 규칙 설정은 자조모임 참여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참여자의 대다수 동의를 받아 최종적인 규칙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모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조모임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의 6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비밀유지</td><td style="width: 50%;">책임성</td></tr> <tr> <td>공동체 의식</td><td>규칙성</td></tr> <tr> <td>지율성</td><td>시간엄수</td></tr> </table>	비밀유지	책임성	공동체 의식	규칙성	지율성	시간엄수
비밀유지	책임성						
공동체 의식	규칙성						
지율성	시간엄수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규칙 정하기
공통	▪ 비밀유지 ▪ 모임에서 나누었던 개인적인 영역의 이야기는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뢰는 참여자 관계에서 형성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모임이 결정됩니다. ▪ 공동체 의식 ▪ 참여자의 욕구와 문제는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임 중의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자율성 ▪ 참여자들은 의식적으로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책임성 ▪ 모든 참여자는 자신과 자조모임을 위해 책임성을 가져야 합니다. ▪ 다른 참여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혹여나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 규칙성 ▪ 자조모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참여자들과 서로 알아갈 기회가 생기고, 공동체감이 형성됩니다. ▪ 시간엄수 ▪ 자조모임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만약 다른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 미리 전달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관리 자용	▪ 참여자 기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관련지어 중요한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규칙은 왜 중요한지, 다른 구성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 제시된 규칙 이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중요한 규칙이 정해졌다면, 이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지 구성원 간 논의합니다. ▪ 이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만약 참여자 수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거나 참석이 불량한 참여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관리 규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과비나 재료비 등의 회비관리에 대한 규칙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특정인이 다른 구성원의 발언을 조종하려 하는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규칙 정하기
참여 자용	여러분은 6가지 규칙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자조모임의 공동 규칙을 만들어봅시다.
	예시_공통된 기본규칙 - 우리는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한다. - 공유된 개인적인 일 일체는 비밀을 유지한다. - 한 사람이 한 번씩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 어느 종류의 감정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다. - 한 사람이 모임 시간을 독점하지 못한다. - 우리는 서로에게 조언(혹은 비난, 과소평가)을 하지 않는다. (출처: Miller, 1998, 재인용 태화샘솟는집, 2017)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규칙 정하기												
공통	- 모두가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좋지만, 모임을 진행하다보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구성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벌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벌점을 부여한다면 어떠한 벌점을 매길 수 있을까요? ※ 다른 자조모임에서는 벌점을 부여한 예시를 볼까요? - 불참이 2회 이하인 경우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모임에서 제명한다. - 모임에서 과도한 언행, 부적절한 행위(음주 후 참여 등), 비방 등을 심하게 하여 리더에게 과반수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경고 1회 후 구성원 투표에 따라 모임에서 제명한다.												
구분	모임 이름 정하기												
공통	- 우리 모임의 목표와 규칙을 정했다면 우리만의 모임이름을 지어봅시다. - 우리가 생각하는 모임이름 후보를 적어봅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50%;">모임명</th><th style="width: 50%;">제안이유</th></tr> </thead> <tbody>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r><td> </td><td> </td></tr> </tbody> </table> -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임 이름은 무엇인가요?	모임명	제안이유										
모임명	제안이유												
구분	제2장(자원봉사활동 구체화하기)의 구성												
공통	자원봉사활동 대상 정하기→실시 횟수와 활동 준비기간 정하기→자조모임과 자원봉사활동의 비율 정하기→활동내용(프로그램) 정하기→세부활동 계획하기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자원봉사활동 대상 정하기				
관리 사용	▪ 자조모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자조모임의 기본적인 운영은 수료한 교육내용을 보충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자조모임 구성원과 활동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의 대상과 영역에 대한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율이 잘 되지 않을 경우 2개 팀(4-5명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대상과 방문하고 싶은 기관이 정해지면, 지역과 교통편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기관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 하지만, 그 전에 자원봉사활동처에 대한 지리적 정보에 대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처가 차량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위치이거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경우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여 사용	▪ 여러분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정해봅시다. ▪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조모임은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먼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싶은 대상을 정해봅시다. ▪ 대상은 인구집단과 활동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 인구집단: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인구집단을 정하고 난 뒤, 세부적인 인구집단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노인-일반 노인, 치매 노인, 장애를 가진 노인 등 ▪ 영역: 방문하고 싶은 기관을 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				
	<table><tr><td>집단</td><td></td></tr><tr><td>영역</td><td></td></tr></table>	집단		영역	
	집단				
영역					
▪ 위 대상과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또한 우리가 배운 교육 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기관의 위치를 정하는 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 군구 또는 교통편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봅시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실시 횟수와 활동 준비기간 정하기
관리 자용	▪ 자원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진행할지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45분, 1시간, 1시간 30분 등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교육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봉사시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교실에서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수업시간인 45분이 적당할 수 있습니다.
참여 자용	▪ 자원봉사활동 시간과 이에 따른 사전준비기간, 횟수를 정해봅시다. ▪ 교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몇 분이 적당할까요? ▪ 교육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몇 회기의 자원봉사활동이 적당할까요? ▪ 위에서 정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기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 사전 준비기간 동안에는 회기의 내용과 준비물, 실행 연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자조모임과 자원봉사활동의 비율 정하기
공통	▪ 자조모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구성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구성 비율은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후 자원봉사활동으로만 자조모임 진행하기 예) 준비 5회기 이후 자원봉사활동 2. 자원봉사활동 외 모임(교육, 토론 등)과 자원봉사활동을 번갈아가며 진행하기 예) 준비 5회기, 사전모임 1회기, 자원봉사활동 1회기, 사전모임 1회기, 자원봉사활동 1회기... 3. 자원봉사활동은 연말에 한 번 또는 한 달만 하기 예) 준비 9회기, 자원봉사활동 4회기, 사후모임 1회기 ▪ 이 외에도 다양한 구성 비율을 고려해 봅시다.
참여 자용	▪ 우리 자조모임에서 적당한 자원봉사활동 구성 비율은 어떠한가요?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활동내용(프로그램) 정하기

관리
사용

- 앞서 정한 자원봉사활동 횟수에 맞춰 대략적인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내용 정하기는 ‘제3장 성공적인 자조모임을 위하여’를 진행하고 다시 돌아와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자조모임이 수행되는 동안 자조모임의 상황이나 활동처의 상황에 따라 활동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조모임 구성원들은 활동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활동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간에 보수교육을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본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도록 합니다.
- 본 항에서는 대략적인 활동내용을 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준비기간 동안 정하면 됩니다.
- 미리 각 활동내용에 대한 리더(회기별 리더)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기별 리더는 자조모임 전 활동내용을 사전에 대략적으로 준비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내용을 다듬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 자조모임에 배정된 예산이 있다면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준비물, 비용, 업무 등을 미리 고지하여 줍니다.

참여
사용

- 자원봉사활동 준비 횟수와 활동내용이 정해졌으면, 대략적인 회차 주제를 정해봅니다. 아래의 표는 회차에 따라 칸을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고, 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하여도 좋습니다.
- 각 회차별로 담당자를 정하면 자조모임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차의 담당자는 미리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거나 진행내용을 구성하여 올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재료 및 작업(인쇄 등)을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차	내용	준비기간	담당
(예시)	나들이에 대한 추억 나누기 〈조르주 쇠라〉 그림 모작하기	1주	김OO
1			
2			
3			
4			
...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세부활동 계획하기

공통

주제

나들이에 대한 추억 나누기

목적

가장 즐거웠던 나들이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향상 돕기

준비물

이미 있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것: 색연필 5세트

새롭게 구매하거나 만들어야 하는 것: 4절 종이 10매, <조르주 쇠라>의 <그랑지트 섬의 일요일 오후> 그림과 관련 이야기 준비

활동내용 (50분)

시간

내용

2분

안부 묻기, 오늘 참여한 사람들 소개하기

5분

<조르주 쇠라> 소개하기

<그랑지트 섬의 일요일 오후> 소개하기

15분

자원봉사자와 어르신이 짝짓기, 재료 나누어주기

그룹별로 그림 그리기

20분

그림에 대한 소개와 그에 얹힌 추억 나누기

나들이와 관련된 노래 같이 부르기

5분

오늘 활동에 대한 소감 나누기

3분

다음 활동 안내하기

정리하기

관리
자용

세부활동 계획하기는 자원봉사 전 준비기간 동안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교육중심의 자조모임은 이 과정을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성원의 선행 경험이나 능력, 자질에 따라 세부활동 계획을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교육과정의 회차 내용을 제안하거나, 관리자가 회차 내용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구성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활동내용이 완성되면 이를 편철하여 책자형식으로 만들어 제공한다면 참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준비할 때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제3장(성공적인 자조모임을 위하여)의 구성
공통	(관리자용)자원봉사활동처와 연결하기→서비스 대상자 이해하기→운영일지 작성하기→건강하게 의사소통하기→갈등 해결하기→자조모임 평가하기
구분	자원봉사활동처와 연결하기
관리 사용	- 활동내용이 정해지고 자조모임 구성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준비를 할 동안 관리자는 활동처를 모집합니다. - 진행할 주제, 회기 수, 회당 진행시간, 희망하는 요일과 시간, 자원봉사자의 수 등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활동처에서 이용자의 수, 특성, 활동 관련 행정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자조모임에 전달하여 줍니다. - 만약 활동처와 논의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활동처가 위치한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하여 줍니다.
구분	서비스 대상자 이해하기
공통	- 서비스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면 이로 인해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활동이 무엇인지, 아동과 다문화여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언어수준이 어떠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처가 정해지면 활동처의 이용자 특성에 대해 논의하여 봅시다.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관리 사용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이해는 활동내용(프로그램) 정하기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즉 관리자는 자원봉사활동 실시횟수와 활동처를 정하고 나면, 자원봉사활동처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특성을 듣고, 활동내용(프로그램) 정하기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좋습니다. - 만약 활동처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지연되었다면, 세부활동 정하기 단계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 및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에는 활동처 담당자로부터의 오리엔테이션이나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대상자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운영일지 작성하기

공통

자조모임 운영 일지

자조모임 운영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모임이 목적과 목표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모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안건이 제시되었고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중복된 활동이나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일지 작성의 예

일시	21년 00월 00일(0요일), 00시 00분 - 00시 00분	
참여자	김○○, 서○○, 이○○, 이○○, 박○○, 황○○ 총 6명	
목표	자원봉사 활동 진행과정을 점검한다.	
진행과정	초기 단계	*친밀감 형성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일상생활 경험 나누기 레크레이션: 369게임(활동처에 가서 오프닝 때 할 것)
	중기 단계	*자조모임 주요 활동 -지난 활동 평가 : 5명이 가기로 했는데 4명이 와서 다소 힘들었음 : 모래뿌리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음 -다음회기 활동 연습 : 담당 박○○의 진행 하에 콜라주 진행 익히기 : 프로그램 수정
	종결 단계	* 활동 소감 나누기 -박○○씨가 준비를 열심히 해 온 것 같아 고맙다 -다음 주 재료 준비를 못할 것 같아 걱정된다. 담당 선생님한테 물품을 사 줄 수 있는지 리더가 확인해주면 좋겠다
다음 모임 일정	○월 ○일 활동처에서 3시에 만나기	

관리
자용

자조모임 운영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조모임 운영에 대한 예산 및 물적 지원이 있는 경우 운영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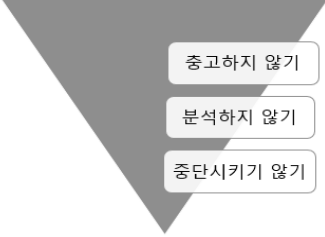
이를 통해 참여자의 출결사항이나 진행상의 어려움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어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영일지는 모임 리더에게 미리 책자로 작성하여 전달할 수도 있고, 모임 때마다 한 장씩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운영일지 작성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양식을 적용한 게시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센터에서 모임을 가지지 않는 경우 온라인상으로 보고가 가능한 형식이 보다 용이합니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건강하게 의사소통하기
공통	-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 -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조모임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원활하게 의견을 나누고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다른 사람과 잘 대화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기억하세요! 1단계 관심갖기 - 관심은 상대방에게 곁에 함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5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 부드러운 시선을 접촉합니다. 둘, 온화한 미소를 보냅니다. 셋, 고개를 끄덕입니다. 넷, 간단한 응대의 말을 합니다. 다섯, 편안한 자세로 대화합니다. 2단계 경청하기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 귀로 소리를 듣고 내용과 의도를 파악합니다. 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듣고 감정을 파악합니다. 3단계 공감하기 - 공감은 나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예요.”라기 반응하기보다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들어보시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단계 되묻기 - 되물어 보는 것은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자신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므로 한층 더 명확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말한 내용은 ~ 뜻이군요.”라며 되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건강하게 의사소통하기
공통	▪ 의사소통 할 때 주의할 점 ▪ 때론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충고하는 것, 나의 판단대로 분석하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을 중단시키는 것은 원활한 대화를 방해합니다. ▪ 대화할 때 다음 3가지는 하지 말기로 해요!  ▪ 충고하지 않기 ▪ 참여자가 자신의 문제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조언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분석하지 않기 ▪ 참여자의 자기만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다른 참여자의 분석이나 해석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참여자가 대다수 참여자와 다른 감정을 이야기할 때 “당신이 안 좋게 생각하니깐 그렇게 느끼는 거야.” 또는 “어릴 때 안 좋은 경험이 있었구만. 그러니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등 분석적인 태도로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 중단시키지 않기 ▪ 참여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말할 때 중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깊게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 모임의 내용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한다면, 모임 주제를 다시 설명하고, 주제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리 자용	▪ 의사소통교육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집단의 갈등을 예방하고 토론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자조모임 초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기에 의사소통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충고하기, 분석하기, 중단시키기에 대한 벌점을 참여자가 스스로 매겨보고, 몇 회기간의 점수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향후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점수가 유지되거나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또는 집단 내 갈등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 자조모임 중간에 외부강사를 통해 의사소통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갈등해결하기
공통	▪ 갈등 해결방법 ▪ 갈등과 긴장은 참여자 개인뿐만 아니라 모임 전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왜 갈등이 생기는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확인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참여자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도울 수 있습니다. ▪ 참여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찌죠? ▪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또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이 생기기 나름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모임이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갈등이 생긴다면, ▪ 주저하지 않고, 운영자에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다면 참여자 모두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을 서로 회피하고, 해결을 위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 모임의 위기를 경험할 있습니다. ▪ 이때 서로 비난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처를 주지 않고 해결방법을 찾습니다. ▪ 갈등 해결을 위해 조치해야 할 행동을 제안하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변화를 위해 서로 노력합니다.
관리 사용	▪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의사소통교육을 모임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이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담당직원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고지하여 줍니다. ▪ 담당직원은 갈등의 핵심이 되는 참여자를 개별 면담할 수 있고, 상담사를 연결하여 줄 수 있습니다.
구분	자조모임 평가
관리 사용	▪ 자조모임의 평가는 활동일지를 통해 각 회기의 평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자조모임 중간이나 연말에 전체적인 자조모임 활동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평가의 목적은 모임의 효과성이나 자조모임 사업의 성공을 측정하는 것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평가의 결과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난 항목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조모임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된다'에 대한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하여 유독 낮다면, 의사소통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각 모임회기 마다 평가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임에 따른 구성원들의 만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자조모임 평가				
공통	- 자조모임 평가 - 자조모임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참여자들이 자조모임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함께 평가지를 작성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간단한 자가점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자조모임 Check! Check! “당신은 자조모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번호	설문 내용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1	나는 자조모임에 참여하면 편안하다.			
	2	나는 자조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3	나는 자조모임 참여자들과 친밀하다.			
	4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조모임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5	자조모임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6	자조모임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된다.			
	7	나는 자조모임을 신뢰한다.			
	8	자조모임에서 참여자의 역할이 잘 분배되어 있다.			
	9	나는 자조모임에서 영향력이 있다.			
	10	모든 참여자는 동등하게 의사표현을 한다.			

〈표 V-2〉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내용(계속)

구분	온라인에서 모임하기
공통	▪ 코로나19와 같이 대면으로 모임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 줌(Zoom) ▪ 줌은 휴대전화와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PC를 활용할 경우 마이크, 화면 등 여러 가지 설정이 필요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 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줌은 그룹회의를 40분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40분 이내로 진행한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회의 ▪ 카카오톡으로 자조모임 그룹채팅방이 있는 경우 하단의 설정에서 라이브톡 기능을 통해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은 현재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SNS로, 줌보다 접근성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 함께 하기 ▪ 자조모임을 5명 이하의 그룹으로 나누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강의실에 소규모 모임을 실시합니다. ▪ 모든 참여자가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면, 줌이나 카카오톡 회의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전체가 모입니다. 이 때 개인별로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즉 소규모 그룹끼리 한 공간에 모여 의사소통하면서, 전체 자조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릴레이 소규모 모임하기 ▪ 온라인 모임과 병행하여 대면 모임을 보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염병을 예방하면서 대면모임을 통해 정보 교류 이상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5명 이내의 소규모로 1차 모임에 참여하고, 1차 모임에 참여한 2명 정도의 인원이 1차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3명과 2차 모임을 실시합니다. ▪ 이러한 식으로 모임의 모든 인원이 중복되게 만날 수 있도록 릴레이로 소규모 모임을 진행합니다.
관리 사용	▪ 관리자는 각 어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거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같이 설치하고 이용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임을 중단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합니다.

- 제안한 매뉴얼은 관리자용과 참여자용으로 각각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대한 예시는 [그림 V-2]와 같음.

[그림 V-2] 참여자용 매뉴얼 예시

구분	자조모임이란 무엇일까요?																
	• O/X퀴즈 <table border="1"> <tr> <td>1. 자조모임은 치료모임이다.</td> <td>O X</td> </tr> <tr> <td>2. 자조모임은 토론모임이다.</td> <td>O X</td> </tr> <tr> <td>3. 자조모임은 스테디모임이다.</td> <td>O X</td> </tr> <tr> <td>4. 자조모임은 사회적 집단이다.</td> <td>O X</td> </tr> </table> • 정답(퀴즈 후 별도의 종이로 제공) <table border="1"> <tr> <td>1. X</td> <td>선택지가 주어져 참가자의 성격적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해결안이 주어져 모든 자조모임과 다르게 된다. 자조모임은 아닌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할 수 있다.</td> </tr> <tr> <td>2. X</td> <td>자신의 생각과 필요하거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모임이 아니다.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이 나 개개인으로 참여하여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다.</td> </tr> <tr> <td>3. X</td> <td>자조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고정된 일과 과정이 없고 주체적이지 않다.</td> </tr> <tr> <td>4. X</td> <td>자조모임과 별도로 각자가 스스로 사회적 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한 자조모임과는 별개의 모임이다.</td> </tr> </table> 출처: Effective Support Groups, 1998; 자신을 뽐낼수록, 2017)	1. 자조모임은 치료모임이다.	O X	2. 자조모임은 토론모임이다.	O X	3. 자조모임은 스테디모임이다.	O X	4. 자조모임은 사회적 집단이다.	O X	1. X	선택지가 주어져 참가자의 성격적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해결안이 주어져 모든 자조모임과 다르게 된다. 자조모임은 아닌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할 수 있다.	2. X	자신의 생각과 필요하거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모임이 아니다.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이 나 개개인으로 참여하여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다.	3. X	자조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고정된 일과 과정이 없고 주체적이지 않다.	4. X	자조모임과 별도로 각자가 스스로 사회적 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한 자조모임과는 별개의 모임이다.
1. 자조모임은 치료모임이다.	O X																
2. 자조모임은 토론모임이다.	O X																
3. 자조모임은 스테디모임이다.	O X																
4. 자조모임은 사회적 집단이다.	O X																
1. X	선택지가 주어져 참가자의 성격적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따른 해결안이 주어져 모든 자조모임과 다르게 된다. 자조모임은 아닌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할 수 있다.																
2. X	자신의 생각과 필요하거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모임이 아니다.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이 나 개개인으로 참여하여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다.																
3. X	자조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고정된 일과 과정이 없고 주체적이지 않다.																
4. X	자조모임과 별도로 각자가 스스로 사회적 관계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한 자조모임과는 별개의 모임이다.																
관리 자료	• 자조모임이란? 공통의 문제나 욕구를 가진 비전문가들이 하나의 그룹 또는 단체를 형성하여 상당기간 동안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자신들이 발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자원을 교환하고 조율한 자발적인 연합회이다. 출처: 사회복지 분야서론 • 자조모임이 단순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이 있음을 알려 줍니다. • 앞서 아이스 브레이킹 워크숍에서 알려진 목적에 대해 질문하였다면, 그 질문과 구성원들이 자조모임에 대해 가진 [관점]을 비교하여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발적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주지시킵니다.																
참여 자료	• 여러분은 자조모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조모임은 _____입니다. • 자조모임을 먼저 시작할 것들의 의견을 물어볼까요? 자조모임은 '평생' 배우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곳이다. 자조모임은 '나와' 자신을 찾는 곳이다. 자조모임은 '사회생활'을 돕는 모임이다. • 다른 구성원과 내가 생각한 점의 차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제안 매뉴얼

자조모임이란 무엇일까요?

OX퀴즈

① 자조모임은 치료모임이다.	O X
② 자조모임은 토론모임이다.	O X
③ 자조모임은 스테디모임이다.	O X
④ 자조모임은 사회적 집단이다.	O X



출처: 대안교육신문(2017)

자조모임이란?

공통의 문제나 욕구를 가진 비전문가들이 하나의 그룹 또는 단체를 형성하여 상당기간 동안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자신들이 발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자원을 교환하기 위한 자발적인 연합회이다.

출처: 사회복지학개론

당신의 생각은?

자조모임이란 _____이다

※자조모임을 먼저 시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 자조모임은 함께 배우고, 자유행사하는 곳이다.

> 자조모임은 나의 재능을 찾는 곳이다.

> 자조모임은 사회활동을 돕는 모임이다.

[토론] 자조모임에 대한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나요?

편집 예시(참여자용)



VI.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정책적 제언
2. 결론

VI. 정책적 제언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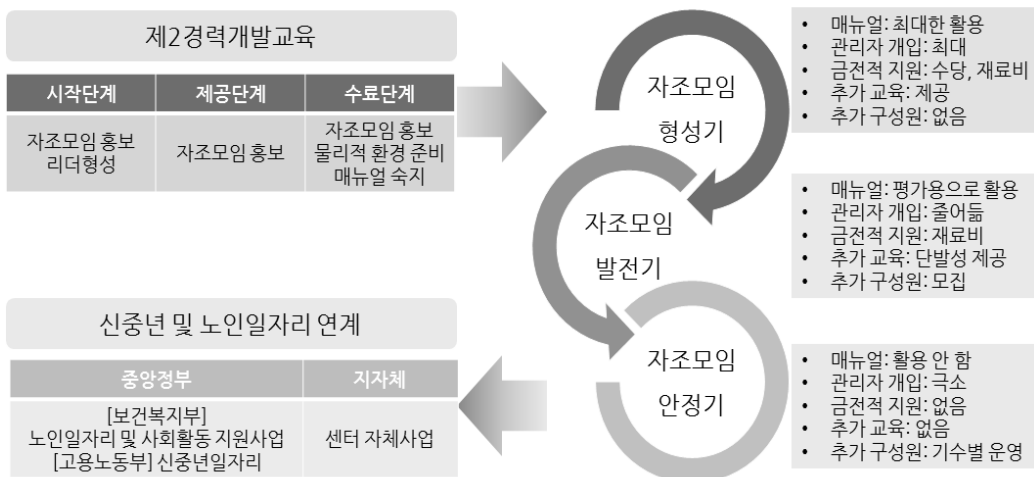
1. 정책적 제언

1) 교육 후 자조모임 운영 활성화

- 예비노인세대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에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제2경력개발교육을 포함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예비노인세대의 은퇴 후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의 확장활동으로 자조모임을 권장할 수 있음.
 - 교육참여자 외 동일한 욕구를 가진 집단을 모을 수 있으나,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
- 즉 동일한 욕구(사회활동 참여)를 가진 구성원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 수행)을 달성할 수 있게 돕는 활동으로써 자조모임을 제공하는데 기존의 형성된 집단(제2경력개발교육 등)을 활용하는 것임.
 - 교육을 실시하기 전 자조모임에 대해 알리고, 교육보조를 통한 집단 내 리더를 형성할 수 있음.
 - 자조모임에 대한 홍보는 교육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수료단계에 접어들면 자조모임을 실시하기 위해 관리자는 물리적 환경(장소, 비품 등)을 준비하고,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참여 후 자조모임 형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자조모임 운영에서 특히 중요한 단계임.
 - 모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모임발달을 위한 구성원, 전문가, 센터의 3자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5장에서 관리자용 및 참여자용 매뉴얼을 구성(안)을 제공하였음.
 - 이를 활용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팀워크를 형성하고 자조모임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초기 운영에서 기존에 집단 참여를 경험하지 못한 구성원들이 다수인 경우 전문가(관리자)의 개입은 필수적임.

- 관리자의 초기 개입이 어려운 경우, 리더에게 관리자용 매뉴얼을 배부하도록 함.
 - 관리자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집단 내 리더가 형성될 때까지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또한 금전적 지원 및 추가교육 지원 등 운영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자조모임은 자발적으로 운영되므로 최소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나, 앞서 [그림 V-1]에서 교육 후 자조모임 발전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형성기에는 교육 및 재료비 지원이 필요함.
 - 자조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단의 사례를 보면, 활동수당 등 활동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음.
- 자조모임이 안정된 이후에는 자조모임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거나 신중년 및 노인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음.
- 현재 공적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신중년일자리 사업이 있음.
 -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신중년일자리는 없으나, 현재 센터에서 실시하는 50+컨설턴트 사업과 같은 자체사업과 연계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VI-1]과 같음.

[그림 VI-1]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형



- 한편 기존의 취약계층이나 특정대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임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조모임 대신 이를 반영한 모임명을 사용한다면 집단응집성에 효과적일 것임.
- 모임명의 예: ‘50+ 사회공헌모임’, ‘50+ 학습모임’ 등

2) 경제활동 참여 기반 마련

- 자원봉사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은 다소 상이하였음.
 - 자원봉사활동은 심리적 요인의 영향이 크고, 경제활동은 소득과 관련된 영향이 큼.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후 자조모임 발전모형을 두 모형으로 나누면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후 경제활동 참여와 자조모임 병행 경제활동 참여 모형으로 제시하였음.
 - [그림 VI-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후 경제활동 참여는 공공일자리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자조모임 병행 경제활동 참여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것임.
 - 인터뷰조사 결과, 교육 전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가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들은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어린이집, 초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의 강의활동 시 도움을 받고자 자조모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음.
 - 교육생들은 프리랜서 활동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기관으로의 확장을 고려하기도 함.
 - 교육 수료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도움 또한 필요하다고 평가함.
- 따라서 교육수료 후 자조모임 병행 경제활동 참여 모형은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 강사가 주된 대상이 될 것임.
- 이와 같은 배경에서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는 인적자원 플랫폼을 통한 교육수료생에 대한 질적 담보와 관리라 할 수 있음.
- 이는 현재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재뱅크의 외현 확장의 측면으로, 인재뱅크 등록은 교육과 상관없이 신청자가 작성하고 등록정보는 센터 내부에서 확인 가능함.

- 반면 인적자원 플랫폼은 외부기관에서 관련 강사를 검색하거나 강사의 이력을 확인할 때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교육수료생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임.
- 이 때 모든 수료생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강의경험, 교육 수료 시 이해도 등을 바탕으로 직원 및 강사가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교육생이 강사로 활동할 때 질적 담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또한 장기적으로는 프리랜서인 수료생이 외부 활동 시 소속이 필요한 경우 ‘50+컨설턴트’와 같이 관련 활동가임을 명시할 수 있는 소속을 센터가 부여한다면 교육 및 자조모임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2. 결론

- 본 연구는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교육, 자원봉사활동 및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육 후 자조모임을 제공함으로써 예비노인세대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검토 및 현황분석, 메타분석,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 자조모임의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검토 및 현황분석을 실시함.
 - 각 사회활동의 참여요인 및 참여의사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함.
 -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조모임의 지속요인과 방해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 문헌검토 및 현황분석 결과, 자조모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여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가의 활동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국내외 자조모임은 장애인, 알코올 환자 등 취약한 집단뿐만 아니라 시민활동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기(既)발간된 매뉴얼은 주로 취약한 대상을 위해 제공되었음.
- 따라서 일반 시민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를 위한 자조모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신규 자조모임 매뉴얼이 요구됨.
- 자조모임, 자원봉사활동 및 경제활동의 참여여부 및 참여의사여부, 지속여부 등 참여 관련 메타분석 결과, 각 활동의 결정요인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자조모임의 지속요인은 가족의 지지와 참여 만족도가 유의미하였음.
- 자원봉사활동은 참여 전 단계, 참여 단계, 참여 후 단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동기요인, 만족요인, 사회적지지 등 심리적 요인은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 중 가족관계만족도, 삶의 만족도, 가구소득, 근로유무, 기부경험, 사회적 책임감, 단체참여여부, 단체참여정도, 대인관계만족도, 종교활동의 적극성,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봉사참여경험, 단체참여여부였음.
 -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사의 영향요인은 참여도, 사회적지지, 이기적 동기, 이타적 동기, 대의적 동기, 관리체계, 업무배치, 인정보상, 대상자 만족, 관리자 만족, 동료 만족, 성취 만족이었음.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이타적 동기, 이기적 동기, 업무인식도, 업무적절성, 기대합치도, 대상자관계, 동료관계, 담당자 관계, 교육훈련, 지도감독, 인정보상이었음.
- 경제활동참여는 자조모임이나 자원봉사활동과 달리 경제활동 요인의 영향력이 컸음.
- 경제활동 참여 영향요인 중 가구 내 지위, 배우자자 유무, 경제활동 여부, 소득, 직업훈련 유무와 성별이 유의미하였음.
- 경제활동 참여의사 영향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 소득, 거주지, 성별이 유의미하였음.
- 메타분석의 결과는 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조모임은 서로 개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자조모임과 자원봉사활동은 가족지지, 만족도 등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경제활동은 그렇지 못하였음.
 -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예비노인세대 및 노인세대는 별도의 개입이 요구됨.
- 교육참여자 인터뷰 조사 결과, 교육 종료단계에서 자조모임 형성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의 개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즉 자조모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심어주고, 모임발달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요구됨.
 - 모임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서 구성원은 내외부 자원을 인식하고, 모임의 목적 및 획득할 과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는 자조모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제공해야 함.
 - 모임발달을 위한 노력에서 구성원에게는 장기적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고, 전문가는 위기개입, 자원개발 및 연계,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센터(기관)는 모임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문헌검토 및 현황분석, 메타분석, 인터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조모임 발전모형으로

교육수료 → 자조모임 참여(교육+자원봉사활동) → 경제활동 참여의 선형적 모형을 제시하였음.

- 이 중 자조모임 참여에 대한 매뉴얼이 요구되어, 자조모임 초기 단계에 초점을 둔 관리자(전문가)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각각의 매뉴얼을 개발함.
 - 관리자용 매뉴얼은 참여자용 매뉴얼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조모임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참여자용 매뉴얼은 자조모임의 이해, 자조모임의 운영방법, 주요 내용 결정, 자조모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마지막으로 자조모임을 활용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는데 돕고자 교육 후 자조모임 운영활성화와 경제활동 참여 기반 마련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였음.
 -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조모임 및 자원봉사활동-일자리 연계에 관한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운영 과정에서 관리자 및 기관의 지원이 요구됨.
 - 프리랜서 활동을 중심으로 본 경제활동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인적자원 플랫폼 등을 제안함.
- 본 연구는 자조모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제시한 데 그 의의가 있음. 본 연구의 결과는 인천시 예비노인세대가 지닌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임.
- 향후 연구에서는 운영 매뉴얼을 적용한 자조모임을 진행함으로써 운영 매뉴얼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고영복(2000). 사회학 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김춘경·이수연·이윤주·정종잔·최웅용(2016). 상담학 사전. 학지사.
- 김현진(2007). 알코올 중독자 가족친목모임을 통한 단주 성공 가족에 대한 사례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세진·조흥식(1997).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 박정숙·권상민(2014).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자조집단 운영 현황. 디지털융복합연구, 12(8), 449-458.
- 백운옥(2019). 자원봉사 지속성 영향요인에 관한 메타연구:지적구조 및 효과크기 분석.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명희(2001). 자조집단을 활용한 노인자원봉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자살예방센터(2012). 자살유족 상담 및 자조모임 매뉴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안용석·송남영·강민희(2014). 지적장애인 자조모임 회의활동지원 매뉴얼.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양지훈·권미애(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내 및 욕구조사. (재)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 양지훈·황성동(2020). 사회복지학 분야 메타분석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방법론적 질 평가.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 6(2), 5-43.
- 이경준(2006). 한국과 독일의 장애인 자조모임 연구: 양국 참가자들의 지원욕구와 인식비교 및 독일의 자조모임 지원 동향. 한국장애인복지학, 111-166.
- 이용표·최한숙(2001). 알코올중독자 자조집단 참여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알코올 과학회지, 2(1), 89-101.
- 이은석(2020). 성인 자원봉사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철수(2013). 사회복지학 사전. 해민북스.
- 정해숙·김이산·김연수(2010).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

- 최복찬·성명진·조운경·백정연(2014).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사례 분석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최복찬·성명진·조운경·백정연(2013).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지원 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중앙장애인아동 발달장애지원센터.
- 태화샘솟는집(2017).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워크북. 태화샘솟는집 주거지원부.
- 황현민(2017).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자조모임 활동과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M. (2007). Self and social change. Sage.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 Rothstein, H. R. (2011).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John Wiley & Sons.
- Borkman, T. (1976). Experiential knowledge: A new concept for the analysis of self-help groups. Social Review, 50(3), 445-456.
- Deutsche Arbeitsgemeinschaft Selbsthilfegruppen(DAG SHG) e.V (1987). Selbsthilfegruppen-Unterstützung, eine Orientierungsrahmen, Giessen: DAG.
- Gartner, A., & Reissman, F. (1998). "Self-help". Social Policy, Spring, 83-86.
- Katz, A. H. (1965). Application of self-help concepts in current social welfare. Social Work, 10(3), 69-74.
- Katz, A. H., & Bender, E. I. (1976). Self-help groups in Western society: History and prospect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2(3), 265-282.
- Keating A, Kerr D, Benton T.(2010).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2001-2010: Young people's practic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The eighth and final report from the citizenship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 Luhman, N.(1983). Legitimation durch Verfahren. Suhrkamp.
- Brilliant, E. L. (2004). Generalist Practice with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by Karen K. Kirst-Ashman & Grafton H. Hull, Jr.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12, 165-166.
- Miller, J. E.(1998). Effective Support Groups. Willowgreen Inc.
- Moeller, R. G. (1996). Protecting motherhood: Women and the family in the politics of postwar West Germany. Univ of California Press.
- Rhoades, C. (1986). Different organizational models for self-help advocacy groups that serv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52(4), 43.

- Smith, D. H., & Pillemer, K. (1983). Self-help groups as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Social structure and social change. *Research in Social Movements, Conflicts and Change*, 5(2), 381-392.
- Stewart M. J. (1990). Expanding theoretical conceptualizations of self-help group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1(9), 1057-1066.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Contrived March 5, 2018, from http://www.who.int/ageing/publications/active_ageing/en/.
- Whittaker, J. K. (1982). 사회치료 (문인숙 역). 홍익재. (원서출판 1974).
- Yalom, Irvin D., & Leszcs M. (2005).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Basic Books.
- Zastrow, C. (2008). Introduction to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Thomson Brooks/Core.

부부

■ 부록: 국내 자조모임 현황

모임명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알깨기	한부모여성가족	한부모여성가족의 문제해결능력 증진, 지지체계 강화, 또래관계 증진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늘숨BAN	다문화·여성	수공예활동 및 문화체험활동을 통한 역량강화와 자기성장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자무지개	아버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향상 및 양성평등한 가족문화확산을 위한 지역주민대상캠페인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모농라 데이트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자기역량강화, 자녀성장지원, 봉사활동	종로구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다문화가족	자기역량강화	서울시 중구
신짜오!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을 통한 친목교류	서울시중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피어나 손뜨개모임	다문화가족	코바늘, 대바늘을 이용한 소품만들기, 문화체험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두 언어 다 행복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성동구
따뜻한 발걸음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성동구
행복메아리	다문화가족	합창단 정기연습 및 공연활동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너나들이	중위소득72% 이하	재능나눔, 문화체험, 돌봄자녀학습 및 놀이공유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늘벗	20~50대 인가구 및 예비1인가구	자체기획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뇌봉다이런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자기역량강화	서울시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1인가구자조모임	1인가구	스터디, 취미, 봉사 등	서울시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온라인자조모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교류소통	서울시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꺼마랄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자기역량강화 봉사활동	성북구
언어놀이터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도봉구
아버지자조모임	예비아빠	출산교육, 육아수첩, 애착인형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새혼생활	재혼가족	관계개선 맞춤프로그램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모임명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베트남자조모임	다문화-베트남	자체기획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다락방	여성한부모	자체기획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은평호아센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은평구
1인가구동아리	1인가구	자체기획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삼파기타	다문화가족	자기역량강화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센스맘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서대문구
골드싱글라이프_문화여가	서울시1인가구 중장년	지역사회문화탐방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골드싱글라이프_창업준비자	3,40대 이혼여성1인가구	창업교육, 지역사회나눔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손안에 디자인	다문화가족	자기역량강화	마포구
우리집 꼬마 외교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양천구
정성으로 차리는 맛있는밥상	다문화가족	자기역량강화	강서구
나드리 (나를리드하는치어리딩)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자기역량강화	구로구
빛나라예술단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금천구
엄마의 테이블 (Together+ABLE)	다문화가족	자기역량강화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꿈디자이너	사례대상자보호 자	만들기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상호 정서적 지원을 위한 보호자 공동체 형성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토토로 모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서초구
아는 엄마	다문화가족	자기역량강화 자녀성장지원 학부모모임	강남구
취업자 자조모임	취업자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강남장애인복지관
다재다능	성인발달장애인	재능공유, 여가활동	강남장애인복지관
라이프룩	학부모	독서와 영화 인문학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슈퍼맘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송파구
너랑나랑봉사단	다문화가족	봉사활동	송파구
강동국악누리	다문화가족	사물놀이연주, 공연봉사	강동구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기역량강화 자녀성장지원	성북구

모임명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성장통(通)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동반 체험활동	금천구건강가정 지원센터
빛나라예술단	다문화	문화예술활동	금천구
치매가족자조모임	치매환자가족	치매환자가족 심리적부담경감, 사회적으로립방지	정읍시치매안심센터
거제맘내리사랑	장애인부모	정서지지	거제시장애인가족 지원센터
2030 장애여성 자조모임	2030 지체, 뇌병변 장애여성	정서지지, 자기역량강화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슝
파벤져스,파스타	용인시 거주 아버지	자녀성장지원	용인시건강가정 지원센터
빛날	미혼모부가정	자녀성장지원	광주남구건강가정 지원센터
소확행	취약,위기가족	가족역량강화, 다양한 체험활동	인천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청음	중국 결혼이민자	중국악기연주 등 문화 홍보	인천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락락	중국 결혼이민자	퓨전댄스난타	인천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HAPPY맘	영유아부모	양육컨설팅	인천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다소다	아버지와 자녀	가족소통, 문화체험	인천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아우라	학부모	POP만들기	인천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도란도란	영유아부모	스토리텔링	인천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페이퍼플라워	학부모	종이공예 및 지역사회봉사	인천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스트릿매직	가족	집단미술, 생활미술, 미술공연봉사	인천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KARA	학부모	난타배우기 및 공연봉사	인천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너나들이	학부모	자기역량강화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동그라미	미혼모부가정	자녀성장지원, 정서지지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베트남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자체기획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
뷰티자조모임	결혼이주여성	천연화장품만들기, 메이크업배우기 등	강화군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
끼리끼리	중위소득72% 이하	가족끼리 정보,경험공유	인천계양구건강가정 지원센터

모임명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너나들이	다문화가족	한국어발음교육, 통번역지원	인천계양구건강가정 지원센터
시스트라	다문화가족	댄스모임 및 지역축제공연참여	인천연수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手)미인	다문화가족	손글씨쓰기, 공예품제작, 작품전시	인천연수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한부모, 저소득층	공동관심사 취미활동	인천연수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울타리	다문화가족	원예, 공예, 자녀성장지원	인천미추홀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가행복애	다문화가족	양육정보 및 고민공유	인천미추홀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드림	다문화가족	난타배우기 및 공연	안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벤져스	아버지	양육정보공유 및 양육고민공유	용인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스타	아버지	양육정보공유	용인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음든든	한부모	체험, 정서지지	의정부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의정부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놀러오세요, 하와이	결혼이주여성	문화교류, 정서유대	의정부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봉사단	탈북가족	자원봉사, 친목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보드는 사랑을 싣고	가족	가족의사소통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행복한 우리아빠	초등 아버지	자녀성장지원	양구군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자기역량강화	양양군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같이가치	다문화가족	문화예술활동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국가별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운동, 요리, 취미, 봉사	평창군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공동관심사 활동	평창군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피자	성인	캘리그래피, 봉사	논산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통문화 모시공예	다문화가족	모시공예	서천군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모임명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무지개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자기역량강화	증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모여라!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자녀양육역량강화, 예체능취미활동	경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다방	한부모가정	친목도모 및 여가문화체험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나눔뜨개	다문화가족	친목도모 및 여가문화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가온(on)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창작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부모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소통	김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통합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순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자기역량강화, 봉사	통영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Mom's English	초등학부모	자기역량강화	울산남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희망과 함께하는 동행	가족	정보공유, 문화예술	울산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베트남 메콩강 여인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문화예술	울산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appy우먼	다문화가족	미술, 심리정서강화	나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통기타, 서양화	순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화의 시작은 시작이다~	다문화가족	정서지지, 창작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랑이 피어나는 우리가족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정서유대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의 보물섬으로	다문화가족	정서유대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ampyeong Filipina Community	다문화가족	문화교류, 정서유대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가온(on)	다문화가족	정보교류	화순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울림	여성	합창	고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희망애	사례대상자	정보공유, 요리	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피해자자조모임	성인발달장애 여성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삶을 나누는 자조적 네트워크를 구축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모임명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희망동이마을	22번염색체 미세결실증후군 환자 및 가족	치료정보공유, 정서지지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누난증후군모임	누난증후군 환우 및 가족	치료정보공유, 정서지지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러셀실버증후군환우가족모임	러셀증후군 환우 및 가족	치료정보공유, 정서지지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스마스마제니스	스마스마제니스 증후군 환우 및 가족	치료정보공유, 정서지지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한국엔젤만신드롬가족모임	엔젤만신드롬환 우 및 가족	치료정보공유, 정서지지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월슨사랑회	월슨병환 우 및 가족	치료정보공유, 정서지지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고셔병 자조모임	고셔병환 우 및 가족	치료정보공유, 정서지지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가부키증후군 자조모임	가부키증후군 환우 및 가족	치료정보공유, 정서지지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선천성부신증식증 자조모임	선천성부신증식 증 환우 및 가족	치료정보공유, 정서지지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프라더윌리증후군 자조모임	프라더윌리 환우 및 가족	치료정보공유, 정서지지	서울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다솜마루	발달장애아동 보호자	보호자 심리지원 각종활동	은평병원
비장애 형제자매 자조모임	발달장애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치료체험활동, 그룹활동 및 레크레이션	세종시장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부모 자조모임	발달장애인부모	치료체험활동, 그룹활동 및 레크레이션	세종시장장애인부모회
청소년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청소년발달장애인	자기권리옹호 및 사회적 지지체계형성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춘	2,30대 청년	문화체험활동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립의 한 수	발달장애인	정서적 지지, 자기주도적활동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년클럽	발달장애인	자기결정이해교육, 자기주장교육, 네트워크, 전시회 등	순천시장애인복지관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자조모임	건강교실수료자	합병증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구리시
만성질환관리 재활운동교실 연계 자조모임	재활운동교실 수강자	지속적인 재활운동	구리시
소수국가자조모임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방송댄스교실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맘스트롱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양육스트레스 해소와 자기계발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모임명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한.울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변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리스타트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푸른나무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구로파랑새나눔터공부 방지역아동센터
자신감 Flex!	한부모가족	양육 및 자립정보 교환과 스트레스 해소	창신모자원
금천구 꿈꾸는 Mom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마당발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열린 mom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
따로 또 같이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 복지관
소담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꽃보다아름다워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재능 JUMP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힐리투어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성북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힐링타임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당당하게 날다!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톡톡타임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좋은 벗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사)지혜로운여성
당당맘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봄봄가족	한부모가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유리원광종합사회복지관
팔방미인	청년통장사업 참가자	문화체험, 만들기,나눔	유리원광종합사회복지관
너나들이	희망두배청년 통장가입자	문화체험, 만들기,나눔	유리원광종합사회복지관
천안AA	알콜중독자	금주정보공유, 정서지지	천안아산병원
달고나	한부모가정	문화체험, 만들기,나눔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굴러굴러	장애인	체육활동(보치아), 대회참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주보기	장애인	문화체험, 정보공유, 친목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풍당당	장애인	문화체험, 정보공유, 친목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임명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나라별 자조모임	결혼이주여성	정보공유, 정서지지, 문화체험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너나들이모꼬지	장애인	문화체험, 정보공유, 친목	햇살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30비장애형제자자조모임	2030비장애형제자매	자율기획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자조모임	장애자녀부모	자율기획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무지개	여성장애인	자율기획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인권동행	발달장애인	영상제작, 자율기획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자조모임	학부모	문화체험, 정보공유, 친목	영등포교육복지센터
청각장애인자조모임	청각장애인	자율기획	청음복지관
자조모임	치매환자가족	문화체험, 치매정보교류, 정서지지	이천시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가족자조모임	치매환자가족	문화체험, 치매정보교류, 정서지지	양주시치매안심센터
마음보듬	치매환자가족	문화체험, 힐링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다솜	치매환자보호자	지속적인 자조모임	성남시수정구치매안심센터
토닥토닥	치매환자가족	정보교류, 정서지지	인천연수구치매안심센터
네목회	치매환자 및 가족	문화체험, 정보교류, 정서지지	인천연수구치매안심센터
응원해	청년	문화교류, 정서유대	세종시장애인복지관
부모자조모임	장애자녀를 둔 부모	자체기획	세종시장애인복지관
하나봉사단	탈북여성,가족	친목 및 사회성증진, 봉사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동	발달장애가족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고 실천	지역주민
대리위탁부모 자조모임	대리위탁부모	문화체험, 부모교육	대전시가정위탁지원센터
어울림	치매가족	치매정보공유, 신체, 심리지지	제주시동부보건소
입양삼자	성인입양인, 생부모	연대, 독립성제고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모임명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다복이	만성스트레스 또는 우울감 있는 주민	이완훈련 및 스트레스해소활동	하남시
가족품앗이	학부모	학습, 야외활동, 문화체험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자조모임	장애자녀부모	자체기획	세종시장애인복지관
연결고리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함양, 자체기획	한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굿마더	발달장애인부모	복지 및 자립정보공유, 정서지지	한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나 여기있어!	발달장애인	아프리카 만딩고 댄스모임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글쓰기모임	발달장애인	나의 역사 쓰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무지개	발달장애아부모	발달장애홍보, 지역사회참여	자생모임
꿈꾸는 느림보	발달장애아부모	발달장애홍보, 지역사회참여	자생모임
부모자조모임	영유아부모	자녀양육과 관련된 자발적인 활동	서울영등포구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역양육미혼모자조모임	12세미만 양육미혼모	자녀양육과 관련된 자발적인 활동	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 충남지회
신짜오반	다문화-베트남	문화교류, 정서유대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니하오반	다문화-중국	문화교류, 정서유대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부모자조모임	미취학아동 양육자	자녀양육과 관련된 자발적인 활동	구리시육아종합 지원센터
슬기로운마포생활	고등학생이상 발달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정보교류	(사)서울장애인부모 연대마포지회
아빠, 우리놀러가요!	미취학아동양육 아버지	정서지지, 가족문화체험	구리시육아종합 지원센터
여성살림마당	창업자	창업특강	전남여성가족재단
소나	지적장애인자녀 부모	정서지지, 문화체험, 정보공유	대전지적장애인자립 지원센터
부모자조모임	장애자녀부모	취미, 여가, 평생교육, 문화체험, 자기계 발 등 공통의 관심분야	세종시장애인복지관
하하호호	결혼이주여성	수공예자조모임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

모임명	대상	활동내용	운영기관
발달장애청소년자조모임	발달장애청소년	또래문화소통, 진로선택, 직업탐색 및 취업준비활동	나아발달지원센터
마음봄	센터이용자	마음챙김명상, 긍정심리훈련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
MC the Dance	춤바덴스에관심 이있는정신장애 인혹은비장애인	월2회 춤바덴스	구로조은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인장애인자조모임	장애인	자기발견을 통한 관계형성프로그램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감정노동자자조조직	감정노동자집단	자체기획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에코아띠	안산시직장인 여성	환경정보공유, 친환경제품제작, 친목,소통	안산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새벽공!	보치아활동 장애인	보치아연습, 친선경기	새벽지기장애인자립 생활센터
누미들	서초구15~17세 청소년	지역 거점 기획 자원봉사	우면종합사회복지관
건강동아리	중랑구거주성인	대사증후군검사, 올바른 운동법, 식습관 공유	상봉보건지소
DD맘	난임가족	난임극복정보교류, 정서지지	(사)한국난임가족 연합회
내멋에산다!	지역장애인	살아온이야기공유, 표현방법교육	가온장애인자립 생활센터
해보자!	청각장애인-부 산경남지역	네트워크형성, 정서지지	청각장애인들의 공감과 소통네트워크
주인공은 나야나!	7~13세 비장애형제자매	정서지지, 체험활동, 문화, 여가	중랑구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방안 : 자조모임 운영 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발행인 : 원 미 정

발행일 : 2020년 10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TEL. 032-715-5491 FAX. 032-715-5319

<http://www.inlife.or.kr>

인쇄처 : 삼정인쇄(032-773-3402)

ICAS 연구보고서 2020-02

ISBN 979-11-90449-02-1 93330



[Incheon Metropolitan City
Center for Aging Society]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TEL.032-715-5491 FAX.032-715-5319 www.inlife.or.kr

본 자료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